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Ⅰ. 단어

개념 01 체언

개념 트레이닝 본문 1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추상 08 구체 09 구체 10 추상 11 경복궁, 세종 대왕, 설악산, 불국사 12 김밥, 기차, 군인, 주전자, 하늘, 모자 13 고양이, 마리 14 수영, 줄 15 학교, 수 16 그 17 나, 이곳 18 이것, 저것, 그것 19 인칭 20 지시 21 인칭 22 지시 23 삼, 사, 칠 24 열 25 첫째, 둘째 26 ㉡ 27 ㉡ 28 ㉠ 29 ㉠ 30 수사, 명사 31 명사, 명사 32 대명사, 명사, 명사 33 대명사, 명사 34 명사, 수사, 수사 35 대명사, 명사

01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02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4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는 추상 명사이다.

06 수사 중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는 서수사이다.

개념 02 용언

개념 트레이닝 본문 1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닦다, 버리다, 사귀다, 만들다, 흔들다 09 잔다, 피었다, 날아갔다, 가서 10 샀다, 쳤다, 담았다, 보았다 11 아름다웠다 12 매워서 13 세게, 시원하다 14 오래된 15 성상 16 지시 17 성상 18 지시 19 동사 20 형용사 21 동사 22 형용사 23 기다린다, 기다리다 24 작았구나, 작다 25 만났어, 만나다

02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며, 용언에 속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관형사는 수식언에 속하는 품사이다.

03 용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과 형태가 변하는 어미로 이루어진다.

05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타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이 목적어에 미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07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08 '닦다, 버리다, 사귀다, 만들다, 흔들다'는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이고, '좋다, 멋있다, 가늘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이다.

09~10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는 자동사이고,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는 타동사이다.

23 동사 '기다린다'의 어간은 '기다리-'이고, 어미는 '-ㄴ-', '-다'로 기본형은 '기다리다'이다.

24 형용사 '작았구나'의 어간은 '작-'이고, 어미는 '-았-', '-구나'로 기본형은 '작다'이다.

25 동사 '만났어'의 어간은 '만나-'이고, 어미는 '-았-', '-어'로 기본형은 '만나다'이다.

개념 03 수식언

개념 트레이닝 본문 1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새, 한 08 이, 옛 09 갖은, 첫 10 그, 두 11 지시 관형사 12 성상 관형사 13 수 관형사 14 성상 관형사 15 가장 16 매우, 자주 17 먼저 18 ㉢ 19 ㉣ 20 ㉡ 21 ㉠ 22 ㉤ 23 ○: 딴 △: 계속 24 △: 많이, 못 25 ○: 저런 △: 설마 26 누가 우승할까 27 걸어온다 28 처음 29 세상

02 수식언은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4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수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와 구별된다.

05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체언 등을 꾸며 주기도 한다.

06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부사는 '아직도(아직 + 도)'와 같이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07 '새'는 명사 '책'을, '한'은 의존 명사 '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8 '이'는 명사 '사람'을, '옛'은 명사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9 '갖은'은 명사 '노력'을, '첫'은 명사 '우승'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0 '그'는 명사 '방'을, '두'는 의존 명사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1 '저'는 명사 '거리'를 꾸며 주는 지시 관형사이다.

12 '순'은 명사 '살코기'를 꾸며 주는 성상 관형사이다.

13 '넷째'는 명사 '날'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14 '외딴'은 명사 '오두막'을 꾸며 주는 성상 관형사이다.

18 '안'은 동사 '마른다'를 꾸며 주는 부정 부사이다.

19 '제발'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간절히 바라는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다.

20 '이리'는 동사 '와서'를 꾸며 주는 지시 부사이다.

21 '잘'은 동사 '돌아간다'를 꾸며 주는 성상 부사이다.

22 '그래서'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임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23 '딴'은 명사 '이야기'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계속'은 동사 '하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4 동사 '변해서'를 꾸며 주는 '많이'와 '알아보았어'를 꾸며 주는 '못'은 모두 부사이다.

25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저런'은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6~27 '과연'은 문장 전체인 '누가 우승할까'를, '아장아장'은 동사 '걸어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8~29 '맨'은 명사 '처음'을, '온'은 명사 '세상'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개념 04 관계언, 독립언

개념 트레이닝 본문 1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격 **09** 보조 **10** 접속 **11** 보조 **12** 접속 **13** 격 **14** 시작 **15** 대조 **16** 한정 **17** 선택 **18** 포함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도, 에 ㉡ 아뿔싸 **28** ㉠ 가, 을 ㉡ 아하 **29** ㉠ 는, 로 ㉡ 여보세요 **30** ㉠ 의, 만 ㉡ 네 **31** ㉠ 까지, 에서 ㉡ 어머나

03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준다.

05 독립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7 독립언인 감탄사는 문장의 다른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08 '에서'는 부사격 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09 '만'은 한정,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가'는 주격 조사이다.

10 '랑'은 두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에'는 부사격 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11 '는'은 화제, 강조 등의 의미를 더해 주고, '도'는 포함, 역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12 '과'는 두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에'는 부사격 조사, '이'는 주격 조사이다.

13 '이'는 주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20, 22 '아버지'는 명사이고, '현주야'는 명사 '현주'와 호격 조사 '야'가 결합한 형태이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개념 01~04 본문 18~21쪽

01 (1) ○ (2) × (3) × (4) ○ **02** (1) 체언 (2) 형용사 (3) 관형사 (4) 감탄사 **03** (1) ①, ③, ⑧, ⑨, ⑩, ⑫, ⑬, ⑭ (2) ②, ④, ⑤, ⑥, ⑦, ⑪, ⑮, ⑯ **04** (1) ㉠ 마당, 꽃 ㉡ 피었다 ㉢ 활짝 (2) ㉠ 오늘, 노을 ㉡ 붉은, 아름다웠다 ㉢ 무척 (3) ㉠ 강, 수심 ㉡ 깊으니, 건너라 ㉢ 이, 꽤, 천천히 **05** (1) 할머니, 딸, 영준, 차이 (2) 여기 (3) 둘, 하나, 셋 **06** (1) ○: 받았다 △: 긴 (2) ○: 입고, 갔다 (3) △: 크고, 세다 (4) ○: 와서 △: 미끄럽다 (5) ○: 놀았다 △: 즐겁게 **07** ㉠ 솟다, 골랐다, 달린다 ㉡ 맑은, 조용하다, 미안한 **08** (1) 덜어서(덜다), 편하다(편하다) (2) 피곤해서(피곤하다), 잤다(자다) (3) 푸르고(푸르다), 시원하게(시원하다), 분다(불다) (4) 작은(작다), 온(오다), 주었다(주다) **09** (1) 날-, -다 (2) 좋-, -으니 (3) 좁-, -아서 (4) 찍-, -은 (5) 이상하-, -ㄴ **10** (1) 성상 관형사 (2) 수 관형사 (3) 지시 부사 (4) 접속 부사 **11** (1) 모든(관형사), 활짝(부사) (2) 아마(부사), 한(관형사) (3) 어느(관형사), 더(부사) (4) 옛(관형사), 문득(부사) **12** (1) ㉠ (2) ㉡ (3) ㉢ (4) ㉠ (5) ㉢ **13** ㉠ 모름지기 ㉡ 설마 ㉢ 부디 ㉣ 그러나 ㉤ 그래서 **14** (1) ㉠ 사뿐히 ㉡ 올라갔다 ㉢ 부사 (2) ㉠ 온갖 ㉡ 정성 ㉢ 관형사 (3) ㉠ 꼭 ㉡ 잡았다 ㉢ 부사 (4) ㉠ 이런 ㉡ 노래 ㉢ 관형사 (5) ㉠ 훨씬 ㉡ 나아져서 ㉢ 부사 **15** (1) 아(호격 조사), 를(목적격 조사) (2) 이(주격 조사), 가(보격 조사) (3) 가(주격 조사), 에서(부사격 조사), 를(목적격 조사) (4) 야(호격 조사), 이(주격 조사) (5) 의(관형격 조사), 을(목적격 조사) **16** (1) 은 (2) 는 (3) 만 (4) 도 (5)

조차 **17** (1) ○: 가 △: 어이구 (2) ○: 야, 도, 에 (3) ○: 이, 가, 이야 △: 앗 (4) ○: 는, 에서 △: 응 (5) ○: 만, 의, 이 **18** (1) 부사 (2) 동사 (3) 조사 (4) 명사 (5) 감탄사 (6) 형용사 (7) 관형사 **19** (1) ㉠ 명사 ㉡ 대명사 ㉢ 부사 ㉣ 조사 (2) ㉠ 명사 ㉡ 조사 ㉢ 수사 ㉣ 동사 (3) ㉠ 관형사 ㉡ 형용사 ㉢ 동사 ㉣ 명사 **20** (1) ① 부사 ② 조사 (2) ① 명사 ② 부사 (3) ① 관형사 ② 수사 (4) ① 형용사 ② 동사 **21** (1) 책(명사), 두(관형사), 권(명사), 을(조사), 샀다(동사) (2) 동생(명사), 이(조사), 식당(명사), 에(조사), 갔다(동사) (3) 와(감탄사), 너희(대명사), 둘(수사), 참(부사), 멋지다(형용사) (4) 그녀(대명사), 는(조사), 아파서(형용사), 일찍(부사), 잤다(동사)

01 (2)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3) 수식언 중 부사는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체언 등을 꾸며 준다.

03 (1)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2)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조사, 감탄사이다.

07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면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이다.

09 용언의 기본형(어간+어미 '-다')을 찾은 뒤,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형태가 변하며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부분은 어미로 구분한다.

11 (1) '모든'은 명사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활짝'은 동사 '웃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 '아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한'은 의존 명사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3) '어느'는 명사 '곳'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더'는 동사 '좋아하니'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4) '옛'은 명사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문득'은 동사 '떠오른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옛날'은 명사로 수식언이 아니다.

13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는 문장 부사이다. ㉠ '모름지기', ㉡ '설마', ㉢ '부디'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고, ㉣ '그러나', ㉤ '그래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16 (1)~(2) '은/는'은 대조의 의미를 더하거나 문장의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가'는 주격 조사이다.
(3) '만'은 한정이나 단독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4) '도'는 이미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을 더하여 포함, 역시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5) '조차'는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을 더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대상까지 포함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20 (1) ①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동사 '흐른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② 명사 '얼음장' 뒤에 붙어 비교의 뜻을 나타내므로 조사이다.
(2) ① 뒤에 격조사 '에게'가 결합하는 것은 체언의 특징이므로 명사이다. ②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동사 '쏟았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3) ①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므로 수 관형사이다. ②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므로 수사이다.
(4) ① 주어인 '이 옷은'의 치수나 상태가 넉넉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큰다'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②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다.'라는 의미로 성장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큰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23쪽

01 (1) ① 수사 ② (수) 관형사 (2) ① (수) 관형사 ② 수사 (3) ① 수사 ② 수사 (4) ① (수) 관형사 ② (수) 관형사 **02** (1) 조사 (2) 의존 (3) 의존 (4) 조사 **03** (1) ㉠ 맑아라 ㉡ 맑자 ㉢ 형용사 (2) ㉠ 보아라 ㉡ 보자 ㉢ 동사 (3) ㉠ 던져라 ㉡ 던지자 ㉢ 동사 (4) ㉠ 여려라 ㉡ 여리자 ㉢ 형용사 **04** (1) ②, ⑤, ⑥, ⑧, ⑩, ⑪, ⑫, ⑮ (2) ①, ③, ④, ⑦, ⑨, ⑬, ⑭

01 (1) ① '열'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므로 수사이다. ② '열'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 '명'을 꾸며 주므로 수 관형사이다.
(2) ① '다섯'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므로 수 관형사이다. ② '다섯'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므로 수사이다.
(3) ① '셋'은 부사격 조사 '보다'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므로 수사이다. ② '셋'은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므로 수사이다.
(4) ① '일곱'은 뒤에 오는 명사 '자녀'를 꾸며 주므로 수 관형사이다. ② '일곱'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가지'를 꾸며 주므로 수 관형사이다.

02 (1) '만큼'은 명사 '데' 뒤에 붙어 '앞말에 한정됨.'이라는 뜻

을 더하고, 앞말에 붙여 쓰므로 조사이다.
(2) '만큼'은 동사 '먹다'의 관형사형인 관형어 '먹을'의 꾸밈을 받고 앞말과 띄어 쓰므로 의존 명사이다.
(3) '대로'는 동사 '보다'의 관형사형인 관형어 '본'의 꾸밈을 받아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앞말과 띄어 쓰므로 의존 명사이다.
(4) '대로'는 명사 '계획' 뒤에 붙어 앞말과 같음의 뜻을 더하므로 조사이다.

03 (1) '맑다'는 '맑아라', '맑자'와 같이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2) '보다'는 '보아라', '보자'와 같이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3) '던지다'는 '던져라', '던지자'와 같이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4) '여리다'는 '여려라', '여리자'와 같이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1~04 본문 24~27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①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⑤ **13** ② **14** ③ **15** ① **16** ③
17 ④ **18** ① **19** ③ **20** ② **21** ① 조사는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뒤에도 결합하여 쓰인다. ② 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22** ㉠과 ㉡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은 명사와 조사로 이루어진 반면 ㉡은 감탄사이다. **23**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기〉의 문장은 어색하다.

01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① 가변어와 불변어는 단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이다.
③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라도 그 의미적 특성은 다르다.
④ 단어는 의미에 따라 아홉 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02 ㉠은 같은 종류의 모든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이고, ㉡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모두 추상 명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03 <보기>를 통해 의존 명사인 '마리, 개'는 앞에 꾸며 주는 말인 '한'이 있어야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기 어렵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말로,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04 ③의 '어느'는 '것'이라는 명사(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로, 다른 말을 꾸며 주지 않으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 오답 체크 |
① '이것', '저것'이라는 대명사가, ② '여기'라는 대명사가, ④ '그대', '나'라는 대명사가, ⑤ '무엇'이라는 대명사가 각각 사용되었다.

05 ㉠, ㉡과 같은 수사는 조사가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다.
② ㉠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고, ㉡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④ 수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⑤ 수사는 체언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06 '태어나서'의 기본형은 '태어나다'로 동사이며, '기뻤다'의 기본형은 '기쁘다'로 형용사이다.

| 오답 체크 |
② '나눠(나누다)', '먹었다(먹다)'는 모두 동사이다.
③ '어둡고(어둡다)', '침침했다(침침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④ '밝아서(밝다)', '환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참고로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의미로 사용되면 동사이다.
⑤ '잡으러(잡다)', '갔다(가다)'는 모두 동사이다.

07 ⑤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08 <보기>의 '신는다, 신어라, 신자'는 동사 '신다'의 활용형이다.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ㄴ-',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다. ⑤는 <보기>와 같이 활용할 수 없는 형용사이다.

09 '온갖'과 '모든'은 관형사, '번쩍'과 '전혀'는 부사이다. 따라서 관형사인 '온갖'과 '모든'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만, 부사인 '번쩍'과 '전혀'는 체언을 꾸며 주지 않고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10 <보기>의 '곧'은 부사이다. ㉡에는 동사 '웃는다'를 꾸며 주는 부사 '늘'이 사용되었고, ㉣에는 동사 '불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 '꽤'가 사용되었다. ㉠에는 명사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 '헌'이, ㉢에는 의존 명사 '중'을 꾸며 주는 관형사 '저'가 사용되었다.

11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갔다.'에서 '가'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 즉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격조사(주격 조사)이다. 이와 달리 '만, 마저, 도, 는'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한걸음 더

보조사가 쓰인 문장 성분 파악

문장에서 보조사가 쓰인 경우, 문맥상 원래 쓰여야 할 격조사로 바꾸어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 '지후도 빵만 먹는다.'에서 보조사 '도'를 주격 조사 '가'로, 보조사 '만'을 목적격 조사 '을'로 바꾸면 '지후가 빵을 먹는다.'가 된다. 따라서 '지후도'는 주어, '빵만'은 목적어이다.

12 독립언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문장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13 ②의 '봄'은 감탄사가 아닌 명사이다.

| 오답 체크 |

① 대답, ③, ④ 놀람이나 느낌, ⑤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14 형태를 기준으로 '모른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을 기준으로 '강', '깊이', '누구'는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체언이고, '모른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의, 는, 도'는 관계언이다. 의미를 기준으로 '모른다'는 동사, '강, 깊이'는 명사, '누구'는 대명사, '의, 는, 도'는 조사이다.

15 ㉠은 동사, ㉡은 부사, ㉢은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서 '이런'은 감탄사, '깜박'은 부사, '잊었네'는 동사이다.

| 오답 체크 |

② '벌써'는 부사, '익었어요'는 동사로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③ '늘'은 부사, '물려받았다'는 동사로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④ '아하'는 감탄사, '피었네'는 동사로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⑤ '반드시'는 부사, '보살펴, 주소서'는 동사로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16 ㉠은 형용사, ㉡은 동사로 모두 가변어이며, 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은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할 수 없어서 명령문을 만들 수 없지만, ㉡은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17 '제발'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고, 나머지는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 오답 체크 |

① '저리'는 뒤에 오는 동사 '가서'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② '안'은 뒤에 오는 동사 '들어왔어요'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③ '덥석'은 뒤에 오는 동사 '샀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⑤ '매우'는 뒤에 오는 형용사 '빠르게'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18 '성호야'에서 '성호'는 명사이고, '야'는 명사에 붙은 호격 조사이므로 감탄사라 할 수 없다.

19 ㉠의 '갔다'와 ㉡의 '가는'의 기본형은 '가다'이다.

| 오답 체크 |

①, ②, ④, ⑤ ㉠의 '갔다'는 동사, ㉡의 '가는'은 동사, '싫다'는 형용사, ㉢의 '걷는'은 동사, '좋습니다'는 형용사이다. ㉠의 '갔다', ㉡의 '싫다', ㉢의 '좋습니다'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의 '가는', ㉢의 '걷는'은 관형어 역할을 한다.

20 ⓐ '이'는 명사 '사과'를, ⓑ '그'는 명사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이리'는 동사 '와라'를, ⓔ '그리'는 동사 '보내겠습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서술형 대비

21 ㉠은 체언인 '하늘' 뒤에 조사가 쓰인 예이고, ㉡은 '예쁘게'라는 용언 뒤에 쓰인 예이며, ㉢은 부사인 '많이' 뒤에 쓰인 예이다. '도'는 보조사로, 앞말에 '포함', '놀라움이나 감탄', '강조' 등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조사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2가지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조사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1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22 ㉠과 ㉡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 명사 '재민'과 호격 조사 '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은 감탄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1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23 '크다'와 '착하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에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나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품사와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모두 쓴 경우	4점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품사를 밝히고,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일부만 쓴 경우	3점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품사만 쓴 경우	2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1~04 본문 28~29쪽

01 ③ 02 ③ 03 ⑤ [❶ 형용사 ❷ 동사 ❸ -는- ❹ 현재 ❺ -ㄴ- ❻ 과거 ❼ -(으)ㄴ ❽ 과거]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뜻 ❷ 격조사 ❸ 부사 ❹ 관형어] 04 ① 05 ①

01 '두'는 관형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만, '하나'는 수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 '도'와 '만'은 보조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동사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2 '하나'는 조사인 '를'과, '열일곱'은 조사인 '이다'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수사이고, '다섯', '두'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03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했을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인데, '이긴'은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 오답 체크 |

①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떫다'는 기본형이며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②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의 결합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읽는다'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③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동사인데, '논다'는 어간 '놀-'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④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간'은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04 ㉠의 '라면마저도'에 쓰인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이라는 의미의 보조사이고, 뒤에 붙은 '도'는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마저도'는 '격조사+보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보조사+보조사'의 형태로 결합한 것이다.

| 오답 체크 |

② ㉡의 '형도'는 주격 조사 '이' 자리에 보조사 '도'가 나타난 것이다.
③ ㉡의 '동생만을'에서 '만'은 보조사이고,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④ ㉢의 '아침에만'에서 '에'는 체언 '아침'에 결합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⑤ ㉢의 '아침에만'은 체언에 격조사 '에'와 보조사 '만'이 결합한 것이다.

05 ⓐ의 '만큼'은 앞의 명사 '건강' 뒤에 붙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이고, ⓑ의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 오답 체크 |

② ⓐ의 '뿐'은 관형어 '있을'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고, ⓑ의 '뿐'은 대명사 '너'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이다.
③ ⓐ의 '듯이'는 관형어 '뛸'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고, ⓑ의 '-듯이'는 용언의 어간 '다르-'에 붙어 사용되는 어미이다.
④ ⓐ의 '든지'는 명사 '사과'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이고, ⓑ의 '-든지'는 용언의 어간 '부르-'에 붙어 사용되는 어미이다.
⑤ ⓐ의 '-지'는 용언의 어간 '좋-'에 붙어 사용되는 어미이고, ⓑ의 '지'는 관형어 '만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개념 05 단어와 형태소

개념 트레이닝 본문 31~3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분리 **12** 조사 **13** 뜻(의미) **14** 의존 **15** 형식 **16** 지아∨는∨성격∨이∨참∨좋다 **17** 이른∨시간∨에∨학교∨에∨간∨적∨은∨없다 **18** 얼룩말∨이∨푸른∨초원∨을∨힘껏∨달린다 **19** 너무∨긴장해서∨아무∨말∨이나∨뱉었다 **20** 6 **21** 8 **22** 7 **23** 9 **24** 들+꽃 **25** 나비+× **26** 첫+사랑 **27** 달리+기 **28** 1 **29** 2 **30** 1 **31** 2 **32** 2 **33** 3 **34** 쏟/아서 **35** 말/하/ㄴ **36** 피/었/다 **37** 꽃/이/활짝/피/었/다 **38** 나/는/고양이/가/좋/다 **39** 학교/가/매우/시끄럽/다 **40** × **41** × **42** ○ **43** × **44** 자립 **45** 관형사 **46** 의존 **47** 조사 **48** 자립 **49** 의존 **50** 의존 **51** 의존 **52** 자립 **53** 자립 **54** ㉠ 함께, 흙, 도자기 ㉡ 으로, 를, 만들-, -자 **55** ㉠ 우리, 서로, 마음 ㉡ 는, 닫-, -은, 을, 열-, -었-, -다 **56** ㉠ 지하철, 옆, 사람, 발 ㉡ 에서, 의, 을, 밟-, -았-, -다 **57** × **58** ○ **59** ○ **60** ○ **61** 실질 **62** 문법 **63** 형식 **64** 어간 **65** 형식 **66** 실질 **67** 실질 **68** 형식 **69** 형식 **70** 실질 **71** ㉠ 바람, 세차-, 불- ㉡ 이, -게, -었-, -다 **72** ㉠ 밤, 하늘, 달, 무척, 밝- ㉡ 에, 이, -다 **73** ㉠ 낡-, 상, 위, 헌, 시계, 두- ㉡ -은, 에, 를, -었-, -다 **74** 았 **75** 이 **76** 춥 **77** ○ **78** × **79** × **80** × **81** ㉠ 6 ㉡ 2 ㉢ 7 ㉣ 4 ㉤ 5 **82** ㉠ 6 ㉡ 3 ㉢ 5 ㉣ 4 ㉤ 4 **83** ㉠ 8 ㉡ 4 ㉢ 6 ㉣ 5 ㉤ 5

05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나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06 용언의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07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된다.

08 형태소 중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0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20~23 단어 단위로 나누면 '우리/는/상자/다섯/을/옮겼다', '나/는/항상/최선/을/다할/뿐/이다', '새/학기/가/끝나고/방학/이/찾아왔다', '민서/가/집/에/오는/대로/청소/를/하자'이다.

28~33 '물걸레'는 '물+걸레'로, '달리다'는 '달리-+-다'로, '풋사과'는 '풋-+사과'로, '건너가다'는 '건너-+가-+-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40 단어 단위로 나누면 '유나/가/아주/잘/익은/수박/을/들었다'이므로, 단어는 총 8개이다.

41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유나/가/아주/잘/익-/-은/수박/을/들-/-었-/-다'이므로, 형태소는 총 11개이다.

42 자립성이 없는 단어는 '조사'이고, 이 문장의 조사는 '가', '을'로 2개이다.

43 '들었다'는 '들-+-었-+-다'로, 각각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다.

57~60 단어 단위로 나누면 '준서/가/새/옷/을/입었다'이고,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준서/가/새/옷/을/입-/-었-/-다'이다.

57 관형사 '새'는 자립 형태소이다.

58 조사 '가'와 '을'은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단어에 해당한다.

59 '입었다'의 의존 형태소는 '입-, -었-, -다'로 3개이고, 형식 형태소는 '-었-', '-다'로 2개이다.

60 자립 형태소는 '준서', '새', '옷'으로 3개이고, 의존 형태소는 '가', '을', '입-', '-었-', '-다'로 5개이다.

74 '-았-'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형식 형태소이고, 나머지는 실질 형태소이다.

75 '이'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고, 나머지는 실질 형태소이다.

76 '춥-'은 형용사의 어간으로 실질 형태소이고,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이다.

77~80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여기/에/작품/을/보-/-는/사람/-들/이/꽤/많-/-다'이다.

78 '을'은 조사로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79 '사람'은 실질 형태소이고, '-들'은 형식 형태소이다.

80 '많-', '-다'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81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면 '하늘/에/붉은/해/가/뜬다'이고,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하늘/에/붉-/-은/해/가/뜨-/-ㄴ-/-다'이다. 자립 형태소는 '하늘, 해'이고, 의존 형태소는 '에, 붉-, -은, 가, 뜨-, -ㄴ-, -다'이다. 실질 형태소는 '하늘, 붉-, 해, 뜨-'이고, 형식 형태소는 '에, -은, 가, -ㄴ-, -다'이다.

82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면 '새/가/모이/를/계속/쪼았다'이고,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새/가/모이/를/계속/쪼-/-았-/-다'이다. 자립 형태소는 '새, 모이, 계속'이고, 의존 형태소는 '가, 를, 쪼-, -았-, -다'이다. 실질 형태소는 '새, 모이, 계속, 쪼-'이고, 형식 형태소는 '가, 를, -았-, -다'이다.

83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면 '성규/는/새/인형/을/나/에게/주었다'이고,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성규/는/새/인형/을/나/에게/주-/-었-/-다'이다. 자립 형태소는 '성규, 새, 인형, 나'이고, 의존 형태소는 '는, 을, 에게, 주-, -었-, -다'이다. 실질 형태소는 '성규, 새, 인형, 나, 주-'이고, 형식 형태소는 '는, 을, 에게, -었-, -다'이다.

개념 06 어근과 접사

개념 트레이닝 본문 35~3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뜻(의미) **09** 어근 **10** 실질 **11** 접사 **12** 어간 **13** 고추 **14** 머리, 띠 **15** 첫, 사랑 **16** 주먹 **17** 김치 **18** 물, 방울 **19** 주머니 **20** 소매 **21** ㉠ **22** ㉢ **23** ㉣ **24** ㉡ **25** 한 **26** 한 **27** 한 **28** 둘 **29** 둘 **30** 한 **31** 한 **32** 둘 **33** 둘 **34** 둘 **35** 찌-, 빵 **36** 다리 **37** 젓- **38** 뛰-, 오- **39** 손, 발 **40** 1 **41** 1 **42** 2 **43** 3 **44** 3 **45** 1 **46** ㉠ 높- ㉡ 드높- **47** ㉠ 뛰-, 놀- ㉡ 뛰놀- **48** ㉠ 순수 ㉡ 순수하- **49** ○ **50** × **51** ○ **52** ○ **53** 접사 **54** 접미사 **55** 형식 **56** 의존 **57** 맨 **58** 짓 **59** 풋 **60** ㉡ **61** ㉠ **62** ㉢ **63** 멋쟁이, 선생님, 굵다랗다 **64** 젊음, 뒤집개, 공부하다 **65** ㉡ **66** ㉠ **67** ㉢ **68** 접두 **69** 접미 **70** 접두 **71** 접두 **72** 접미 **73** 접미 **74** 잔꾀, 군식구 **75** 학생답다, 장난꾸러기 **76** 어근+접미사 **77** 접두사+어근 **78** 접두사+어근 **79** 어근+접미사 **80** 어근+접미사 **81** -질 **82** -집 **83** 날- **84** 뒤- **85** -스럽다 **86** 보 **87** 덧 **88** 지기 **89** 알 **90** ○ **91** × **92** ○ **93** × **94** ㉠ 헛- ㉡ 소리 ㉢ × **95** ㉠ × ㉡ 가리- ㉢ -개 **96** ㉠ 엿- ㉡ 듣- ㉢ × **97** ㉠ 되- ㉡ 팔- ㉢ × **98** ㉠ × ㉡ 고기 ㉢ -잡이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01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05 어근만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으므로 접사는 단어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06 어간과 어근이 항상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이지만, 어근은 '솟-'이다.

21 명사 '맨밥'은 '맨-(접사)+밥(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2 형용사 '새파랗다'는 '새-(접사)+파랗-(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3 동사 '건너뛰다'는 '건너-(어근)+뛰-(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4 명사 '은행나무'는 '은행(어근)+나무(어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5~27, 30~31 어근이 하나인 단어는 '울보(울-)', '군침(침)', '언니', '사슴', '지우개(지우-)'이다.

28~29, 32~34 어근이 두 개인 단어는 '앞뒤(앞, 뒤)', '코피(코, 피)', '배나무(배, 나무)', '손수건(손, 수건)', '겨울바람(겨울, 바람)'이다.

40~41, 45 '바다', '사냥꾼(사냥)', '뒤흔들다(흔들-)'의 어근은 한 개이다.

42 '책가방'의 어근은 '책'과 '가방'으로 두 개이다.

43~44 '손목시계'의 어근은 '손', '목', '시계'이고, '눈물방울'의 어근은 '눈', '물', '방울'로 모두 세 개이다.

49 '놀았다'의 어간과 어근은 모두 '놀-'이다.

50 '헛돌다'는 '헛-(접사)+돌-(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51 '검붉다'는 '검-(어근)+붉-(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52 '날아가다'는 '날-(어근)+-아+가-(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60~62 접미사 '-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접미사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접미사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한다.

63 '멋쟁이'의 '-쟁이', '선생님'의 '-님', '굵다랗다'의 '-다랗다'는 어근에 뜻을 더하지만, 품사는 바꾸지 않는 접미사이다.

64 '젊음'의 '-음'은 형용사 어간 '젊-'에 붙어 명사를, '뒤집개'의 '-개'는 동사 어간 '뒤집-'에 붙어 명사를, '공부하다'의 '-하다'는 명사 '공부'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65~67 '같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 '같-'에 붙어 부사를, '밝기'의 '-기'는 형용사 어간 '밝-'에 붙어 명사를, '새롭다'의 '-롭다'는 관형사 '새'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68, 70~71 '군살'의 '군-', '돌배'의 '돌-', '햇밤'의 '햇-'은 어근 앞에서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69, 72~73 '믿음'의 '-음', '덮개'의 '-개', '먹보'의 '-보'는 어근에 뜻을 더하면서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이다.

74 '잔꾀'는 '잔-(접사)+꾀(어근)', '군식구'는 '군-(접사)+식구(어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손바닥'은 '손(어근)+바닥(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75 '학생답다'는 '학생(어근)+-답다(접사)', '장난꾸러기'는 '장난(어근)+-꾸러기(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76, 79~80 '가위질'은 '가위(어근)+-질(접미사)', '재롱둥이'는 '재롱(어근)+-둥이(접미사)', '좁다랗다'는 '좁-(어근)+-다랗다(접미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77~78 '개살구'는 '개-(접두사)+살구(어근)', '치솟다'는 '치-(접두사)+솟-(어근)+-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91 '늦더위'의 '늦-'은 어근 '더위'의 뜻을 한정하는 접두사이다.

93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99~104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은 어근이다(㉠). 어근 앞에 붙어 뜻을 한정하는 것은 접두사이고(㉡), 어근 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접미사이다(㉢).

개념 07 단일어와 복합어

개념 트레이닝 본문 39~4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대등 **08** 융합 **09** 종속 **10** 통사적 **11** 비통사적 **12** 단 **13** 단 **14** 합 **15** 단 **16** 단 **17** 합 **18** 단 **19** 단 **20** 합 **21** 합 **22** 1 **23** 2 **24** 2 **25** 1 **26** 2 **27** 2 **28** 2 **29** 2 **30** 1 **31** 2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작은집, 첫사랑, 바로잡다 **45** 뻐꾹새, 검붉다, 높푸르다 **46** ㉠, ㉢ **47** ㉡, ㉣ **48** ㉤, ㉥ **49** 뛰놀았다, ㉢ **50** 산들바람, ㉠ **51** 덮밥, ㉡ **52** 없다,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 **53** 접사 **54** 앞 **55** 접미 **56** 맨- **57** 군- **58** -개 **59** -보 **60** 한- **61** 맏- **62** -꾸러기 **63** -장이 **64** ㉠ **65** ㉢ **66** ㉡ **67** -보, 명사 **68** -히, 부사 **69** -답다, 형용사 **70** -하다, 형용사 **71** 군말, 되감다, 뒤섞다, 막노동, 바느질 **72** -리-, 접미 **73** 헛-, 살- **74** 파생어, 형용사 **75** 합성어 **76** 파생어 **77** 합성어 **78** 파생어 **79** 파생어 **80** 파생어 **81** 어근과 접사 **82** 복합어, 합성어 **83** 융합 합성어 **84** 비통사적 합성어 **85** ㉠ × ㉡ 힘, 들- ㉢ × **86** ㉠ 짓- ㉡ 밟- ㉢ × **87** ㉠ 드- ㉡ 높- ㉢ × **88** ㉠ × ㉡ 깊- ㉢ -다랗다 **89** ㉠ × ㉡ 알-, 보- ㉢ × **90** 토끼+× **91** 울-+-음 **92** 한+두 **93** 종이+배 **94** 한-+시름

02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단일어이다. 또한 '가다'와 같이 의존 형태소인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지면서도 단일어인 경우도 있다.

06 복합어는 여러 어근이나 접사가 결합해도 한 단어로 취급한다.

14, 17, 20~21 '꿀벌'은 '꿀(어근)+벌(어근)'로, '개털'은 '개(어근)+털(어근)'로, '배추벌레'는 '배추(어근)+벌레(어근)'로, '오르내리다'는 '오르-(어근)+내리-(어근)+-다'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3~24, 26~29, 31 '마소'는 어근 '말('ㄹ'이 탈락함.)'과 '소'가, '논밭'은 어근 '논'과 '밭'이, '책가방'은 어근 '책'과 '가방'이, '먹거리'는 어근 '먹-'과 '거리'가, '본받다'는 어근 '본'과 '받-'이, '검붉다'는 어근 '검-'과 '붉-'이, '높푸르다'는 어근 '높-'과 '푸르-'가 결합한 합성어로, 모두 두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33 '놀이'는 어근 '놀-'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36 '힘쓰다'는 어근 '힘'과 '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44 '작은집(작-+-은+집)', '첫사랑(첫+사랑)', '바로잡다(바로+잡-+-다)'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게 어근들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45 '버꾹새(버꾹+새)'는 부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한 형태이고, '검붉다(검-+붉-+-다)', '높푸르다(높-+푸르-+-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형태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46~48 '밤낮(밤+낮)'과 '물고기(물+고기)'는 '명사+명사'로, '빈말(비-+-ㄴ+말)'과 '젊은이(젊-+-은+이)'는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명사'로, '뛰어가다(뛰-+-어+가-+-다)'와 '찾아가다(찾-+-아+가-+-다)'는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49~51 '뛰놀았다(뛰-+놀-+-았-+-다)', '산들바람(산들+바람)', '덮밥(덮-+밥)'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64~66 접두사 '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접두사 '홀-'은 '짝이 없어 혼자뿐인'의 뜻을, 접두사 '덧-'은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한다.

67 '울보'의 '-보'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68 '영원히'의 '-히'는 명사 '영원'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69 '정답다'의 '-답다'는 명사 '정'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70 '성실하다'의 '-하다'는 명사 '성실'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71 '많이(많-+-이)'는 형용사 어간에 접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말이고, '복스럽다(복+-스럽다)', '슬기롭다(슬기+-롭다)'는 명사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된 말이다.

75~80 '옷장(옷+장)', '금도끼(금+도끼)'는 합성어이고, '눈매(눈+-매)', '구경꾼(구경+-꾼)', '새발갛다(새-+발갛-+-다)', '향기롭다(향기+-롭다)'는 파생어이다.

83 '그는 밤낮 놀기만 한다.'의 부사 '밤낮'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뜻으로, 각 어근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이다.

84 '꺾쇠(꺾-+쇠)'는 관형사형 어미 '-은' 없이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5~07 본문 42~45쪽

01 (1) ○ (2) ○ (3) ○ (4) × (5) × (6) × **02** (1) 형식 (2) 어근 (3) 접미사 (4) 단일어 (5) 파생어 (6) 융합 **03** (1) 창/을/활짝/열/었/다 (2) 여름/에/산/이/매우/푸르/다 (3) 바람/이/엄청/세/게/불/었/다 **04** (1) ㉠ 친구, 함께, 노래 ㉡ 와, 를, 하-, -ㄴ-, -다 ㉢ 친구, 함께, 노래, 하- ㉣ 와, 를, -ㄴ-, -다 (2) ㉠ 곧, 봄, 희망 ㉡ 이, 오-, -니, 을, 가지-, -자 ㉢ 곧, 봄, 오-, 희망, 가지- ㉣ 이, -니, 을, -자 **05** (1) 6 (2) 10 (3) 2 (4) 1 (5) 2 **06** (1) 높-, 높이 (2) 날-, 날개 (3) 웃-, 웃음 (4) 달리-, 달리기 **07** (1) 9, 7 (2) 8, 6 (3) 11, 7 (4) 10, 6 (5) 12, 9 **08** (1) ○ (2) × (3) × (4) ○ (5) × **09** (1) 자립, 의존 (2) 2, 1 (3) 4, 3 (4) 실질, 형식 **10** (1) 별, 얼굴, 크다, 앉다 (2) 첫눈, 앞뒤, 돌다리 (3) 낚시질 **11** (1) 1, 단일어 (2) 1, 단일어 (3) 2, 합성어 (4) 1, 파생어 (5) 1, 파생어 (6) 2, 합성어 **12** (1) ㉠ 빛나- ㉡ 빛, 나- (2) ㉠ 덧대- ㉡ 대- (3) ㉠ 힘들- ㉡ 힘, 들- (4) ㉠ 오가- ㉡ 오-, 가- (5) ㉠ 멍들- ㉡ 멍, 들- (6) ㉠ 검붉- ㉡ 검-, 붉- (7) ㉠ 밀치- ㉡ 밀- **13** (1) ㉡, ㉣, ㉤ (2) ㉠, ㉢, ㉥ **14** ㉠ 구경꾼, 심술쟁이, 말썽꾸러기 ㉡ 꿈, 더듬이, 건강하다 **15** (1) ㉠ 형용사 ㉡ 명사 (2) ㉠ 명사 ㉡ 부사 (3) ㉠ 부사 ㉡ 동사 (4) ㉠ 명사 ㉡ 형용사 **16** (1) ○ (2) × (3) × (4) ○ **17** (1) ㉡ (2) ㉠ (3) ㉡ (4) ㉢ (5) ㉠ (6) ㉢ **18** (1) ○ (2) × (3) × (4) ○ **19** Ⓐ: ㉠, ㉣, ㉤, ㉦ Ⓑ: ㉡, ㉢, ㉥, ㉧ **20** (1) ㉠ 코+웃음 ㉡ 합성어 ㉢ 코+웃-+-음 (2) ㉠ 싸움+-꾼 ㉡ 파생어 ㉢ 싸우-+-ㅁ+-꾼 (3) ㉠ 눈물+샘 ㉡ 합성어 ㉢ 눈+물+샘 (4) ㉠ 헛-+손질 ㉡ 파생어 ㉢ 헛-+손+-질

01 (4) 복합어 중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5)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는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할 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덮밥'처럼 일반적인 어순에 맞지 않게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다.

05 (1) 단어 단위로 나누면 '겨울밤/에/함박눈/이/펑펑/내린다'이다.
(2)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겨울/밤/에/함박/눈/이/펑펑/내리-/-ㄴ-/-다'이다.
(3) '겨울밤에'에서 자립 형태소는 '겨울', '밤'이다.

(4) '함박눈이'에서 의존 형태소는 '이'이다.
(5) '펑펑 내리다'에서 '펑펑', '내리-'는 실질 형태소이다.

07 (1) 형태소는 '동생/이/방/에서/책/을/읽-/-는-/-다'로 9개이고, 단어는 '동생/이/방/에서/책/을/읽는다'로 7개이다.
(2) 형태소는 '하늘/이/푸르-/-고/바람/이/부드럽-/-다'로 8개이고, 단어는 '하늘/이/푸르고/바람/이/부드럽다'로 6개이다.
(3) 형태소는 '나/는/어제/맛/있-/-는/빵/을/먹-/-었-/-다'로 11개이고, 단어는 '나/는/어제/맛있는/빵/을/먹었다'로 7개이다.
(4) 형태소는 '물/안개/가/바다/를/덮-/-고/있-/-었-/-다'로 10개이고, 단어는 '물안개/가/바다/를/덮고/있었다'로 6개이다.
(5) 형태소는 '윤아/는/숙제/를/다/하-/-고/친구/와/놀-/-았-/-다'로 12개이고, 단어는 '윤아/는/숙제/를/다/하고/친구/와/놀았다'로 9개이다.

08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서점/에/책/을/읽-/-는/사람/-들/이/많-/-았-/-다'이다.
(2) 조사 '을'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3), (5) 동사 어간 '읽-', 어미 '-았-'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09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나/는/가을/에/소풍/을/가-/-면/좋-/-겠-/-다'이고, 단어 단위로 나누면 '나/는/가을/에/소풍/을/가면/좋겠다'이다.
(2) '가을에'는 '가을', '에'로 단어가 2개이고, '좋겠다'는 '좋겠다'로 단어가 1개이다.
(3) '소풍을 가면'은 형태소가 '소풍/을/가-/-면'으로 4개이고, 단어는 '소풍/을/가면'으로 3개이다.
(4) '좋겠다'의 '좋-'은 실질 형태소이고, '-겠-',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10 (2)~(3) '첫눈(첫+눈)', '앞뒤(앞+뒤)', '돌다리(돌+다리)'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낚시질'은 어근 '낚시'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1 (3), (6) '감나무'는 어근 '감'과 '나무', '낯설다'는 어근 '낯'과 '설-'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4)~(5) '망치질'은 어근 '망치'와 접사 '-질', '잔기침'은 접사 '잔-'과 어근 '기침'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3 (1) '한낮'은 접두사 '한-'에 어근 '낮'이 결합한 단어로, '맞대결(맞-+대결)', '애호박(애-+호박)', '늦여름(늦-+여름)'이 형성 원리가 같다.
(2) '문지기'는 어근 '문'에 접미사 '-지기'가 결합한 단어로, '깔개(깔-+-개)', '일찍이(일찍+-이)', '달리기(달리-+-기)'가 형성 원리가 같다.

14 '꿈'은 동사 어간 '꾸-'에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 말이고, '더듬이'는 동사 어간 '더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말이며, '건강하다'는 명사 '건강'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말이다.

15 '슬픔(슬프-+-ㅁ)', '마음껏(마음+-껏)', '반짝대다(반짝+-대다)', '자유롭다(자유+-롭다)'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품사가 바뀐 말이다.

16 (1) '얼음'은 동사 '얼다'의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며, 관형사 '모든'의 꾸밈을 받는 명사이다.
(2) '믿음'은 동사 '믿다'의 어간 '믿-'에 어미 '-음'이 붙은 활용형이며, 부사 '항상'의 꾸밈을 받는 동사이다.
(3)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간 '웃-'에 어미 '-음'이 붙은 활용형이며, 부사 '활짝'의 꾸밈을 받는 동사이다.
(4) '볶음'은 동사 '볶다'의 어근 '볶-'에 접미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며, 관형사 '다른'의 꾸밈을 받는 명사이다.

18 (2) '척척박사'와 '산들바람'은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 주는 방식으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결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므로 '새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19 '산나물'은 어근 '산'과 '나물'이, '샘솟다'는 어근 '샘'과 '솟-'이, '길바닥'은 어근 '길'과 '바닥'이, '눈사람'은 어근 '눈'과 '사람'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더욱이'는 어근 '더욱'과 접사 '-이'가, '설익다'는 접사 '설-'과 어근 '익-'이, '햇감자'는 접사 '햇-'과 어근 '감자'가, '풋사랑'은 접사 '풋-'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47쪽

01 (1) 8 (2) 11 (3) 9 **02** (1) 이, 자료, 공부, 데 (2) 우리, 지, 얼마 (3) 그, 자전거, 잘, 줄 (4) 노력, 만큼, 결과 (5) 이, 문제, 해결, 수, 방법 **03** (1) 풋-, 가, -다 (2) 참-, 의, 를, -았-, -다 (3) -꾼, 이, 를, -았-, -다 (4) 는, 헛-, 을, -었-, -다 (5) 를, -쟁이, 로, -ㄴ-, -다 **04** (1) 합성어 (2) 구 (3) 합성어 (4) 구

01 (1) 형태소는 '나/는/너/의/선생/-님/이-/-다'로 8개이다.
(2) 형태소는 '나/는/선생/-님/이-/-고/너/는/학생/이-/-다'로 11개이다.
(3) 형태소는 '나/는/학생/이-/-므로/할인/대상/이-/-다'로 9개이다.

02 (1)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이/자료/는/공부/-하-/-는/데/

좋-/-다'이다. 의존 명사 '데'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2)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우리/가/만나-/-ㄴ/지/얼마/되-/-었-/-지'이다. 의존 명사 '지'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3)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그/는/자전거/를/잘/타-/-ㄹ/줄/모르-/-ㄴ-/-다'이다. 의존 명사 '줄'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4)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노력/-하-/-ㄴ/만큼/좋-/-은/결과/가/있-/-었-/-다'이다. 의존 명사 '만큼'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5)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이/문제/를/해결/-하-/-ㄹ/수/있-/-는/방법/이/없-/-다'이다. 의존 명사 '수'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03 (1)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풋-/사과/가/아주/맛/있-/-다'이다. '풋사과'의 '풋-'은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2)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참-/사랑/의/의미/를/알-/-았-/-다'이다. '참사랑'의 '참-'은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3)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나무/-꾼/이/도끼/를/잡-/-았-/-다'이다. '나무꾼'의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4)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나/는/어제/헛-/소문/을/들-/-었-/-다'이다. '헛소문'의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5)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모두/그/를/고집/-쟁이/로/부르-/-ㄴ-/-다'이다. '고집쟁이'의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5~07 본문 48~5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③ **19** ③ **20** ① **21** ② **22** ㉠과 ㉡은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은 실질 형태소, ㉡은 형식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23** '나누기'는 원래 어근의 품사가 동사이지만, 접미사 '-기'가 붙으며 바뀐 품사는 명사이다. '생각하다'는 원래 어근의 품사가 명사이지만, 접미사 '-하다'가 붙으며 바뀐 품사는 동사이다. **24** ㉠은 관형사 '저'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이고, ㉡은 동사 '날아갔다'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01 단어를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형태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인 '가을'을 '가'와 '을'로 나누면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형태소가 될 수 없다.

02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따라서 '사과가 매우 달았다.'는 '사과/가/매우/달-/-았-/-다'로 나눌 수 있다.

03 '얇은'은 '얇-(어근)+-은'으로, '입었다'는 '입-(어근)+-었-+-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얇은'과 '입었다'의 어근은 모두 하나이다.

| 오답 체크 |
① '윤서는 옷장에서 얇은 옷을 꺼내 입었다.'를 단어로 나누면 '윤서/는/옷장/에서/얇은/옷/을/꺼내/입었다'가 되므로, 단어의 개수는 9개이다.
③ '옷장'은 어근 '옷'과 '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입었다'는 '입-+-었-+-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가 3개이다.
⑤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체언과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된다. 따라서 조사인 '는, 에서, 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에 해당한다.

04 '그, 나, 살구, 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는, 에게, 풋-, 를, -었-,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05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홀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이다. '높고'의 어간은 '높-'이고, '푸르구나'의 어간은 '푸르-'이다.

| 오답 체크 |
① 관형사 '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고, 형용사 어간 '깊-'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③ 조사 '이'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고, 동사 어간 '띠-'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④ 동사 어간 '불-'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고, 어미 '-다'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⑤ 명사 '더위'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고, 어미 '-았-'은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06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나/는/왕-/만두/와/김/밥/을/먹-/-었-/-다'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왕만두', '김밥', '먹었다'이다.

07 '맑았다'는 '맑-+-았-+-다'로 이루어지며, 어근은 '맑-'이다.

| 오답 체크 |
①, ③ ㉠은 단일어이므로 어근이 하나이다. 그리고 ㉢의 '가위질'은 명사 '가위'에 접미사 '-질'이, '멋쟁이'는 명사 '멋'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도 어근이 하나이다.
② ㉡은 합성어로 어근이 두 개이다. ㉣의 '돌아가다'는 동사 어근 '돌-'과 '가-'가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이 두 개이다.
⑤ ㉠, ㉢과 ㉣의 '맑았다'는 어근이 하나, ㉡과 ㉣의 '돌아가다'는 어근이 두 개이므로 어근이 하나 이상 있는 단어이다.

08 '밤고구마'는 어근 '밤'과 '고구마'가 결합한 단어로, 접두사

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체크 |

②의 '날고기'에는 접두사 '날-'이, ③의 '치솟았다'에는 접두사 '치-'가, ④의 '헛수고'에는 접두사 '헛-'이, ⑤의 '한겨울'에는 접두사 '한-'이, '맨발'에는 접두사 '맨-'이 사용되었다.

09 <보기>에서 동사 어간과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 명사와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을 알 수 있다.

10 '들판'은 어근 '들'과 '판'이 결합한 말이다.

| 오답 체크 |

① '모내기(모+내-+-기)'에서 '-기'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② '신비롭다(신비+-롭다)'에서 '-롭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④ '싸움(싸우-+-ㅁ)'에서 '-ㅁ'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⑤ '벌이(벌-+-이)'에서 '-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11 접두사 '헛-'은 명사인 '소문'이나 동사인 '디디다'에 붙어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① '지우개'는 동사 어간 '지우-'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로 바뀐 것이다. '손질'은 명사 '손'에 접미사 '-질'이 붙은 단어로, 결합 후에도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②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어근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뜻이 서로 다른 접미사이다.
③ '맨주먹'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달님'의 '-님'은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이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풋나물(풋-+나물)'과 '애호박(애-+호박)'은 모두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12 접두사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한다.

13 ㉡은 합성어로 어근이 두 개이지만, ㉢은 파생어로 어근이 하나이다.

| 오답 체크 |

①, ②, ④ ㉠은 단일어, ㉡은 합성어, ㉢은 파생어로, ㉠~㉢은 모두 하나의 단어들이다.
⑤ ㉢의 '햇병아리, 대장장이, 어른스럽다'에서 접사 '햇-, -장이, -스럽다'를 삭제하면, '병아리, 대장, 어른'만 남아 단일어가 된다.

14 '홀몸'은 '짝이 없이 혼자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홀-'이 어근 '몸'에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이 하나이다. ④의 '빌어먹다'는 어근 '빌-'과 '먹-'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5 ㉠의 '손발'은 '손'과 '발'로 이루어진 대등 합성어이고, ㉡의 '피땀'은 '노력'을 의미하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리고 ㉢의 '걸어가다'는 '걸어서 가다'의 의미로 종속 합성어이다.

16 '덮밥'은 동사 어간 '덮-'에 관형사형 어미 '-은' 없이 바로 명사 '밥'이 결합한 것이고, '뛰놀다'도 동사 어간 '뛰-'에 연결 어미 '-어' 없이 바로 동사 '놀다'가 결합한 것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꽃길'은 명사 '꽃'과 '길'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고, '뾰족구두'는 부사 '뾰족'이 바로 명사 '구두'를 꾸며 주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검은깨'는 형용사 어간 '검-'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연결되어 명사 '깨'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고, '새해'는 관형사 '새'가 명사 '해'를 꾸며 주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굶주리다'는 동사 어간 '굶-'에 연결 어미 없이 바로 동사 '주리다'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젊은이'는 형용사 어간 '젊-'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연결되어 명사 '이'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산들바람'은 부사 '산들'이 바로 명사 '바람'을 꾸며 주는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작은오빠'는 형용사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연결되어 명사 '오빠'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17 ③에는 합성어 '밤낮', '애쓰신다'가 사용되었지만, 파생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체크 |

① '달리기'는 '달리-(어근)+-기(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② '돌배'는 '돌-(접사)+배(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행복한'의 기본형 '행복하다'는 '행복(어근)+-하다(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또한 '삶'은 '살-(어근)+-ㅁ(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새하얗다'는 '새-(접사)+하얗-(어근)+-다'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8 '군소리'는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군-'이 어근 '소리'에 결합한 파생어이지만, '군밤'은 동사 '굽다'의 활용형 '구운'이 변형된 '군'과 어근 '밤'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체크 |

① '맨주먹'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맨-'과 어근 '주먹'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날짐승'은 동사 '날다'의 활용형인 '날'과 어근 '짐승'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돌다리'는 어근 '돌'과 '다리'가, '집안'은 어근 '집'과 '안'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감나무'는 어근 '감'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잠꾸러기'는 어근 '잠'에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9 '화려한'은 어근 '화려'에 접사 '-하다'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꽃잎'은 어근 '꽃'과 '잎'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체크 |

① '울음'은 어근 '울-'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가을비'는 어근 '가을'과 '비'가, '단풍잎'은 어근 '단풍'과 '잎'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군고구마'는 어근 '군(구운)'과 '고구마'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안개꽃'은 어근 '안개'와 '꽃'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0 '검붉다'는 어근 '검-'과 '붉-'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파생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넘치다'는 어근 '넘-'에 접사 '-치-'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치닫다'는 접사 '치-'와 어근 '닫-'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복스럽다'는 어근 '복'에 접사 '-스럽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빗나가다'는 접사 '빗-'과 어근 '나가-'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21 ⓐ '강산'은 어근 '강'과 '산'이, '오가다'는 어근 '오-'와 '가-'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휘젓다'는 접두사 '휘-'가 어근 '젓-'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 '맑음'은 형용사 어간 '맑-'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로 바뀐 것이고, '지우개'는 동사 어간 '지우-'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로 바뀐 것이므로 파생어이다.

서술형 대비

22 ㉠과 같은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그리고 ㉡과 같은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과 ㉡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23 '나누기'는 동사 어간 '나누-'에 접미사 '-기'가 붙어 명사로 바뀐 것이고, '생각하다'는 명사 '생각'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동사로 바뀐 것이다. '나무꾼'은 명사 '나무'에 접미사 '-꾼'이 붙었지만, 품사는 그대로 명사이다. '드높다'는 접두사 '드-'에 형용사 어간 '높-'이 붙었지만,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이다. '물고기'는 어근 '물'과 '고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채점 기준	배점
해당하는 단어 2개를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해당하는 단어를 1개만 찾아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쓰거나, 2개를 모두 찾았으나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24 ㉠과 ㉡은 형용사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태가 같지만, ㉠은 관형사 '저'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이고, ㉡은 동사 '날아갔다'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품사와 그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과 ㉡ 중 하나의 품사와 이유만 적절하게 쓰거나, ㉠과 ㉡의 품사는 맞게 썼으나 이유를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5~07 본문 52~53쪽

01 ⑤ [❶ 형태소 ❷ 아기 ❸ 만 ❹ 맨- ❺ 잔디 ❻ 놀- ❼ -았-]
02 ③ 03 ①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어근 ❷ 접사 ❸ 직접 구성 성분 ❹ 합성어] 04 ④ 05 ①

01 '놀았다'는 어간 '놀-'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 문장을 끝맺는 어말 어미 '-다'로 나눌 수 있으며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므로 (×)

| 오답 체크 |

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우리'는 '우'와 '리'로 나누면 뜻이 없어지므로 (○)
② '아기만'은 뜻을 가진 '아기'와 '만'으로 나눌 수 있고, '아기'는 '아'와 '기'로 나누면 원래의 뜻이 사라지므로 (○)
③ '맨발'은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의 '맨-'과 '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
④ '잔디밭'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까지 나눈다면 '잔디'와 '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

02 '구기다'는 단일어로 어근과 어간이 '구기-'이다. '휘감다'는 접사 '휘-'와 어근 '감-'이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휘감-'이다.

| 오답 체크 |

① '기르다'는 어근과 어간이 '기르-'로 일치하는 단일어이다. '기쁘다'도 어근과 어간이 '기쁘-'로 일치하는 단일어이다.
②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이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치솟-'이다. '견주다'는 어근과 어간이 '견주-'로 일치하는 단일어이다.
④ '알리다'는 어근 '알-'에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알리-'이다. '새롭다'는 어근 '새'에 접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새롭-'이다.
⑤ '맞바꾸다'는 접사 '맞-'이 어근 '바꾸-'와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맞바꾸-'이다. '되살리다'는 접사 '되-'와 어근 '살-'과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되살리-'이다.

03 '새해'는 관형사 어근 '새'와 명사 어근 '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밤낮'은 명사 어근 '밤'과 '낮'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구경꾼'은 명사 어근 '구경'과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이슬비'는 명사 어근 '이슬'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민들레'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04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어가 있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 어근 앞에 위치하는 접사는 접두사, 어근 뒤에 위치하는 접사는 접미사이다.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하면 접두 파생어, 접미사가 결합하면 접미 파생어이다.

| 오답 체크 |

①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은 단일어이다.
②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③ 접사는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홀로 쓰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⑤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05 '볶음밥'의 직접 구성 성분은 '볶음'과 '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볶음'은 동사의 어근 '볶-'과 접미사 '-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고, 명사 '밥'은 어근이다. 따라서 '볶음밥'은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합성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덧버선'은 직접 구성 성분이 접사 '덧-'과 어근 '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사+어근'의 구조인 파생어이다.
③ '문단속'은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 '문'과 어근 '단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근+어근'의 구조인 합성어이다.
④ '들고양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접사 '들-'과 어근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어 '접사+어근'의 구조인 파생어이다.
⑤ '창고지기'는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 '창고'와 접사 '-지기'로 이루어져 있어 '어근+접사'의 구조인 파생어이다.

개념 08 세대, 분야, 매체에 따른 어휘 양상

개념 트레이닝 본문 55쪽

01 ○ 02 × 03 × 04 ○ 05 외래어 06 한자어 07 갈등 08 ㉠ 열공, 생선, 꿀잼 ㉡ 고심, 일품, 제격 09 ㉠ 전문어 ㉡ 효율적 10 ㉡ 11 ㉠ 12 ㉢ 13 ㉠ 인터넷 언어 ㉡ 대상(상대방) 14 ㉢ 15 ㉣ 16 ㉡, ㉤ 17 ㉠, ㉣

02 청소년층 언어와 노년층 언어는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03 전문어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전문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일반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08 청소년층은 '열공(열심히 공부하다)', '생선(생일 선물)', '꿀잼(매우 재미있음을 이르는 '꿀재미'의 준말)' 같은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자주 사용한다. 노년층은 '고심(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씀.)', '일품(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것)', '제격(그 지닌 바의 정도나 신분에 알맞은 격식)'과 같은 한자어를 자주 사용한다.

14 'ㄱㅅ(감사)'는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단어의 초성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말이다.

15 '^^'는 감정이나 표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웃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말이다.

16 '취존(취향 존중)', '갠소(개인 소장)'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을 짧게 줄여 만든 말이다.

17 '마자(맞아)', '조아(좋아)'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말이다.

개념 09 유의 관계, 반의 관계

개념 트레이닝 본문 57쪽

01 X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견뎠다, 참았다, ㉠ 11 속, ㉡ 12 감추었다, ㉡ 13 다시, 또, ㉠ 14 간격 15 틈 16 사이 17 입다 18 끼다 19 메다 20 반의 21 공통적 22 상보 23 방향 24 등급 25 등급 26 상보 27 방향

01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말한다.

05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하며, 이를 제외한 공통적인 의미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06 '건물의 기초'의 '기초'는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을 의미하므로 '모든 건조물 따위의 가장 아랫도리가 되는 밑바탕'을 의미하는 '토대'와 유의 관계이다.

07 '의견 대립'의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을 의미하므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을 의미하는 '갈등'과 유의 관계이다.

08 '걱정이 많다'의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을 의미하므로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을 의미하는 '고민'과 유의 관계이다.

09 '자동차 제조 공장'의 '제조'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듦.'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는 '생산'과 유의 관계이다.

11 '안'은 '집 안'처럼 경계가 명확한 공간에 주로 쓰이는 반면, '속'은 '상황 속'처럼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주로 쓰인다.

12 대상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표현할 때는 '자취를 감추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개념 10 상하 관계, 다의 관계, 동음이의 관계

개념 트레이닝 본문 59쪽

01 ○ 02 × 03 ○ 04 × 05 하의어 06 하의어, 상의어 07 상의어, 하의어 08 ⊃ 09 ⊃ 10 ⊂ 11 ⊂ 12 ⊃ 13 ⊂ 14 꽃 15 현악기 16 도형 17 계절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02 상의어는 하의어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는 상의어에 비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04 동음이의어는 말소리만 같을 뿐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이므로, 사전에 별개의 단어로 수록된다.

18 ㉠의 '손'은 '신체의 일부'의 의미로 중심적 의미이며, ㉡의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로 주변적 의미이다.

19 ㉠의 '올랐다'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의미로 중심적 의미이며, ㉡의 '올랐다'는 '값이나 수치, 온도 등이 많아지거나 높아지다.'의 의미로 주변적 의미이다.

20 ㉠의 '아침'은 '끼니'의 의미로 주변적 의미이며, ㉡의 '아침'은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의 의미로 중심적 의미이다.

21 ㉠의 '간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로 중심적 의미이며, ㉡의 '간다'는 '지나거나 흐르다.'의 의미로 주변적 의미이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8~10 본문 60~61쪽

01 (1) ○ (2) × (3) × (4) ○ 02 (1) ㉡ (2) ㉠ (3) ㉠ (4) ㉡ 03 (1) 맹장염 (2) 분야 (3) 외국어 04 (1) ㉤, ㉥ (2) ㉠, ㉣ (3) ㉡, ㉢ 05 (1) 상의어 (2) 동음이의 관계 (3) 주변적 (4) 유의 06 (1) 이따금 (2) 기입해야 (3) 치료하기 (4) 벌써 07 (1) ㉠ (2) ㉣ (3) ㉡ (4) ㉢ 08 (1) 까치 (2) 동물 (3) 들짐승 (4) 날짐승 09 (1) 동음 (2) 다의 (3) 다의 (4) 동음 10 (1) ㉡ (2) ㉠ (3) ㉠ (4) ㉡ (5) ㉡ (6) ㉠ 11 (1) ○ (2) ○ (3) × (4) ○

01 (2) 청소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유행어를 자주 사용하여 소통한다.
(3)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02 (1) '순삭(순식간에 삭제)'은 주로 청소년층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2) '춘추'는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주로 노년층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3) '괘념'은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노년층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4)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06 (1) '이따금'은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의 의미로 문맥상 '가끔'과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의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2) '기입하다'는 '수첩이나 문서 따위에 적어 넣다.'의 의미로 문맥상 '적다'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긋다'는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나타내기 위하여 금이나 줄을 그리다.'의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3) '치료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의 의미로 문맥상 '고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수리하다'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다.'의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4)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의 의미로 문맥상 '이미'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07 (1) '요리가 좋다'의 '좋다'가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 만큼 흡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반의어는 '싫다'가 적절하다.
(2) '체력이 좋다'의 '좋다'가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반의어는 '약하다'가 적절하다.
(3) '마음이 좋다'의 '좋다'가 '감정 따위가 기쁘고 만족스럽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반의어는 '슬프다'가 적절하다.
(4) '날씨가 좋다'의 '좋다'가 '날씨가 맑거나 고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반의어는 '흐리다'가 적절하다.

09 (1) 나무에서 벋어 나온 줄기인 앞의 '가지'와 채소의 한 종류인 뒤의 '가지'는 서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2) 의자의 한 부분인 앞의 '다리'는 사람의 신체 부위인 뒤의 '다리'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므로 다의 관계이다.
(3) 뒤의 '밝히다'는 대상의 정체나 진실을 드러내어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로,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켠다는 의미인 앞의 '밝히다'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므로 다의 관계이다.
(4) 바느질에서 바늘로 한 번 뜬 것을 세는 단위인 앞의 '땀'과 몸에서 분비되는 액체인 뒤의 '땀'은 서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10 (1), (4)~(5) (1)의 '빠지다'는 '무엇에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나지 못하다.'의 의미이고, (4)의 '빠지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의 의미이고, (5)의 '빠지다'는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의 의미로 모두 '빠지다[2]'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2)~(3), (6) (2)의 '빠지다'는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흘러 나가다.'의 의미이고, (3)의 '빠지다'는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의 의미이고, (6)의 '빠지다'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모두 '빠지다[1]'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11 (3) '할머니 댁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의 '가깝다'는 ㉠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8~10 본문 62~63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 세대 ㉡ 수아가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줄임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09** 다의어는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10** (1) ③, ㉠ (2) ②, ㉡

01 다른 집단의 사람과 대화할 때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어휘를 사용하면 뜻이 통하지 않아 오히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02 외래어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손녀'가 속한 청소년층의 특징이다. '할아버지'가 속한 노년층은 한자어, 옛말 등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03 <보기>의 밑줄 친 말은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뜻이 자세하고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주지만, 대부분 특정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한걸음 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 어휘에 포함되어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말로, '버스', '컴퓨터', '피아노' 등이 있다. 반면에 외국어는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무비', '밀크', '땡큐' 등이 있다.

04 ③에서 '이미 : 아직'은 반의 관계이고, '참다 : 견디다'는 유의 관계이고, '나무 : 뿌리'는 '부분-전체' 관계이다.

05 '크다'는 길이, 넓이, 부피 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반의어는 '작다'이다. '적다'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반의어는 '많다'이다.

06 ㉠과 ㉢은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사전에 별개로 제시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하고, ㉡과 ㉣은 의미상 연관성이 있어 사전에 한 표제어로 제시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07 ㉠, ㉢, ㉣과 ㉡과 ㉤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수록된다.

| 오답 체크 |

① ㉠, ㉢, ㉣은 다의 관계에 있는데, ㉠이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② ㉠, ㉢, ㉣은 다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과 ㉤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각 단어가 쓰인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서술형 대비

08 수아가 속한 청소년층은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과 같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줄임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소통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점
㉠, ㉡ 중 1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09 ㉠~㉢의 밑줄 친 말은 모두 '서다'이지만, 쓰임에 따라 반의어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의어는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여럿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반의어의 특징을 '문맥'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반의어의 특징은 파악하였으나, '문맥'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1점

10 '보다'의 중심적 의미는 ③이고, ①, ②는 주변적 의미이다. (1)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의미이다. (2)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의 의미이다.

채점 기준	배점
(1), (2)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1), (2) 중 1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8~10 | 본문 64~65쪽

01 ③ 02 ① 03 ④ [❶ 주변적 ❷ 소리 ❸ 목적어] 04 ③
05 ⑤ [❶ 인간 ❷ 여성 ❸ 하의어 ❹ 대립 ❺ 상하]

01 ③의 '아래'는 '열등함'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의 의미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체크 |

① '위'는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나은 쪽'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의 '우월함'의 의미를 가진다.

② '앞서다'는 '발전이나 진급, 중요성 따위의 정도가 남보다 높은 수준에 있거나 빠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의 '우월함'의 의미를 가진다.

④ '뒤떨어지다'는 '발전 속도가 느려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의 '열등함'의 의미를 가진다.

⑤ '뒷걸음질'은 '본디보다 뒤지거나 뒤떨어짐.'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의 '열등함'의 의미를 가진다.

02 ㉠의 '열어'는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로 단어가 원래 뜻하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열어'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로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체크 |

② ㉠의 '먹고'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먹지'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뱃속에 들여보내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잡고'는 '자리, 방향, 날짜 따위를 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잡았다'는 '일, 기회 따위를 얻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갔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갔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의 '멀었다'는 '시간적으로 사이가 길거나 오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멀었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03 제시한 용례의 '재어'는 '길이 따위의 정도를 알아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재다[1]-「1」의 용례에 해당하므로 (×)

| 오답 체크 |

① 재다[1]과 재다[2]는 각각 두 가지 이상의 관련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므로 (○)

② 재다[1]과 재다[2]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 사이에는 서로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국어사전에도 각각 다른 항목으로 수록된 동음이의 관계이므로 (○)

③ 재다[1]은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에 【…을】, 【 -ㄴ지를】이 제시되어 있어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지만, 재다[2]는 이러한 문형 정보가 없어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

⑤ 제시한 용례의 '재다'는 '동작이 재빠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재다[2]-「1」의 용례에 해당하므로 (○)

한걸음 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사전 제시 방식

중심적 의미는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이므로, 사전에 제시된 의미 중에서 주로 첫 번째에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다. 반면에 주변적 의미는 단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이므로, 사전에 제시된 의미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풀이되어 있다.

04 ㉡은 '주다'의 높임말이라는 '드리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라는 '드리다'「2」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체크 |

① ㉠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라는 '들이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은 '들이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들이다'「1」의 문형 정보에 【…을 …에】가 제시되어 있어 필요한 문장 성분인 '우리를'을 넣어야 한다.

④ ㉢은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라는 '들이다'「2」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들여'로 고쳐 써야 한다.

⑤ ㉠과 ㉡은 각각의 표제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다. ㉠은 표제어 '들이다'의 여러 의미 중 「1」로 풀이되고, ㉡은 표제어 '드리다'의 여러 의미 중 「1」로 풀이된다.

05 '소녀'는 '사람'의 의미 자질인 [+인간]을 모두 가지며 [+여성], [-성인]의 의미 자질을 하나 이상 더 가져 '사람'과 상하 관계에 있고, '사람'과 의미 자질이 대립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

| 오답 체크 |

① 하의어는 상의어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진다고 하였는데, '사람'의 의미 자질인 [+인간]을 '숙녀'도 가지고 있으므로 (○)

②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다고 하였는데, '여자'의 의미 자질은 '사람'의 의미 자질인 [+인간]에 [+여성]이라는 의미 자질까지 더 가지고 있으므로 (○)

③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다고 하였는데, '소녀'는 '여자'의 하의어이므로 (○)

④ 반의 관계의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여성]을 가지고 있는 '신사'는 [+여성]을 가지고 있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같으므로 (○)

Ⅱ. 음운

개념 01 모음 체계

개념 트레이닝 본문 69쪽

01 뜻 02 받지 않는다 03 단모음 04 길이 05 높이 06 입술 07 단 08 이중 09 이중 10 단 11 단 12 단 13 ㉠ ㅏ, ㅟ ㉡ 없음 14 ㉠ 없음 ㉡ ㅝ, ㅕ 15 ㉠ ㅐ, ㅏ ㉡ 없음 16 ㉠ ㅡ, ㅏ ㉡ ㅖ 17 고 18 저 19 중 20 고 21 저 22 고 23 ㅟ, ㅚ, ㅜ, ㅗ 24 ㅣ, ㅟ, ㅡ, ㅜ 25 ㅡ, ㅓ, ㅏ, ㅜ, ㅗ 26 ㅝ, ㅕ 27 ㅗ 28 ㅏ 29 ㅣ

02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04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음운이며,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없으므로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07~12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에는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가 있고,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에는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가 있다.

13 '가위'에서 'ㅏ, ㅟ'는 단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없다.

14 '권력'에서 단모음은 없고, 'ㅝ, ㅕ'는 이중 모음이다.

15 '햇살'에서 'ㅐ, ㅏ'는 단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없다.

16 '예쁘다'에서 'ㅖ'는 이중 모음, 'ㅡ, ㅏ'는 단모음이다.

17~22 혀의 높낮이와 입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 'ㅜ, ㅡ, ㅟ'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ㅐ, ㅏ'는 저모음이다.

23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다.

24 입을 조금 열고 혀의 높이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은 고모음이다.

25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뒤쪽에 있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다.

26 <보기> 문장에 쓰인 모음은 'ㅓ, ㅣ, ㅏ, ㅗ, ㅡ, ㅜ, ㅟ, ㅕ'이고, 이 중에서 이중 모음은 '구워'의 'ㅝ'와 '셨'의 'ㅕ'이다.

27 원순 모음은 'ㅗ, ㅜ', 중모음은 'ㅓ, ㅗ'이므로 공통된 모음은 'ㅗ'이다.

28 평순 모음은 'ㅓ, ㅣ, ㅏ, ㅡ', 후설 모음은 'ㅓ, ㅏ, ㅗ, ㅡ, ㅜ', 저모음은 'ㅏ'이므로 공통된 모음은 'ㅏ'이다.

29 평순 모음은 'ㅓ, ㅣ, ㅏ, ㅡ', 전설 모음은 'ㅣ', 고모음은 'ㅣ, ㅡ, ㅜ'이므로 공통된 모음은 'ㅣ'이다.

개념 02 자음 체계

개념 트레이닝 본문 7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ㅂ, ㅁ 13 ㄷ, ㄴ 14 ㄱ 15 ㉤ 16 ㉣ 17 ㉢ 18 ㉡ 19 ㉠ 20 된 21 거센 22 예사 23 된 24 거센 25 예사 26 ㅆ 27 ㅉ 28 ㄲ 29 ㄸ, ㅃ 30 잇몸소리, 파열음, 된소리 31 센입천장소리, 파찰음, 거센소리 32 잇몸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33 입술소리, 파열음, 거센소리

01 국어의 자음은 대부분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고, 비음과 유음 'ㅁ, ㄴ, ㅇ, ㄹ' 4개는 울림소리이다. 국어의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이다.

02 'ㄷ, ㄸ, ㅌ'은 입술소리가 아니라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잇몸소리이다.

03 파찰음은 'ㅈ-ㅉ-ㅊ'로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갖추고 있다.

05~11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ㄱ, ㄲ, ㅋ'은 여린입천장소리, 'ㄴ, ㄹ'과 'ㅅ, ㅆ'은 잇몸소리, 'ㅁ'과 'ㅂ, ㅃ, ㅍ'은 입술소리, 'ㅈ, ㅉ, ㅊ'은 센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12 입술 소리는 '바다'의 'ㅂ', '나무'의 'ㅁ'이 해당한다.

13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이며, '바다'의 'ㄷ', '나무'와 '하늘'의 'ㄴ'이 해당한다.

14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이며, '기차'의 'ㄱ'이 해당한다.

20~25 성대의 긴장도와 소리의 세기에 따라 'ㅂ, ㅈ'은 예사소리, 'ㄸ, ㅉ'은 된소리, 'ㅋ, ㅌ'은 거센소리이다.

26~29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자음은 된소리이므로 '싸움'의 'ㅆ', '짜장면'의 'ㅉ', '코끼리'의 'ㄲ', '땅콩빵'의 'ㄸ, ㅃ'이 해당한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1~02 본문 72~73쪽

01 (1) 자음 (2) 전설, 후설 (3) 방법 (4) 울림, 안울림 (5) 예사, 거센 02 (1) ㅁ : ㅂ (2) ㄱ : ㅇ (3) ㅗ : ㅓ 03 (1) 1 (2) 2 (3) 3 (4) 3 04 (1) ㉠ ㅣ, ㅔ, ㅐ, ㅟ, ㅚ ㉡ ㅡ, ㅓ, ㅏ, ㅜ, ㅗ (2) ㉠ ㅣ, ㅔ, ㅐ, ㅡ, ㅓ, ㅏ ㉡ ㅟ, ㅚ, ㅜ, ㅗ (3) ㉠ ㅣ, ㅟ, ㅡ, ㅜ ㉡ ㅔ, ㅚ, ㅓ, ㅗ ㉢ ㅐ, ㅏ 05 (1) ㉢ (2) ㉠ (3) ㉡ 06 (1) ㅟ (2) ㅏ (3) ㅓ 07 (1) 구조 (2) 구름 (3) 병원 (4) 해외 08 (1) 기개 (2) 공사 (3) 우리 (4) 기개

(5) 우리 (6) 어종 (7) 공사, 우리 **09** (1) 다르다 (2) 같다 (3) 다르다 (4) 같다 (5) 다르다 (6) 같다 **10** ㉠ ㅂ, ㅃ, ㅍ ㉡ ㄱ, ㄲ, ㅋ ㉢ ㅈ, ㅉ, ㅊ ㉣ ㅅ, ㅆ ㉤ ㅎ ㉥ ㄴ **11** (1) 빨래 (2) 효자 (3) 나무 (4) 과자 **12** (1) 파찰음, 비음, 비음, 파열음 (2) 비음, 마찰음, 비음, 유음 (3) 파열음, 유음, 비음 (4) 파찰음, 비음, 마찰음 (5) 파찰음, 비음, 파열음, 비음 **13** (1) 바다 (2) 지구 (3) 타조

01 (1) 자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이고,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2)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다.

02 '말'과 '발'은 초성의 자음 'ㅁ'과 'ㅂ'에 의해, '복'과 '봉'은 종성의 자음 'ㄱ'과 'ㅇ'에 의해, '소리'와 '서리'는 중성의 모음 'ㅗ'와 'ㅓ'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03 초성의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자음으로 보지 않고, 자음의 개수를 셀 때 제외된다.
(1) '우리(ㄹ → 1개)', (2) '학교(ㅎ, ㄱ → 2개)', (3) '공사(ㄱ, ㅇ, ㅅ → 3개)', (4) '항아리(ㅎ, ㅇ, ㄹ → 3개)'

04 <보기>의 단모음 10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ㅣ, ㅔ, ㅐ, ㅟ, ㅚ)과 후설 모음(ㅡ, ㅓ, ㅏ, ㅜ, ㅗ)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ㅣ, ㅔ, ㅐ, ㅡ, ㅓ, ㅏ)과 원순 모음(ㅟ, ㅚ, ㅜ, ㅗ)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ㅣ, ㅟ, ㅡ, ㅜ), 중모음(ㅔ, ㅚ, ㅓ, ㅗ), 저모음(ㅐ, ㅏ)으로 각각 분류된다.

06 (1) 전설 모음 'ㅣ, ㅔ, ㅐ, ㅟ, ㅚ', 고모음 'ㅣ, ㅟ, ㅡ, ㅜ', 원순 모음 'ㅟ, ㅚ, ㅜ, ㅗ'에서 공통된 모음은 'ㅟ'이다.
(2) 후설 모음 'ㅡ, ㅓ, ㅏ, ㅜ, ㅗ', 저모음 'ㅐ, ㅏ', 평순 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에서 공통된 모음은 'ㅏ'이다.
(3) 후설 모음 'ㅡ, ㅓ, ㅏ, ㅜ, ㅗ', 평순 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중모음 'ㅔ, ㅚ, ㅓ, ㅗ'에서 공통된 모음은 'ㅓ'이다.

07 (1) 원순 모음(ㅟ, ㅚ, ㅜ, ㅗ)이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모두 쓰인 단어는 'ㅜ, ㅗ'가 쓰인 '구조'이다.
(2) 고모음(ㅣ, ㅟ, ㅡ, ㅜ)이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모두 쓰인 단어는 'ㅜ, ㅡ'가 쓰인 '구름'이다.
(3) 이중 모음(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이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모두 쓰인 단어는 'ㅕ, ㅝ'가 쓰인 '병원'이다.
(4) 전설 모음(ㅣ, ㅔ, ㅐ, ㅟ, ㅚ)이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모두 쓰인 단어는 'ㅐ, ㅚ'가 쓰인 '해외'이다.

08 <보기>의 단어들에 사용된 모음들을 분류해 보면, 고모음 'ㅣ, ㅜ', 중모음 'ㅗ, ㅓ', 저모음 'ㅏ, ㅐ', 전설 모음 'ㅣ, ㅐ', 후설 모음 'ㅗ, ㅏ, ㅜ, ㅓ', 원순 모음 'ㅗ, ㅜ', 평순 모음 'ㅏ, ㅣ, ㅐ, ㅓ'이다.

09 (1)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ㄷ'은 잇몸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2) 'ㄴ'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3) 'ㄷ'은 파열음이고 'ㅅ'은 마찰음이므로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다.
(4) 'ㅂ'과 'ㅍ'은 모두 파열음이므로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
(5) 'ㄲ'은 된소리이고, 'ㅋ'은 거센소리이므로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6) 'ㅍ'과 'ㅌ'은 모두 거센소리이므로 소리의 세기가 같다.

11 (1) 유음 'ㄹ'이 사용된 단어는 '빨래'이다.
(2) 목청소리 'ㅎ'이 사용된 단어는 '효자'이다.
(3) 두 음절에 모두 비음 'ㅁ, ㄴ, ㅇ'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나무'이다.
(4) 여린입천장소리 'ㄱ, ㄲ, ㅋ, ㅇ'과 센입천장소리 'ㅈ, ㅉ, ㅊ'이 사용된 단어는 '과자'이다.

12 (1) '장막'에 사용된 자음은 'ㅈ(파찰음), ㅇ(비음), ㅁ(비음), ㄱ(파열음)'이다.
(2) '냇물'에 사용된 자음은 'ㄴ(비음), ㅅ(마찰음), ㅁ(비음), ㄹ(유음)'이다.
(3) '파랑'에 사용된 자음은 'ㅍ(파열음), ㄹ(유음), ㅇ(비음)'이다.
(4) '천사'에 사용된 자음은 'ㅊ(파찰음), ㄴ(비음), ㅅ(마찰음)'이다.
(5) '찐빵'에 사용된 자음은 'ㅉ(파찰음), ㄴ(비음), ㅃ(파열음), ㅇ(비음)'이다.

13 (1) 입술소리(ㅂ, ㅃ, ㅍ, ㅁ), 파열음(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음은 'ㅂ'이고, 후설 모음(ㅡ, ㅓ, ㅏ, ㅗ, ㅜ), 저모음(ㅐ, ㅏ), 평순모음(ㅣ, ㅔ, ㅐ, ㅡ, ㅓ, ㅏ)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모음은 'ㅏ'이므로 빈칸에 넣으면 '바다'가 된다.
(2) 센입천장소리(ㅈ, ㅉ, ㅊ), 파찰음(ㅈ, ㅉ, ㅊ),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음은 'ㅈ'이고, 후설모음(ㅡ, ㅓ, ㅏ, ㅗ, ㅜ), 고모음(ㅣ, ㅟ, ㅡ, ㅜ), 원순 모음(ㅟ, ㅚ, ㅜ, ㅗ)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모음은 'ㅜ'이므로 빈칸에 넣으면 '지구'가 된다.
(3) 잇몸소리(ㄷ, ㄸ, ㅌ, ㅅ, ㅆ, ㄴ, ㄹ), 파열음(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거센소리(ㅋ, ㅌ, ㅍ, ㅊ)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음은 'ㅌ'이고, 후설 모음(ㅡ, ㅓ, ㅏ, ㅗ, ㅜ), 중모음(ㅔ, ㅚ, ㅓ, ㅗ), 원순 모음(ㅟ, ㅚ, ㅜ, ㅗ)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모음은 'ㅗ'이므로 빈칸에 넣으면 '타조'가 된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1~02 본문 74~77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④ **20** ② **21** ① **22** ⑤ **23** ② **24** (가)는 (나)와 달리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는 특징이 있고, 명칭은 원순 모음이다. **25** ㅣ, ㅖ, ㅐ를 차례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높고 입을 조금만 벌리다가, 점차 혀의 높이가 낮아지고 입을 많이 벌리게 된다. **26** (1) 코끼리, 산토끼 (2) 다람쥐, 산토끼

01 ㄱ.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자음과 모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ㄴ. 소리의 길이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줄 수 있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알배기'는 'ㅏ, ㅐ, ㅣ'의 3개의 모음과 'ㄹ, ㅂ, ㄱ'의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자음으로 보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ㄷ. 국어의 자음은 19개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ㅁ.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은 자음이다.

02 ⑤ '고기'에 사용된 'ㅗ'는 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하고, 'ㅣ'는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기'에 사용된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① 'ㅣ, ㅖ, ㅐ'가 평순 모음이면서 전설 모음이다.
② 'ㅖ'와 'ㅗ'는 둘 다 중모음이지만, 입술 모양에 따라 'ㅖ'는 평순 모음, 'ㅗ'는 원순 모음이다.

03 단모음에는 'ㅏ, ㅐ, ㅓ, ㅖ, ㅗ, ㅚ, ㅜ, ㅟ, ㅡ, ㅣ'가 있다.

04 '원숭이'에는 단모음 'ㅜ, ㅣ'와 이중 모음 'ㅟ'가 사용되었다.

| 오답 체크 |
① '외기러기'는 단모음 'ㅚ, ㅣ, ㅓ'만 사용되었다.
③ '예의'는 이중 모음 'ㅖ, ㅢ'만 사용되었다.
④ '여유'는 이중 모음 'ㅕ, ㅠ'만 사용되었다.
⑤ '민중'은 단모음 'ㅣ, ㅜ'만 사용되었다.

05 전설 모음은 'ㅣ, ㅖ, ㅐ, ㅟ, ㅚ', 평순 모음은 'ㅣ, ㅖ, ㅐ, ㅡ, ㅓ, ㅏ', 저모음은 'ㅏ, ㅐ'이므로, 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이고,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ㅐ'이다.

06 고모음에는 'ㅜ, ㅟ, ㅡ, ㅣ'가 있고, 중모음에는 'ㅓ, ㅖ, ㅗ, ㅚ'가 있다. '공기'에서 'ㅗ'는 중모음이며, 'ㅣ'는 고모음이다.

| 오답 체크 |
① '음식'은 고모음(ㅡ)과 고모음(ㅣ)이 사용되었다.
② '가게'는 저모음(ㅏ)과 중모음(ㅖ)이 사용되었다.
③ '마을'은 저모음(ㅏ)과 고모음(ㅡ)이 사용되었다.
⑤ '안정'은 저모음(ㅏ)과 중모음(ㅓ)이 사용되었다.

07 단모음을 'ㅐ, ㅖ, ㅚ, ㅟ, ㅣ'와 'ㅏ, ㅓ, ㅗ, ㅜ, ㅡ'로 구분한 것은 혀의 최고점 위치(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08 '냇물'에 쓰인 모음 '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지만, '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냇물'을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이동한다.

| 오답 체크 |
① '강산'에 쓰인 모음 'ㅏ'는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 모음이다.
② '위치'에 쓰인 모음 'ㅟ'와 'ㅣ'는 혀의 높낮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므로, 혀의 높이에 변화가 없다.
④ '소망'에 쓰인 모음 'ㅗ'는 중모음이며 'ㅏ'는 저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였다가 낮아진다.
⑤ '외가'에 쓰인 모음 'ㅚ'는 원순 모음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렸다가 평평하게 해야 한다.

09 ⓐ는 평순 모음(ㅓ, ㅣ)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는 원순 모음(ㅜ)과 평순 모음(ㅣ)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10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것은 'ㅣ, ㅡ'이다. '치즈'의 'ㅣ'와 'ㅡ'는 모두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므로, <보기>를 만족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② '나라'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사용되었다.
③ '강물'의 '강'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물'은 원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 사용되었다.
④ '악어'의 '악'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어'는 평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 사용되었다.
⑤ '우산'의 '우'는 원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 '산'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사용되었다.

11 원순 모음에는 'ㅗ, ㅚ, ㅜ, ㅟ'가 있으므로, 원순 모음만 사용된 단어는 ⑤ '공주'이다.

| 오답 체크 |
① '성공'의 'ㅓ'는 평순 모음, 'ㅗ'는 원순 모음이다.
② '기차'의 'ㅣ'와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③ '위인'의 'ㅟ'는 원순 모음, 'ㅣ'는 평순 모음이다.
④ '세상'의 'ㅖ'와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12 ㉠은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의 뜻으로 [밤], ㉡은 '밤나무의 열매'의 뜻으로 [밤:]으로, ㉢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의 뜻으로 [발], ㉣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로 [말:], ㉤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의 뜻으로 [눈:]으로, ㉥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

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의 뜻으로 [눈]으로 발음하므로,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은 ㉡, ㉣, ㉤이다.

13 단모음으로 'ㅣ, ㅟ, ㅡ, ㅜ, ㅖ, ㅚ, ㅓ, ㅗ, ㅐ, ㅏ'가 있다. 또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으로 'ㅈ, ㅉ, ㅊ'이 있으며,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후설 모음이자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은 'ㅡ, ㅜ'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는 '추측'이다.

14 <보기>에 제시된 자음들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③ 소리 나는 위치가 동일한 자음에 해당한다.
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인데, 'ㅁ'은 비음에 해당한다.

15 '터미널'에서 파열음은 'ㅌ' 1개이다. '사랑'에서 마찰음은 'ㅅ' 1개이다. '기술'에서 파찰음은 사용되지 않았다. '라면'에서 비음은 'ㅁ, ㄴ' 2개이다. 따라서 ㉠, ㉡은 1, ㉢은 0, ㉣은 2이다.

16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는 'ㅎ'이고,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ㄲ, ㅋ, ㅇ'이다. 따라서 <보기>를 만족하는 자음이 포함된 단어는 '학교'이다.

| 오답 체크 |

① '모자'의 자음 'ㅁ'은 입술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② '사자'의 자음 'ㅅ'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③ '아버지'의 자음 'ㅂ'은 입술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⑤ '주말'의 자음 'ㅈ'은 센입천장소리, 'ㅁ'은 입술소리, 'ㄹ'은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17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ㄴ, ㅁ, ㅇ'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모양'이다.

| 오답 체크 |

① '마늘'에 사용된 자음 'ㅁ'과 'ㄴ'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③ '놀이'에 사용된 자음 'ㄴ'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④ '양반'에 사용된 자음 'ㅇ'과 'ㄴ'은 비음, 'ㅂ'은 파열음이다.
⑤ '감귤'에 사용된 자음 'ㄱ'은 파열음, 'ㅁ'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18 소리의 세기에 따른 삼중 체계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를 말하는데, 파열음과 파찰음에서만 나타난다. 'ㄱ-ㄲ-ㅋ'은 여린입천장소리(㉣), 'ㅂ-ㅃ-ㅍ'은 입술소리(㉠), 'ㄷ-ㄸ-ㅌ'은 잇몸소리(㉡), 'ㅈ-ㅉ-ㅊ'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하므로 ㉤인 목청 소리(ㅎ)에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음운의 삼중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9 ㉣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ㄲ, ㅋ, ㅇ'이 해당한다.

20 ㉡ '조건 1'에서 성대가 울리는 소리는 울림소리인데, 'ㄴ, ㅁ, ㅇ, ㄹ'이 해당한다. '조건 2'에서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 보내며 내는 소리는 유음이므로 'ㄹ'이 해당한다. 'ㄹ'은 소리 나는 위치로 분류할 때 잇몸소리(㉡)이다.

21 ㉠에 쓰인 자음은 'ㄱ, ㄲ, ㅋ, ㅁ'인데, 'ㄱ, ㄲ, ㅋ'만 파열음이고 'ㅁ'은 비음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체크 |

② '깜깜'을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로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리가 나므로, '감감'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다.
③ ㉠은 자음들이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별되는데, 이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예이다.
④ ㉠은 자음에 따라, ㉡은 모음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반짝반짝'의 모음은 '번쩍번쩍'의 모음보다 작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22 초성에 쓰인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해당한다. 중성에 쓰인 중모음에는 'ㅓ, ㅖ, ㅗ, ㅚ'가 해당한다. 종성에 쓰인 여린입천장소리에는 'ㄱ, ㄲ, ㅋ, ㅇ'가 해당한다.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에 모두 해당 음운이 사용된 단어는 ⑤ '헉'이다.

23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비음에는 'ㄴ, ㅁ, ㅇ'이 있다. 그런데 ㉢ '이리'에서의 '이'는 자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음 단독으로 쓰인 것이므로, 'ㅇ'은 비음이 아니다. 또한 '리'의 'ㄹ'은 유음이므로, ㉢에는 비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체크 |

① 파찰음에는 'ㅈ, ㅉ, ㅊ'가 있는데, ㉠의 'ㅊ', ㉡의 'ㅈ', ㉣의 'ㅊ'이 파찰음에 해당한다.
③ 파열음에는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이 있는데, ㉠, ㉢, ㉣에는 파열음이 쓰이지 않았다.
④ ㉢에는 유음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⑤ 마찰음에는 'ㅅ, ㅆ, ㅎ'가 있는데, ㉣에 'ㅅ'이 사용되었고, ㉠~㉢에는 마찰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형 대비

24 (가)는 원순 모음이고, (나)는 평순 모음이다.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는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의 형식에 맞게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2점

25 <보기>에서 'ㅣ'는 고모음, 'ㅖ'는 중모음, 'ㅐ'는 저모음이

다. 고모음은 혀의 높이를 높이고 입을 조금만 열고 발음하고, 중모음은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고 입을 반만 열고 발음하고, 저모음은 혀의 높이를 낮추고 입을 많이 열고 발음한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혀의 높이와 입을 벌리는 정도와 연관지어 모두 맞게 설명한 경우	5점
혀의 높이와 입을 벌리는 정도 중 한 가지만 맞게 설명한 경우	3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2점

26 (1) 파열음이면서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ㄲ, ㅋ'이므로 'ㅋ, ㄲ'이 사용된 '코끼리', 'ㄲ'가 사용된 '산토끼'가 이에 해당한다.

(2)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로, 'ㄷ, ㄸ, ㅌ, ㅅ, ㅆ, ㄴ, ㄹ'이다. 따라서 'ㄷ, ㄹ'이 사용된 '다람쥐'와 'ㅅ, ㅌ'이 사용된 '산토끼'가 이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맞게 찾아 쓴 경우	4점
(1)과 (2) 중 해당하는 단어들을 하나만 맞게 찾아 쓴 경우	2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1~02 본문 78~79쪽

01 ③ **02** ④ **03** ③ [❶ 전설 ❷ 평순 ❸ 고모음 ❹ ㅣ] **04** ① [❶ ㅐ ❷ ㅔ ❸ 평순 ❹ 평순 ❺ 저 ❻ 중 ❼ 전설 ❽ 전설 ❾ 혀]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입술 ❷ 반모음 ❸ 단모음 ❹ 이중 모음] **05** ④

01 ㉠에는 앞사람이 말한 '달', 뒷사람이 말한 '굴' 모두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달'과 '둘'은 중성 모음 'ㅏ'와 'ㅜ'의 차이만 있고, '둘'과 '굴'은 초성 자음 'ㄷ'과 'ㄱ'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달'과 '둘', '둘'과 '굴'은 최소 대립쌍이다.

| 오답 체크 |

①, ⑤ '꿀'과 '풀'은 뒤의 '굴'과 최소 대립쌍이지만, 앞의 '달'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②, ④ '답'과 '말'은 앞의 '달'과 최소 대립쌍이지만, 뒤의 '굴'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02 '먹'의 가운뎃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쓰지만, '목'의 가운뎃소리는 첫소리의 아래쪽에 쓴다.

| 오답 체크 |

① 'ㅁ'은 첫소리, 'ㅓ'는 가운뎃소리, 'ㄱ'은 끝소리로, 이들을 차례로 사용하게 되면 '먹'이 된다.

② '먹'의 가운뎃소리인 'ㅓ' 대신 'ㅗ'를 사용하면 '목'이 되므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③ '목'의 첫소리 'ㅁ'이 '곰'에서는 끝소리로 사용되고, '목'의 끝소리 'ㄱ'이 '곰'에서 첫소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목, 먹'과 '곰, 검'은 자음이 같지만 모음이 다르고, '목, 곰'과 '먹, 검'은 모음이 같지만 자음이 다르다. 이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에 나타난 승리 조건 중 첫 번째는 전설 모음(ㅣ, ㅔ, ㅐ, ㅟ, ㅚ), 두 번째는 평순 모음(ㅣ, ㅔ, ㅐ, ㅡ, ㅓ, ㅏ), 세 번째는 고모음(ㅣ, ㅟ, ㅡ, ㅜ)이 해당한다. ③의 'ㅣ'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으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므로 (○)

| 오답 체크 |

① 'ㅔ'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지만 중모음이므로 (×)

② 'ㅜ'는 고모음이지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므로 (×)

④ 'ㅟ'는 전설 모음, 고모음이지만 원순 모음이므로 (×)

⑤ 'ㅏ'는 평순 모음이지만 후설 모음, 저모음이므로 (×)

04 ① 'ㅐ'는 저모음(개모음)이고, 'ㅔ'는 중모음(반개모음)이므로 '내'는 '네'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해야 하므로 (○)

| 오답 체크 |

②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할 때 'ㅐ'와 'ㅔ'는 모두 평순 모음으로 둘 다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발음하지 않으므로 (×)

③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ㅐ'는 저모음, 'ㅔ'는 중모음이므로 '내'를 발음할 때는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낮아지게 해야 하므로 (×)

④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ㅐ'와 'ㅔ'는 모두 전설 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앞에 위치하므로 (×)

⑤ 단모음 체계표는 발음할 때의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한 것으로 입술이나 혀를 움직여야 소리가 나므로 (×)

05 '과'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 '[w]'가 단모음 'ㅏ'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 오답 체크 |

① 'ㅛ'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 '[j]'와 단모음 'ㅜ'가 결합한 소리이며,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② 'ㅐ'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③ 'ㅖ'의 발음은 'ㅣ'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 뒤에서 'ㅔ'가 결합한 것이다.

⑤ 반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이고 이중 모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것이다.

개념 03 한글의 창제 원리

개념 트레이닝 본문 81쪽

01 ○ 02 ○ 03 × 04 ○ 05 실용 정신 06 애민 정신
07 자주 정신 08 ㅁ 09 ㄹ 10 ㄱ 11 ㄴ 12 ㄷ 13 가
14 이 15 가 16 이 17 가 18 이 19 ㉠ ㆍ ㉡ ㅡ ㉢ ㅣ
20 초 21 재 22 재 23 초 24 초 25 재 26 ㅑ, ㅛ
27 ㅘ, ㅝ 28 ㅋ, ㅍ 29 ㄲ, ㅉ

03 모음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08~12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ㅁ'은 입의 모양, 'ㅅ'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13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14 'ㅿ'은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한 모양이지만 소리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이체자에 해당한다.

15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16 'ㄹ'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한 모양이지만 소리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이체자에 해당한다.

17 'ㅂ'은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18 'ㅇ'은 획을 더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소리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이체자이다.

19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20 'ㅗ'는 'ㅡ'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21 'ㅛ'는 초출자 'ㅗ'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22 'ㅠ'는 초출자 'ㅜ'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23 'ㅜ'는 'ㅡ'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24 'ㅏ'는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25 'ㅑ'는 초출자 'ㅓ'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26 <보기>에서 초출자(ㅏ, ㅗ)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는 'ㅑ'와 'ㅛ'이다.

27 <보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초출자들을 합하여 만든 글자는 'ㅘ(ㅗ+ㅏ)'와 'ㅝ(ㅜ+ㅓ)'이다.

28 <보기>에서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낸 가획자는 'ㅋ'과 'ㅍ'이다.

29 <보기>에서 같은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이어 쓴 병서 자음자는 'ㄲ'과 'ㅉ'이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3 본문 82~84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① 05 ② 06 ① 07 ④ 08 ②
09 ③ 10 ① 11 ②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가
획의 원리는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ㄷ'을 만들고, 다시 'ㄷ'에 획을 더해 'ㅌ'을 만드는 원리로,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특징이 있다. 17 ⓐ 기본자 ⓑ ㅗ, ㅜ, ㅏ, ㅓ ⓒ 재출자 ⓓ 합성의 원리

01 한글은 일반 백성들도 글자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02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쓰게 하려는 것은 실용 정신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우리말이 중국과 다름을 알고 우리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주 정신에 해당한다.
② 문자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은 애민 정신에 해당한다.

03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오답 체크 |
② 훈민정음은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구성되었다.
③ 훈민정음은 음운 단위로 만들어졌지만, 적을 때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④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모음자는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졌다.
⑤ 우리말과 중국 말은 말소리가 달라서 백성들이 한자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04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로, 이를 기본자로 하여 자음은 가획의 원리를, 모음은 합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 오답 체크 |
② 가획의 원리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것을 말한다.
③ 합성의 원리는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것을 말한다.
④ 병서의 원리는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을 말한다.
⑤ 연서의 원리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을 말한다.

05 'ㅍ'은 입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ㅁ'에 획을 두 번 더해 만든 것이고, 'ㅎ'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ㅇ'에 획을 두 번 더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06 ‘ㄱ’은 자음의 기본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오답 체크 |

②는 ‘ㄴ’, ③은 ‘ㅁ’, ④는 ‘ㅅ’, ⑤는 ‘ㅇ’에 해당한다.

07 ‘ㄹ’은 기본자인 ‘ㄴ’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획을 더해 소리가 더 세게 남을 나타내지 않고 모양만 다른 이체자이다.

| 오답 체크 |

①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②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③ ‘ㅂ’은 기본자인 ‘ㅁ’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가획자이다.
⑤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한걸음 더

가획자와 이체자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보통의 가획자는 획을 더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데 이체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체자는 한글 창제 원리에서 말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08 이의 모양을 본뜬 자음 기본자는 ‘ㅅ’, 입의 모양을 본뜬 자음 기본자는 ‘ㅁ’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포함된 단어는 ② ‘목성’이다.

09 ‘ㅇ’과 ‘ㅿ’은 한글 창제 당시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라져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이다.

| 오답 체크 |

①, ② 세 글자 모두 이체자에 해당한다.
④ ‘ㅿ’은 이체자이고 ‘ㅅ’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므로 둘의 창제 원리는 다르다.
⑤ 세 글자 모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소리의 세기에 변화가 없어 이체자로 분류한다.

10 ⓐ에 들어갈 자음은 ‘ㅋ’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의 기본자이고, ‘ㄱ’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획을 더한 글자가 ‘ㅋ’이다.

| 오답 체크 |

ⓓ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ㆆ’이 들어간다.

11 ‘ㅑ’는 초출자 ‘ㅏ’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에 해당한다.

12 ‘ㅣ’는 모음 기본자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13 ㉢ ‘ㅆ, ㅠ, ㅑ, ㅕ’는 초출자에 ‘ㆍ’를 합한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소리의 세기 변화를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ㅆ, ㅠ, ㅑ, ㅕ’는 소리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체크 |

㉠ ‘그림’에 쓰인 ‘ㅡ’, ‘ㅣ’는 모두 기본자이다.
㉡ ‘ㆍ’는 소실되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모음자이다.
㉣ 초출자는 기본자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다시 합하여 만들었다.

14 ㉠ ‘ㅕ’는 초출자로 기본자 ‘ㆍ’와 ‘ㅣ’를 합한 합성의 원리로, ㉡ ‘ㅡ’는 기본자로 땅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 ‘ㅠ’는 재출자로 초출자 ‘ㅜ’에 ‘ㆍ’를 합한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즉 ㉠과 ㉢이 합성의 원리로 제자 원리가 같고, ㉡만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과 ㉢이 같은 제자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15 한글은 영어처럼 하나의 글자가 상황에 따라 여러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말소리를 나타낸다.

| 오답 체크 |

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먼저 만든 후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글자를 합하여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는 독창적인 제자 원리를 지니고 있다.
② 한글은 음절 단위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므로 풀어쓰는 문자에 비해 정보 전달에 효율적이다.
③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만 자판에 배치하면 모든 글자를 과학적으로 조합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 정보화 사회에 매우 적합하다.
④ 한글은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말소리를 나타내므로 말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서술형 대비

16 훈민정음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ㄱ, ㄴ, ㅁ, ㅅ, ㅇ)를 만든 후,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ㄷ’과 ‘ㅌ’이 만들어졌으며, 획을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ㄴ’을 예로 들어 ‘기본자’와 ‘획’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가획의 원리의 뜻과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7점
‘ㄴ’을 예로 들어 ‘기본자’와 ‘획’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가획의 원리의 뜻과 특징을 설명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5점
‘ㄴ’을 예로 들어 가획의 원리의 뜻만 설명한 경우	3점

17 ‘ㆍ, ㅡ, ㅣ’는 기본자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ㅗ, ㅜ, ㅏ, ㅓ’는 초출자로, ‘ㅡ,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ㅛ, ㅠ, ㅑ, ㅕ’는 재출자로,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5점
ⓐ~ⓓ에 들어갈 말을 3개만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에 들어갈 말을 1~2개만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3 본문 85쪽

01 ② 02 ③ [❶ 가획자 ❷ 혓소리 ❸ 가획 ❹ 세게 ❺ 발음 기관]

01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이[齒]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잇소리 'ㅅ'이고, 'ㅅ'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ㅈ, ㅊ'이다. 중성 중에서 초출자 'ㅗ'에 기본자 'ㆍ'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ㅛ'이고,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ㅿ'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죵'이다.

02 <보기>에서 이체자 'ㅇ, ㄹ, ㅿ'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소리가 더 세게 남을 나타내는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③에서 이체자 'ㅿ'은 기본자 'ㅅ'을 가획하여 만들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

| 오답 체크 |

①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한 글자이므로 (○)

② 'ㄴ'과 'ㄹ'은 모두 혓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으므로 (○)

④ 'ㆆ'은 'ㅇ'의 가획자로, 기본자 'ㅇ'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므로 (○)

⑤ 자음의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은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

개념 04 교체 ①

개념 트레이닝 본문 8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솥 12 부엌 13 무릅 14 민낮 15 안팍 16 자몯 17 × 18 ○ 19 × 20 × 21 ○ 22 갈뜽 23 역싸 24 머물찝 25 더듬꼬 26 학생, 열정, 품고 27 ㉣ 28 ㉢ 29 ㉡ 30 ㉠ 31 ㉠ 32 ㉢

01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음절의 끝소리에서 'ㅅ'은 대표음인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04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오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아 된소리로 발음된다.

05~10 '동녘'은 [동녁], '낱개'는 [낟:깨], '히읗'은 [히읃], '깎다'는 [깍따], '가랑잎'은 [가랑닙], '덮밥'은 [덥빱]으로 발음된다.

11~16 '솥'은 'ㅌ'이 대표음 'ㄷ'으로, '부엌'은 'ㅋ'이 대표음 'ㄱ'으로, '무릎'은 'ㅍ'이 대표음 'ㅂ'으로, '민낯'은 'ㅊ'이 대표음 'ㄷ'으로, '안팎'은 'ㄲ'이 대표음 'ㄱ'으로, '잠옷'은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된다.

17 '밭으로'에서 '으로'는 형식 형태소(조사)이므로 끝 자음인 'ㅌ'이 연음되어 [바트로]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숲 안쪽'에서 '안쪽'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끝 자음인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교체된 후 연음되어 [수반쪽]으로 발음된다.

19 '밖에'에서 '에'는 형식 형태소(조사)이므로 끝 자음인 'ㄲ'이 연음되어 [바께]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20 '낮에'에서 '에'는 형식 형태소(조사)이므로 끝 자음인 'ㅈ'이 연음되어 [나제]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21 '빛 아래'에서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끝 자음인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연음되어 [비다래]로 발음된다.

22 '갈등(葛藤)'은 한자어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갈뜽]으로 발음된다.

23 '역사'는 받침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역싸]로 발음된다.

24 '머물 집'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머물찝]으로 발음된다.

25 '더듬고'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더듬꼬]로 발음된다.

26 '학생[학쌩]'은 받침 'ㄱ' 뒤에서 'ㅅ'이 'ㅆ'으로, '열정[열쩡]'은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ㅈ'이 'ㅉ'으로, '품고[품:꼬]'는 어간 받침 'ㅁ' 뒤에서 'ㄱ'이 'ㄲ'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7 '볼 거야'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볼꺼야]로 발음된다.

28 '발달(發達)'은 한자어로, 받침 'ㄹ' 뒤의 'ㄷ'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발딸]로 발음된다.

29 '안고'는 어간 받침 'ㄴ' 뒤에서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안:꼬]로 발음된다.

30 '국수'는 'ㄱ' 뒤에서 'ㅅ'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쑤]로 발음된다.

31 ‘걷기’는 ‘ㄷ’ 뒤에서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걷:끼]로 발음된다.

32 ‘물질(物質)’은 한자어로, 받침 ‘ㄹ’ 뒤의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물찔]로 발음된다.

개념 05 교체 ②

개념 트레이닝

본문 89~91쪽

01 ○ 02 × 03 ○ 04 ○ 05 × 06 반는, ㄴ, ㄷ, ㄴ 07 궁민, ㅁ, ㄱ, ㅇ 08 잠는, ㄴ, ㅂ, ㅁ 09 밤물, ㅁ, ㅂ, ㅁ 10 든는, ㄴ, ㄷ, ㄴ 11 멍는, ㄴ, ㄱ, ㅇ 12 덧문 13 앞니 14 작년 15 맏며느리 16 ㄴ, ㅁ, 암날 17 ㄴ, ㄴ, 재민는 18 ㅁ, ㅇ, 키읍만 19 닥는, 당는 20 꼳망울, 꼰망울 21 걷모양, 건모양 22 낙는다, 낭는다 23 부억문, 부엉문 24 닫는다, 단는다 25 꽃나무, 꼰나무 26 있는, 인는 27 옆문, 염문 28 칼랄, ㄹ, ㄴ 29 펼리, ㄴ, ㄹ 30 달련, ㄴ, ㄹ 31 설로, ㄴ, ㄹ 32 놀리, ㄴ, ㄹ 33 물랭면, ㄹ, ㄴ 34 × 35 ○ 36 × 37 ○ 38 ○ 39 ○ 40 찰라 41 물로리 42 실래화 43 할:류 44 궐리, 역행적 45 괄람, 역행적 46 달림, 순행적 47 궐력, 역행적 48 줄럼끼, 순행적 49 훌레 50 똘른 51 달른다 52 구지, ㅈ 53 거치, ㅊ 54 다치고, 치 55 × 56 ○ 57 × 58 × 59 ○ 60 ○ 61 파트로, 파치 62 가튼, 가치 63 소치, 소틀 64 끄치, 끄딘사 65 ○ 66 × 67 ○ 68 × 69 ○ 70 감는 71 싼네 72 봉는 73 꼰나무 74 쫃는, 쪼는 75 바틴, 바친 76 맏는, 만는 77 할는다, 할른다 78 무티다, 무치다 79 ㉠, ㉣ 80 ㉡, ㉢, ㉤ 81 ㉡, ㉣, ㉥

02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러나 영향을 준 비음과 반드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바뀐다.

05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만 일어나고,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12 ‘덧문’은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던문]으로 발음된다.

13 ‘앞니’는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교체된 후,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암니]로 발음된다.

14 ‘작년’은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장년]으로 발음된다.

15 ‘맏며느리’는 받침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만며느리]로 발음된다.

19 ‘닦는’은 받침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어 [닥는]이 된 후,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당는]으로 발음된다.

20 ‘꽃망울’은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꼳망울]이 된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꼰망울]로 발음된다.

21 ‘겉모양’은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걷모양]이 된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건모양]으로 발음된다.

22 ‘낚는다’는 받침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어 [낙는다]가 된 후,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낭는다]로 발음된다.

23 ‘부엌문’은 받침 ‘ㅋ’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어 [부억문]이 된 후,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부엉문]으로 발음된다.

24 ‘닫는다’는 받침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단는다]로 발음된다.

25 ‘꽃나무’는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꼰나무]로 발음된다.

26 ‘있는’은 받침 ‘ㅆ’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인는]으로 발음된다.

27 ‘옆문’은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교체된 후, ‘ㅂ’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염문]으로 발음된다.

34 ‘막내’는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내]로 발음된다.

35 ‘가을날’은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가을랄]로 발음된다.

36 ‘믿는’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음된다.

37 ‘대관령’은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대:괄령]으로 발음된다.

38 ‘물난리’는 ‘ㄴ’이 각각 앞과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된다.

39 ‘산림’은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살림]으로 발음된다.

40 ‘찰나’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찰라]로 발음된다.

41 ‘물놀이’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물로리]로 발음된다.

42 ‘실내화’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실래화]로 발음된다.

43 ‘한류’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할:류]로 발음된다.

44 ‘권리’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궐리]로 발음된다.

45 ‘관람’은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괄람]으로 발음된다.

46 ‘달님’은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달림]으로 발음된다.

47 ‘권력’은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궐력]으로 발음된다.

48 ‘줄넘기’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49 ‘훑네’는 겹받침 ‘ㄺ’ 중 ‘ㄱ’이 탈락하여 [훌네]가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어 [훌레]로 발음된다.

50 ‘뚫는’은 겹받침 ‘ㄶ’ 중 ‘ㅎ’이 탈락하여 [뚤는]이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어 [뚤른]으로 발음된다.

51 ‘닳는다’는 겹받침 ‘ㄶ’ 중 ‘ㅎ’이 탈락하여 [달는다]가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어 [달른다]로 발음된다.

55 ‘끝으로’는 받침 ‘ㅌ’이 모음 ‘ㅡ’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끄트로]로 발음된다.

56 ‘밑이’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치]로 발음된다.

57 ‘곧이어’는 받침 ‘ㄷ’이 실질 형태소인 ‘이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디어]로 발음된다.

58 ‘굳은’은 받침 ‘ㄷ’이 모음 ‘ㅡ’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든]으로 발음된다.

59 ‘피붙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피부치]로 발음된다.

60 ‘곧이듣지’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고지듣찌]로 발음된다.

61 ‘팥으로’는 받침 ‘ㅌ’이 조사 ‘으로’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트로]로 발음된다. 반면 ‘팥이’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파치]로 발음된다.

62 ‘같은’은 받침 ‘ㅌ’이 모음 ‘ㅡ’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튼]으로 발음된다. 반면 ‘같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63 ‘솥이’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된다. 반면 ‘솥을’은 받침 ‘ㅌ’이 조사 ‘을’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틀]로 발음된다.

64 ‘끝이’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끄치]로 발음된다. 반면 ‘끝인사’는 뒤에 오는 ‘인사’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끄딘사]로 발음된다.

65 ‘놓는’은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놑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논는]으로 발음된다.

66 ‘쌀눈’은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쌀룬]으로 발음되는 순행적 유음화이지만, ‘천리’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철리]로 발음되는 역행적 유음화이다.

67 ‘실눈’은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룬]으로 발음된다.

68 ‘첫눈’과 ‘꽃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각각 [첟눈], [꼳말]이 된 후,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천눈], [꼰말]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다.

69 ‘진로’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질:로]로 발음된다. ‘학년’은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항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모두 있다.

70 '갚는'은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교체되어 [갑는]이 된 후, 'ㅂ'이 비음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감는]으로 발음된다.

71 '쌓네'는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싿네]가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싼네]로 발음된다.

72 '볶는'은 받침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교체되어 [복는]이 된 후,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봉는]으로 발음된다.

73 '꽃나무'는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꼳나무]가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꼰나무]로 발음된다.

74 '쫓는'은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쫃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쫀는]으로 발음된다.

75 '받힌'은 받침 'ㄷ'이 접미사 '-히-'와 결합하여 [바틴]이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친]으로 발음된다.

76 '맞는'은 받침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맏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만는]으로 발음된다.

77 '핥는다'는 겹받침 'ㄾ' 중 'ㅌ'이 탈락하여 [할는다]가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른다]로 발음된다.

78 '묻히다'는 받침 'ㄷ'이 접미사 '-히-'와 결합하여 [무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79 ㉠ '식물', ㉡ '국문학'은 모두 받침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각각 [싱물], [궁문학]으로 발음된다.

80 ㉢ '훈련', ㉣ '인류학', ㉤ '인력'은 모두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각각 [훌:련], [일류학], [일력]으로 발음된다.

81 ㉥ '해돋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된다. ㉦ '붙이다'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치다]로 발음된다. ㉧ '여닫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여:다지]로 발음된다.

개념 06 탈락

개념 트레이닝

본문 93쪽

01 ○ **02** ○ **03** × **04** × **05** ○ **06** ㅁ **07** ㄴ **08** ㅂ **09** ㄹ **10** ㄹ **11** ㄱ **12** 여덜 **13** 짤따 **14** 익따 **15** 물께 **16** 넙쭈카다 **17** 둥근 **18** 파는 **19** 노느라고 **20** 소나무 **21** 아드님 **22** 너어서 **23** 다아 **24** 노으니 **25** 싸여 **26** 시러도 **27** ○ **28** × **29** ○ **30** ○ **31** 잠갔니 **32** 모아 **33** 써라 **34** 치렀다 **35** 예뻐서 **36** ㉡ **37** ㉠ **38** ㉡ **39** ㉠

03 'ㄹ' 탈락은 '솔+나무 → 소나무[소나무]'처럼 음운 변동 결과가 발음과 표기에 모두 반영된다.

04 'ㅎ' 탈락은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즉 어미나 접사를 만날 때 일어난다.

06 '젊다'는 [점:따]로 발음되어 뒤 자음 'ㅁ'이 소리 난다.

07 '얹다'는 [언따]로 발음되어 앞 자음 'ㄴ'이 소리 난다.

08 '값도'는 [갑또]로 발음되어 앞 자음 'ㅂ'이 소리 난다.

09 '훑다'는 [훌따]로 발음되어 앞 자음 'ㄹ'이 소리 난다.

10 '넓다'는 [널따]로 발음되어 앞 자음 'ㄹ'이 소리 난다.

11 '맑다'는 [막따]로 발음되어 뒤 자음 'ㄱ'이 소리 난다.

12 'ㄻ'은 앞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여덜]이 알맞다.

13 'ㄺ'은 앞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짤따]가 알맞다.

14 'ㄺ'은 뒤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익따]가 알맞다.

15 'ㄺ'은 [ㄱ]으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물께]로 발음하는 것이 알맞다.

16 'ㄼ'은 [ㄹ]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넓-'은 '넓죽하다, 넓둥글다' 등에서 [넙]으로 발음되므로 [넙쭈카다]가 알맞다.

17 '둥글-+-ㄴ'은 어미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둥근'으로 표기된다.

18 '팔-+-는'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파는'으로 표기된다.

19 '놀-+-느라고'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노느라고'로 표기된다.

20 '솔+나무'는 '솔'과 '나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여 '소나무'로 표기된다.

21 '아들+-님'은 '아들'과 '-님'이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여 '아드님'으로 표기된다.

22 '넣어서'는 '넣-+-어서'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너어서]로 발음된다.

23 '닿아'는 '닿-+-아'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다아]로 발음된다.

24 '놓으니'는 '놓-+-으니'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노으니]로 발음된다.

25 '쌓여'는 '쌓-+-이-+-어'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여 [싸여]로 발음된다.

26 '싫어도'는 '싫-+-어도'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시러도]로 발음된다.

27 '끊어서'는 '끊-+-어서'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끄너서]로 발음된다.

28 '낳는'은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낟: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난:는]으로 발음된다. '낳는'은 교체만 두 번 발생하며 'ㅎ'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29 '빻아서'는 '빻-+-아서'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빠아서]로 발음된다.

30 '끓일'은 '끓-+-이-+-ㄹ'이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여 [끄릴]로 발음된다.

31 '잠그-+-았-+-니'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잠갔니'로 표기된다.

32 '모으-+-아'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모아'로 표기된다.

33 '쓰-+-어라'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써라'로 표기된다.

34 '치르-+-었-+-다'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치렀다'로 표기된다.

35 '예쁘-+-어서'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예뻐서'로 표기된다.

36 '건너서'는 '건너-+-어서'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인 'ㅓ'가 탈락하였다.

37 '나빠'는 '나쁘-+-아'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38 '타서'는 '타-+-아서'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인 'ㅏ'가 탈락하였다.

39 '슬퍼서'는 '슬프-+-어서'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개념 07 축약, 첨가

개념 트레이닝 본문 95쪽

01 × **02** ○ **03** ○ **04** × **05** × **06** 구콰, 나카, ㅋ **07** 끈타, 안턴, ㅌ **08** 그팽, 널펴, ㅍ **09** 끌치, 노치, ㅊ **10** 옳지, 올치 **11** 듬직해, 듬지캐 **12** 싫다, 실타 **13** 잡히지, 자피지 **14** 따뜻하게, 따뜨타게 **15** 휘발뉴, 휘발류 **16** 서울녁, 서울력 **17** 소독냑, 소동냑 **18** 신여성, 논일, 콩엿, 담요 **19** ⓐ 쥐어 ⓑ 쥐여 **20** ⓐ 뛰어 ⓑ 뛰여 **21** ⓐ 띠어 ⓑ 띠여 **22** 기어서 **23** 끼어들어 **24** 휘어

01 거센소리되기는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에 해당한다.

04 'ㄴ' 첨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모두 일어난다.

05 '피어[피어/피여]', '뛰어[뛰어/뛰여]'처럼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06 '국화'와 '낙하'는 'ㄱ'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구콰]와 [나카]로 발음된다.

07 '끊다'와 '않던'은 겹받침 'ㄶ'의 'ㅎ'이 'ㄷ'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끈타]와 [안턴]으로 발음된다.

08 ‘급행’은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고, ‘넓혀’는 겹받침 ‘ㄼ’의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그팽]과 [널펴]로 발음된다.

09 ‘끊지’는 겹받침 ‘ㄶ’의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고, ‘놓지’는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끌치]와 [노치]로 발음된다.

10 ‘옳지’는 겹받침 ‘ㄶ’의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올치]로 발음된다.

11 ‘듬직해’는 ‘ㄱ’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듬지캐]로 발음된다.

12 ‘싫다’는 겹받침 ‘ㄾ’의 ‘ㅎ’이 ‘ㄷ’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실타]로 발음된다.

13 ‘잡히지’는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자피지]로 발음된다.

14 ‘따뜻하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바뀐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따뜨타게]로 발음된다.

15 ‘휘발유’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휘발뉴]가 된 후,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휘발류]로 발음된다.

16 ‘서울역’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서울녁]이 된 후,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17 ‘소독약’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소독냑]이 된 후, ‘ㄱ’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소동냑]으로 발음된다.

18 ‘신여성’, ‘논일’, ‘콩엿’, ‘담요’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여, 이, 여, 요’로 시작하므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첨가가 일어난다. 따라서 각각 [신녀성], [논닐], [콩녇], [담:뇨]로 발음된다. 반면 ‘활용[화룡]’, ‘일요일[이료일]’, ‘안약[아:냑]’, ‘등용문[등용문]’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종합 개념 트레이닝 | 개념 04~07 본문 96~99쪽

01 (1) ○ (2) × (3) × (4) ○ (5) ○ (6) ○ (7) × **02** (1) ㉠, ㉡, ㉤, ㉦ (2) ㉢, ㉣ (3) ㉥, ㉦ (4) ㉤, ㉧ **03** (1) ㉦ (2) ㉡ (3) ㉠, ㉤ (4) ㉣ (5) ㉥ (6) ㉧, ㉡ (7) ㉠ **04** (1) 교체 (2) 첨가 (3) 축약 (4) 탈락 (5) 교체 (6) 교체 **05** (1) × (2) ○ (3) ○ (4) ○ (5) × **06**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거센소리되기 (3) ‘ㅎ’ 탈락 **07** (1) 빋나, 빈나 (2) 끌는, 끌른 (3) 속다, 속따 (4) 거티다, 거치다 (5) 흑냄새, 흥냄새 (6) 뱓머리, 밴머리 (7) 뜯하다, 뜨타다 (8) 부억문, 부엉문 **08** (1) ㉠ (2) ㉡ (3) ㉠ (4) ㉡ (5) ㉠ (6) ㉡ **09** (1) 다달이 (2) 달치 (3) 박따가 (4) 겨우내 (5) 목씨 (6) 밥:꼬 **10** (1) 구개음화: 같이, 유음화: 원리 (2) 자음군 단순화: 값싼, 거센소리되기: 그렇다 (3) 된소리되기: 책방, 유음화: 귤나무 (4) 구개음화: 붙이고, 비음화: 받는 (5)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깥, ‘ㅎ’ 탈락: 좋아 **11** (1) [끄테], 없음. (2) [끋까지], ㉠ (3) [끋또], ㉠, ㉤ (4) [끈나니], ㉠, ㉡ (5) [끄치다], ㉣ **12** (1) 잉는, 교체, 탈락 (2) 닥짱, 교체, 탈락 (3) 수탄, 교체, 축약 (4) 불려우, 교체, 첨가 (5) 그팽뇨금, 축약, 첨가 **13** (1) 반모음 첨가 (2) ‘ㄴ’ 첨가 (3) 구개음화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5) 자음군 단순화 (6) 유음화 **14** (1) 흐귀에 (2) 너머 (3) 힘들미 (4) 바테 (5) 부어크로 (6) 달글 (7) 뛰어/뛰여 (8) 가빈는 (9) 바다래 **15** (1) 교체, 비음화 (2) 자음군 단순화, 교체 (3)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16**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2)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3) ‘ㄴ’ 첨가, 비음화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5)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6)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17** (1) ㉢ (2) ㉤ (3) ㉠ (4) ㉡ (5) ㉥ (6) ㉣

01 (2)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3)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7)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02 (1) ㉠ ‘관람객’은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괄람객]으로 발음된다. ㉡ ‘껴안지’는 어간 받침 ‘ㄴ’ 뒤에서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껴안찌]로 발음된다. ㉥ ‘미닫이문’은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다지문]으로 발음된다. ㉦ ‘줍는’은 받침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줌:는]으로 발음된다. 이들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2) ㉢ ‘놓으세요’는 ‘놓-+-으세요’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노으세요]로 발음된다. ㉤ '앉는다'는 겹받침 'ㄵ' 중 'ㅈ'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안는다]로 발음된다. 이들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에 해당한다.

(3) ㉣ '꽂힌'은 'ㅈ'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친]으로 발음된다. ㉦ '많던'은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만:턴]으로 발음된다. 이들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에 해당한다.

(4) ㉥ '식용유'는 'ㄴ'이 첨가되어 [시굥뉴]로 발음된다. ㉧ '한 일'은 두 단어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한닐]로 발음된다. 이들은 원래 없던 'ㄴ' 소리가 생겨나는 첨가에 해당한다.

03 (1) '신라[실라]'와 '난로[날:로]'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2) '국물[궁물]'은 받침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잡는다[잠는다]'는 받침 'ㅂ'이 비음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3) '숱하다'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숟하다]가 된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수타다]로 발음된다.

(4) '닫히다'는 받침 'ㄷ'이 '-히-'와 결합하여 [티]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이어 [티]가 [치]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다치다]로 발음된다.

(5) '좋-+-은 → 좋은[조:은]'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쓰-+-어라 → 써라[써라]'에서는 'ㅡ'가 탈락한다.

(6)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된 후,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이 된다. 따라서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7) '꽃[꼳]', '낯[낟]', '앞[압]', '부엌[부억]'은 모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04 (1) '닫고'는 받침 'ㄷ' 뒤에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닫꼬]로 발음된다.

(2) '남존여비'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남존녀비]로 발음된다.

(3) '닳도록'은 겹받침 'ㅀ'의 'ㅎ'이 'ㄷ'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달토록]으로 발음된다.

(4) '낳은'은 '낳-+-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나은]으로 발음된다.

(5) '각종'은 받침 'ㄱ' 뒤에서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각쫑]으로 발음된다.

(6) '끝나자'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끋나자]가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끈나자]로 발음된다.

05 (1) '설날'은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설:랄]로 발음된다.

(2) '격식'은 받침 'ㄱ' 뒤에서 'ㅅ'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격씩]으로 발음된다.

(3) '갖춰'는 받침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갇춰]로 발음된다.

(4) '입는'은 받침 'ㅂ'이 비음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임는]으로 발음된다.

(5) '굳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되고, 음운의 개수는 그대로 4개이다.

06 (1) ① '놓치고'는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놑치고]로 발음된다.

② '닿는'은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닫: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단:는]으로 발음된다.

(2) ① '맺힌'은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매친]으로 발음된다.

② '끓고'는 'ㅎ'이 'ㄱ'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끌코]로 발음된다.

③ '좋더라'는 'ㅎ'이 'ㄷ'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터라]로 발음된다.

④ '않고'는 겹받침 'ㄶ'의 'ㅎ'이 'ㄱ'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안코]로 발음된다.

(3) ① '괜찮으니'는 '괜찮-+-으니'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괜차느니]로 발음된다.

② '잃어서'는 '잃-+-어서'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이러서]로 발음된다.

③ '옳은'은 '옳-+-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오른]으로 발음된다.

④ '쌓은'은 '쌓-+-은'이 결합한 형태로,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싸은]으로 발음된다.

07 (1) '빛나'는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빋나]가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빈나]로 발음된다.

(2) '끓는'은 겹받침 'ㄾ' 중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끌는]이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끌른]으로 발음된다.
(3) '솎다'는 받침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어 [속다]가 된 후, 'ㄱ' 뒤에서 'ㄷ'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속따]로 발음된다.
(4) '걷히다'는 받침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거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거치다]로 발음된다.
(5) '흙냄새'는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흑냄새]가 된 후,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흥냄새]로 발음된다.
(6) '뱃머리'는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밷머리]가 된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밴머리]로 발음된다.
(7) '뜻하다'는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뜯하다]가 된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뜨타다]로 발음된다.
(8) '부엌문'은 받침 'ㅋ'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어 [부억문]이 된 후,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부엉문]으로 발음된다.

08 (1) '고파서'는 '고프-+-아서'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ㅡ'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2) '자라라'는 '자라-+-아라'가 결합할 때 동일 모음 'ㅏ'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3) '꺼라'는 '끄-+-어라'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ㅡ'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4) '서서'는 '서-+-어서'가 결합할 때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5) '들러'는 '들르-+-어'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ㅡ'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6) '만나'는 '만나-+-아'가 결합할 때 동일 모음 'ㅏ'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한다.

09 (1) '다달이'는 '달+달+-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달'의 받침 'ㄹ'이 탈락한 형태로 표기에도 반영한다.
(2) '닳지'는 겹받침 'ㄾ'의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달치]로 발음된다.
(3) 겹받침 'ㄺ'은 뒤의 자음 'ㄱ'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밝다가'는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박다가]가 된 후, 받침 'ㄱ' 뒤에서 'ㄷ'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박따가]로 발음된다.
(4) '겨우내'는 '겨울+-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겨울'의 받침 'ㄹ'이 탈락한 형태로 표기에도 반영한다.
(5) '몫이'는 겹받침 'ㄳ' 뒤에 오는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되, 이때의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목씨]가 표준 발음이다.
(6) 겹받침 'ㅙ'은 앞의 자음 'ㄹ'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ㅂ'이 발음된다. 따라서 '밟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밥:고]가 된 후, 받침 'ㅂ' 뒤에서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밥:꼬]로 발음된다.

10 (1) '같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원리'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월리]로 발음된다.
(2) '값싼'은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싼]으로 발음된다. '그렇다'는 'ㅎ'이 'ㄷ'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그러타]로 발음된다.
(3) '책방'은 받침 'ㄱ' 뒤에서 'ㅂ'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책빵]으로 발음된다. '귤나무'는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귤라무]로 발음된다.
(4) '붙이고'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치고]로 발음된다. '받는'은 받침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반는]으로 발음된다.
(5) '바깥'은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바깓]으로 발음된다. '좋아'는 '좋-+-아'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조:아]로 발음된다.

11 (1) '끝에'는 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와 결합하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하여 [끄테]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2) '끝까지'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끋까지]로 발음된다.
(3) '끝도'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끋도]가 된 후, 받침 'ㄷ' 뒤에서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끋또]로 발음된다.
(4) '끝나니'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끋나니]가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끈나니]로 발음된다.
(5) '끝이다'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끄치다]로 발음된다.

12 (1) '읽는'은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익는]이 되고,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탈

락과 교체가 나타난다.

(2) '닭장'은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닥장]이 되고, 'ㄱ' 뒤에서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닥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탈락과 교체가 나타난다.

(3) '숱한'은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숟한]이 된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수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교체와 축약이 나타난다.

(4) '불여우'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불녀우]가 되고, 첨가된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불려우]로 발음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가 나타난다.

(5) '급행요금'은 '급행'에서 'ㅂ'이 'ㅎ'과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합성어의 앞말 '급행'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요금'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되어 [그팽뇨금]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축약과 첨가가 나타난다.

13 (1) '개어'는 반모음 첨가를 적용하지 않아 [개어]로 발음된다.

한걸음 더

'개어'를 [개어]로만 발음하는 이유

'깨-, 패-'와 같이 'ㅐ'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나 '데-, 세-'와 같이 'ㅔ'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ㅣ, ㅚ, ㅟ'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만 '어'가 [ㅕ]로 발음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2) '간염'은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고 [가:념]으로 발음한다.

(3) '밭을'은 받침 'ㅌ'이 조사 '을'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ㅌ'을 연음하여 [바틀]로 발음한다.

(4) '옆얼굴'은 받침 'ㅍ'이 실질 형태소인 '얼굴'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교체된 후 연음하여 [여벌굴]로 발음한다.

(5) '여덟이'는 겹받침 'ㅀ'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겹받침 중 뒤의 'ㅂ'을 연음하여 [여덜비]로 발음한다.

(6) '관료제'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괄료제]로 발음한다.

14 (1) '흙 위에'는 겹받침 'ㄺ'이 실질 형태소인 '위'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ㄺ' 중 'ㄹ'이 탈락하고 남은 'ㄱ'이 연음하여 [흐귀에]로 발음된다.

(2) '넘어'는 받침 'ㅁ'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하여 [너머]로 발음된다.

(3) '힘듦이'는 겹받침 'ㅀ'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ㅀ' 중 뒤의 'ㅁ'이 연음하여 [힘들미]로 발음된다.

(4) '밭에'는 받침 'ㅌ'이 조사 '에'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ㅌ'이 연음하여 [바테]로 발음된다.

(5) '부엌으로'의 받침 'ㅋ'은 뒤에 오는 '으로'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연음하여 [부어크로]로 발음된다.

(6) '닭을'은 겹받침 'ㄺ'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을'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겹받침 중 뒤의 'ㄱ'이 연음하여 [달글]로 발음된다.

(7) '뛰어'는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므로 [뛰어/뛰여]로 발음된다.

(8) '값있는'은 겹받침 'ㅄ'이 실질 형태소인 '있는'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ㅄ' 중 'ㅅ'이 탈락하고 남은 'ㅂ'이 연음하여 [가빈는]으로 발음된다.

(9) '밭 아래'의 받침 'ㅌ'은 실질 형태소인 '아래'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ㅌ'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된 후 연음하여 [바다래]로 발음된다.

15 (1) '쌓는'은 받침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싿는]이 된 후,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싼는]으로 발음된다.

(2) '칡밭'에서 '칡'의 겹받침 'ㄺ'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ㄹ'이 탈락하여 'ㄱ'이 소리 나고, 'ㄱ' 뒤에서 'ㅂ'이 'ㅃ'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또한 '밭'의 받침 '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칙빧]으로 발음된다.

(3) '샅샅이'는 앞의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고, 'ㄷ' 뒤에서 'ㅅ'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ㅆ'으로 바뀐다. 또한 뒤의 받침 'ㅌ'은 접미사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ㅊ'으로 교체되어 [삳싸치]로 발음된다.

16 (1) '덮밥'은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뀌어 [덥밥]이 된 후, 'ㅂ' 뒤에서 'ㅂ'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덥빱]으로 발음된다.

(2) '넓네'는 겹받침 'ㅀ' 중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가 일어나 [널네]가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널레]로 발음된다.
(3) '영업용'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영업뇽]이 된 후, 'ㅂ'이 비음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영엄뇽]으로 발음된다.
(4) '멋지다'는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먿지다]가 된 후, 'ㄷ' 뒤에서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먿찌다]로 발음된다.
(5) '값지다'는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지다]가 된 후, 'ㅂ' 뒤에서 'ㅈ'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찌다]로 발음된다.
(6) '깨끗하다'는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깨끋하다]가 된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깨끄타다]로 발음된다.

17 (1) '서울역'은 'ㄴ' 첨가가 일어나 [서울녁]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2) '꽃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꼳집]이 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꼳찝]으로 발음된다.
(3) '붙인'은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친]으로 발음된다.
(4) '밝히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발키고]로 발음된다.
(5) '홑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일어나 [혿니불]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6) '앓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알는]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알른]으로 발음된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101쪽

01 (1) ① 꼬뒤 ② 꼬체 (2) ① 수페 ② 수반 (3) ① 이피 ② 이뷔 **02** (1) 창박부터, 교체 (2) 까끄니, 음운 변동 없음. (3) 목까지, 탈락 (4) 끈는, 탈락 **03** (1) [던문], ㉠, ㉠ (2) [서울력], ㉠, ㉢ (3) [넉뚜리], ㉠, ㉡ (4) [무치다], ㉠, ㉣

01 (1) ① '꽃 위'는 '위'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하여 [꼬뒤]로 발음된다. ② '꽃에'는 '에'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연음하여 [꼬체]로 발음된다.
(2) ① '숲에'는 '에'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된다. ② '숲 안'은 '안'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하여 [수반]으로 발음된다.
(3) ① '잎이'는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연음하여 [이피]로 발음된다. ② '잎 위'는 '위'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하여 [이뷔]로 발음된다.

02 (1) '창밖부터'는 쌍받침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교체되므로 [창박부터]로 발음된다.
(2) '깎으니'는 쌍받침 'ㄲ'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고 있으므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연음하여 [까끄니]로 발음된다.
(3) '몫까지'는 겹받침 'ㄳ'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목까지]로 발음된다.
(4) '끊는'은 겹받침 'ㄶ' 중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끈는]으로 발음된다.

03 (1) '덧문'은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덛문]이 된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던문]으로 발음된다.
(2) '서울역'은 'ㄴ'이 첨가되어 [서울녁]이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3) '넋두리'는 겹받침 'ㄳ'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넉두리]가 된 후, 'ㄱ' 뒤에서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넉뚜리]로 발음된다.
(4) '묻히다'는 받침 'ㄷ'이 '-히-'와 결합하여 [티]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이어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4~07 본문 102~105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5** ① **06** ⑤ **07** ① **08** ④ **09** ⑤ **10** ④ **11** ② **12** ① **13** ③ **14** ① **15** ④ **16** ③ **17** ③ **18** ⑤ **19** ③ **20** ⑤ **21** ③ **22** ⓐ [밤낟] ⓑ 유음화 ⓒ [콩녇] ⓓ 거센소리되기 ⓔ [흑낄] **23** 두 모음이 만나서 한 모음이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24** ㉡은 받침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고, ㉢은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1 '달나라'는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달라라]로 발음된다. 유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국민'은 받침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된다. 비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
② '땀받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땀바지]로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
③ '눈요기'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눈뇨기]로 발음된다. 'ㄴ' 첨가는 첨가에 해당한다.

④ ‘꽂히다’는 ‘ㅈ’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치다]로 발음된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해당한다.

02 ‘앞치마’는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뀌어 [압치마]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끝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ㄱ, ㄷ, ㄹ, ㅂ, ㅇ]이다.

| 오답 체크 |

① ‘낮’은 [낟]으로, ‘돛’은 [돋]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은 같다.
② ‘키읔’은 [키윽]으로, ‘밖’은 [박]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은 같다.
③ ‘살’, ‘장미’는 각각 [살], [장미]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이 바뀌지 않는다.
④ ‘히읗’은 [히읃]으로, ‘낮’은 [낟]으로 발음되므로 ‘히읗’은 ‘낮’과 음절 끝의 발음이 같다.

03 ‘꽃 위’에서 ‘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 연음하여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04 ‘앞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압마당]으로 바뀐 후, 받침 ‘ㅂ’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05 ‘한라산’은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② ‘한국말’은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한:궁말]로 발음된다.
③ ‘걷는’은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건:는]으로 발음된다.
④ ‘담력’은 ‘ㄹ’이 아닌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 [담:녁]으로 발음된다.
⑤ ‘협력’은 ‘ㄹ’이 아닌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 [혐녁]으로 발음된다.

한걸음 더

‘ㄹ’의 비음화의 예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06 <보기>에서 ⓐ‘진료’는 [질:료], ⓑ‘한글날’은 [한:글랄], ⓒ‘닳는’은 [달른]으로 발음되어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에서 ‘물난리[물랄리], 핥는[할른]’은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왕릉’은 ‘ㄹ’이 아닌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 [왕능]으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는 모두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 ‘진료’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 ‘한글날’은 ‘날’의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 ‘닳는’은 겹받침 ‘ㄶ’ 중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달는]이 된 후,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달른]으로 발음된다.

07 ‘부엌’은 음절의 끝에서는 대표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억]으로 발음한다.

08 ⓒ ‘삼고’는 ‘삼-+-고’와 같이 분석되며, 어간 ‘삼-’의 받침 ‘ㅁ’ 뒤에 결합하는 어미 ‘-고’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삼:꼬]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큰지’는 ‘크-+-ㄴ지’, ② ‘감겨라’는 ‘감-+-기-(사동 접미사)+-어라’, ③ ‘산다’는 ‘살-+-ㄴ다’, ⑤ ‘담가’는 ‘담그-+-아’와 같이 분석되므로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9 ‘해돋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③, ④ 첨가, 축약, 탈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해돋이’의 ‘ㄷ’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일곱 자음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10 ‘마디’는 한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디]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솥이’는 [소치], ② ‘맡이’는 [마지], ③ ‘미닫이문’은 [미:다지문], ⑤ ‘낱낱이’는 [난:나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1 겹받침 ‘ㄺ, ㄻ, ㅀ’은 단어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닭장[닥짱]’은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없다’는 [업:따], ③ ‘맑게’는 [말께], ④ ‘핥고’는 [할꼬], ⑤ ‘여덟’은 [여덜]로 발음되어 모두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이 발음된다.

12 ‘닭을’은 겹받침이 사용된 단어인 ‘닭’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므로, ‘닭’의 겹받침 ‘ㄺ’ 중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13 ㉠은 ‘ㄹ’ 탈락, ㉡은 ‘ㅎ’ 탈락의 예이다. ③에서 ‘닳지’는 ‘ㅎ’이 ‘ㅈ’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달치]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체크 |

①, ② ㉠의 ‘ㄹ’ 탈락과 ㉡의 ‘ㅎ’ 탈락은 모두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④ ㉠에 제시된 단어들은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14 '섰다'는 '서-+-었다'로 분석되며, 모음 'ㅓ'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한 것에 해당한다.

15 <보기>는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등용문'은 [등용문]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 '막일'은 [망닐], ② '한 일'은 [한닐], ③ '담요'는 [담:뇨], ⑤ '서른여섯'은 [서른녀섣]으로 발음되어 'ㄴ' 첨가가 나타난다.

16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분석되며, 두 말이 결합할 때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요'이므로 'ㄴ'이 첨가되고, 'ㅂ'이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영업뇽 → 영엄뇽]으로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⑤ '집안일'은 [지반닐], '식용유'는 [시굥뉴]로 발음되어 'ㄴ' 첨가만 일어난다.

②, ④ '꽃망울'은 [꼳망울 → 꼰망울], '툇마루'는 [퉫:마루 → 퉨:마루]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17 <보기>는 축약(거센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좋아'는 '좋-+-아'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조:아]로 발음된다. 따라서 '좋아'는 축약(거센소리되기)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 '맏형'은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텽]으로 발음된다.

② '꽃 한 송이'는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한송이]가 된 후,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탄송이]로 발음된다.

④ '잡화점'은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자퐈점]으로 발음된다.

⑤ '옳고'는 겹받침 'ㅀ'의 'ㅎ'이 'ㄱ'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올코]로 발음된다.

18 '급하다'는 'ㅎ'이 뒤에 오는 경우로, 예사소리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 오답 체크 |

① '좋고'는 [조:코], ② '닿고'는 [다:코], ③ '않던'은 [안턴], ④ '많지'는 [만:치]로 발음되며 모두 'ㅎ'이 앞에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19 '커서'는 [커서]로 발음되므로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은 '뛰어가자'가 [뛰여가자]로, ②는 '끼어'가 [끼여]로, ④는 '기어다닌다'가 [기여다닌다]로, ⑤는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므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다.

20 '듬직하다[듬지카다]'는 'ㄱ'과 'ㅎ'이 축약된 것이므로 ㉠과 ㉡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싫다'는 자음 'ㅎ'이 뒤의 'ㄷ'과 축약되어 [실타]로 발음되므로, ㉠과 ㉡에 해당된다.

② '울-+-는'은 'ㄹ'이 탈락하여 '우는'이 되므로, ㉢과 ㉣에 해당된다.

③ '크-+-어서'는 모음 'ㅡ'가 탈락하여 '커서'가 되므로, ㉢과 ㉤에 해당된다.

④ '가-+-았다'는 모음 'ㅏ'가 탈락하여 '갔다'가 되므로, ㉢과 ㉤에 해당된다.

21 ㉢ '논+일'은 자음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원래 없던 음운 'ㄴ'이 추가된 것이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 '칼+날'은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② ㉡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ㅎ'이 탈락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④ ㉣은 'ㅎ'이 뒤의 'ㅈ'과 결합하여 'ㅊ'으로 축약되고 있으므로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⑤ ㉤은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서술형 대비

22 '밤낮'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밤낟]으로 발음된다. '진리'는 유음화가 적용되어 [질리]로 발음된다. '콩엿'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콩녇]으로 발음된다. '낙하산'은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나카산]으로 발음된다. '흙길'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흑낄]로 발음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들어갈 발음과 음운 변동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7점
ⓐ~ⓔ에 들어갈 발음과 음운 변동 중 3~4개만 정확하게 쓴 경우	5점
ⓐ~ⓔ에 들어갈 말을 1~2개만 쓴 경우	3점

23 '바빠서'는 '바쁘-+-아서'가 결합한 경우로,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ㅡ'가 탈락한다. '나서서'는 '나서-+-어서'가 결합한 경우로, 모음 'ㅓ'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에 공통된 음운 변동 현상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쓴 경우	5점
두 단어에 공통된 음운 변동 현상을 〈조건〉에 맞게 썼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24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할 때 'ㅈ, ㅊ'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이다. ㉡과 같이 받침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거나, ㉢과 같은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7점
㉡과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만 쓴 경우	5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4~07 본문 106~107쪽

01 ⑤ **02** ② [❶ 첨가 ❷ 축약 ❸ 낮잠 ❹ 교체] **03** ① **04** ④ **05** ⑤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ㅁ, ㄴ, ㅇ ❷ ㄹ ❸ ㅈ, ㅊ ❹ 경제성] **06** ①

01 '넓히다[널피다]'는 'ㅂ'이 'ㅎ'과 결합하여 'ㅍ'으로 발음되는 축약만 일어난다.

| 오답 체크 |

① '맨입[맨닙]'은 '맨'과 '입' 사이에 'ㄴ'이 첨가되었다.

② '닭장[닥짱]'은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되고, 'ㅈ'이 'ㄱ' 뒤에서 'ㅉ'으로 교체되었다.

③ '집일[짐닐]'은 '집'과 '일'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ㅂ'이 'ㄴ' 앞에서 'ㅁ'으로 교체되었다.

④ '꽃향기[꼬턍기]'는 'ㅊ'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02 '학생 1'이 쓴 '솜이불[솜:니불]'에서는 'ㄴ' 첨가(이 → 니)가 일어나고, '학생 3'이 쓴 '밟히다[발피다]'에서는 'ㅂ'이 'ㅎ'과 합쳐져 축약(ㅂ + ㅎ → ㅍ)이 일어난다. 따라서 '학생 2'는 첨가와 축약을 제외하고 교체 또는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면 된다. '낮잠[낟짬]'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고, 'ㅈ'이 'ㄷ' 뒤에서 된소리 'ㅉ'으로 바뀌는 교체만 일어나므로 (○)

| 오답 체크 |

① '삯일[상닐]'에서는 탈락(자음군 단순화, ㄻ → ㄱ), 교체(비음화, ㄱ → ㅇ), 첨가('ㄴ' 첨가, 일 → 닐)가 일어나므로 (×)

③ '겉핥기[거탈끼]'에서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ㅌ → ㄷ), 교체(된소리되기, 기 → 끼), 탈락(자음군 단순화, ㄾ → ㄹ), 축약(거센소리되기, ㄷ + ㅎ → ㅌ)이 일어나므로 (×)

④ '늦여름[는녀름]'에서는 첨가('ㄴ' 첨가, 여 → 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ㅈ → ㄷ), 교체(비음화, ㄷ → ㄴ)가 일어나므로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자음군 단순화, ㄿ → ㅂ), 교체(된소리되기, ㅈ → ㅉ), 축약(거센소리되기, ㄱ + ㅎ → ㅋ)이 일어나므로 (×)

03 <보기>에서 ㉠에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모두 발생한 사례가, ㉡에는 비음화는 발생하지만 된소리되기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옷맵시[온맵씨]'는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받침 'ㅂ' 뒤에서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에 알맞다. '꽃말[꼰말]'은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알맞다.

| 오답 체크 |

② '덮개[덥깨]'는 비음화는 발생하지 않고 된소리되기(개 → 깨)는 발생하며, '묵념[뭉념]'은 비음화(묵 → 뭉)는 발생하고 된소리되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부엌문[부엉문]'과 '앞날[암날]'은 모두 비음화(엌 → 억 → 엉, 앞 → 압 → 암)가 발생하고 된소리되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광안리[광알리]'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둘 다 발생하지 않고, '권력가[궐력까]'는 비음화는 발생하지 않고 된소리되기(가 → 까)는 발생한다.

⑤ '귓속말[귇쏭말]'과 '습득물[습뜽물]'은 모두 비음화와 된소리되기(속 → 쏭, 득 → 뜽)가 둘 다 발생한다.

04 '색연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는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이 된 후,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이는 '잡일[잠닐]'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같다.

| 오답 체크 |

① '법학[버팍]'은 'ㅂ'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ㅂ + ㅎ → ㅍ)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담요[담:뇨]'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요 → 뇨)된다.

③ '국론[궁논]'은 'ㄹ'이 아닌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ㄹ'의 비음화(론 → 논)와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국 → 궁)가 나타난다.

⑤ '한여름[한녀름]'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여 → 녀)된다.

05 '옷 한 벌[오탄벌]'은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06 자음 체계표를 보면, a '밥물[밤물]'은 파열음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이고, b '신라[실라]'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의 예이다. 비음화와 유음화 모두 조음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c '굳이[구지]'는 끝소리 'ㄷ'이 접미사 'ㅣ' 앞에서 'ㅈ'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ㄷ'이 센입천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인 'ㅈ'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Ⅲ. 문장

개념 01 주성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11, 11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비도 08 학교에서 09 생략 10 아버지께서 11 아이들이 12 학생들은 13 생략 14 할아버지, ㉢ 15 강아지가, ㉠ 16 동생도, ㉡ 17 어머니께서, ㉠ 18 너, ㉢ 19 삼촌은, ㉡ 20 민지만, ㉡ 21 아름답다, ㉠ 22 가볍다, ㉠ 23 출발한다, ㉠ 24 소설책이다, ㉡ 25 도서관이다, ㉡ 26 정리했다, ㉠ 27 내렸다, 한 자리 28 영리했다, 한 자리 29 읽으셨다, 두 자리 30 아니다, 두 자리 31 주셨다, 세 자리 32 다르다, 두 자리 33 보냈다, 세 자리 34 대상 35 무엇을 36 보조사 37 보어 38 주성분 39 ○ 40 ○ 41 × 42 × 43 ○ 44 없음 45 모래성을 46 여행만 47 선물을 48 숙제 49 피아노도 50 없음 51 밥, ㉢ 52 수학도, ㉡ 53 공을, ㉠ 54 커피만, ㉡ 55 배드민턴, ㉢ 56 영화를, ㉠ 57 × 58 × 59 × 60 ○ 61 ○ 62 당번, ㉢ 63 나비가, ㉠ 64 학생이, ㉠ 65 정답은, ㉡ 66 가수만, ㉡ 67 싸움, ㉢

01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주성분이다.

03 주어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뿐 아니라 보조사가 결합하거나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04 주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05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다.

06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의 용언뿐 아니라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07 '비도'는 체언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의 주어이다.

08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09 '배고플 텐데', '먹었니'의 주체는 상대방인 '너'이지만 문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10 '아버지께서'는 체언에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11 '아이들이'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주어이다.

12 '학생들은'은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의 주어이다.

13 '피곤해서', '잠들었다'의 주체는 문맥상 '나'이지만 문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14 '할아버지'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로,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15 '강아지가'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의 주어이다.

16 '동생도'는 체언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의 주어이다.

17 '어머니께서'는 체언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결합한 형태의 주어이다.

18 '너'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로,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의미상 '너(가) 지금 밖에 나가고 싶구나.'가 된다.

19~20 보조사 '은'과 '만'이 결합된 형태의 주어이다.

21~22 '아름답다', '가볍다'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형태의 서술어이다.

23 '출발한다'는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동사 형태의 서술어이다.

24~25 '소설책이다', '도서관이다'는 체언 '소설책'과 '도서관'에 각각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의 서술어이다.

26 '정리했다'는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동사 형태의 서술어이다.

27 '내렸다'는 주어 '비가'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28 '영리했다'는 주어 '아이는'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29 '읽으셨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 '책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0 '아니다'는 주어 외에 보어 '장난꾸러기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1 '주셨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 '간식을'과 필수적 부사어 '우리에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32 '다르다'는 주어 외에 필수적 부사어 '그것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3 '보냈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 '생일 선물을'과 필수적 부사어 '친구에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37 '얼음이 물이 되었다.'에서 서술어는 '되었다'이며, '되었다' 앞의 '물이'는 보어에 해당한다. 반면 '얼음이'는 문장의 주어이다.

39 '나무를'은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목적어이다.

40 '농구'는 서술어 '좋아해'의 대상이 되는 말로,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목적어이다.

41 '강당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42 '선수는'은 서술어 '달렸다'의 주체에 해당하는 주어이다.

43 '이름조차'는 체언에 보조사 '조차'가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45 아이들이 쌓은 대상은 '모래성을'이다.

46 서술어 '기다린다'의 대상은 '여행만'으로, 체언에 보조사 '만'이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47 서술어 '주었다'의 대상이 되는 말은 '선물을'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48 '숙제'는 서술어 '했다'의 대상이 되는 말로,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이다.

49 서술어 '배운다'의 대상은 '피아노도'이다. '피아노도'는 체언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50 '의자에'는 부사어이고, 이 문장에 목적어는 없다.

51, 55 '밥'과 '배드민턴'은 각각 서술어 '먹자'와 '칠게요'의 대상이 되는 말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목적어이다.

52, 54 '수학도'와 '커피만'은 각각 서술어 '좋아한다'와 '마신다'의 대상이 되는 말로, 보조사 '도'와 '만'이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53, 56 '공을'과 '영화를'은 각각 서술어 '던졌다'와 '보고'의 대상이 되는 말로, 목적격 조사 '을'과 '를'이 결합한 형태의 목적어이다.

57 '키가'는 서술어 '컸다'의 주어이다.

58 '깔끔하게'는 서술어 '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59 '요금이'는 문장의 주어이다. 서술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만 원이'가 보어에 해당한다.

60 '사실이'는 서술어 '아니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61 '다섯 살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62 '당번'은 서술어 '아니야'가 요구하는 보어로, 보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63 '나비가'는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체언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이다.

64 '학생이'는 서술어 '아닙니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65 '정답은'은 서술어 '아니었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66 '가수만'은 '되겠다고 말했다' 중 '되겠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체언에 보조사 '만'이 결합한 형태이다.

67 '싸움'은 서술어 '되겠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보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개념 02 부속 성분, 독립 성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15쪽

01 × **02** ○ **03** ○ **04** ○ **05** × **06** 대학생인, 우리 **07** 소년의, 새로운 **08** 낯선, 건물의 **09** 한, 첫 **10** 우리의, ㉡ **11** 누나의, ㉡ **12** 읽던, ㉢ **13** 회장인, ㉣ **14** 온갖, ㉠ **15** 흐르는, ㉢ **16** 빨리도, ㉡ **17** 반갑게, ㉣ **18** 무척이나, ㉡ **19** 사람들에게, ㉢ **20** 공원에서, ㉢ **21** 천천히, ㉠ **22** ○ **23** × **24** ○ **25** × **26** 어머, ㉠ **27** 지훈아, ㉡ **28** 희망, ㉢ **29** 민지야, ㉡ **30** 아, ㉠

01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으로, 문장에서 필수 성분은 아니다.

04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 주는 것이 기본 기능이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05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06 '대학생인'은 체언 '대학생'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사형이 결합한 형태로 체언 '사촌'을 꾸며 준다. '우리'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로 체언 '집'을 꾸며 준다.

07 '소년의'는 체언 '소년'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체언 '눈'을 꾸며 준다. '새로운'은 형용사 '새롭다'의 관형사형으로 체언 '풍경'을 꾸며 준다.

08 '낯선'은 형용사 '낯설다'의 관형사형으로 체언 '사람'을 꾸며 준다. '건물의'는 체언 '건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체언 '상태'를 꾸며 준다.

09 '한'과 '첫'은 모두 관형사로 각각 뒤의 체언 '여행객'과 '기차'를 꾸며 준다.

10~15 '우리의'는 뒤의 체언 '약속'을, '누나의'는 '가방'을, '읽던'은 '책'을, '회장인'은 '언니'를, '온갖'은 '정성'을, '흐르는'은 '강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16 '빨리도'는 부사 '빨리'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전해졌다'를 꾸며 주고 있다.

17 '반갑게'는 형용사 '반갑다'에 어미 '-게'가 결합한 용언의 부사형으로, 서술어 '인사했다'를 꾸며 주고 있다.

18 '무척이나'는 부사 '무척'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아름다웠다'를 꾸며 주고 있다.

19 '사람들에게'는 체언 '사람들'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주었다'를 꾸며 주고 있다.

20 '공원에서'는 체언 '공원'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먹었다'를 꾸며 주고 있다.

21 '천천히'는 부사로 서술어 '걸어갔다'를 꾸며 주고 있다.

22 서술어 '다르다'는 주어 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예전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23 '즐겁게'는 서술어 '불렀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해도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문장의 의미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24 서술어 '보내 드린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모님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25 '도서관에서'는 서술어 '공부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해도 '나는 공부했다.'라는 문장의 의미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26, 30 '어머'와 '아'는 감탄사가 독립어가 된 것이다.

27, 29 '지훈아'는 체언 '지훈'에 호격 조사 '아'가, '민지야'는 체언 '민지'에 호격 조사 '야'가 결합한 형태의 독립어이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1~02 본문 116~117쪽

01 (1) × (2) ○ (3) × (4) ○ (5) × **02** (1) × (2) ○ (3) ○ (4) × (5) × (6) ○ (7) × **03** (1) 주 (2) 보 (3) 보 (4) 보 (5) 주 (6) 보 **04** (1) 꽃 / 관형어 (2) 합격할까 / 부사어 (3) 주었다 / 부사어 (4) 학교 / 관형어 (5) 소설 / 관형어 (6) 입어라 / 부사어 **05** (1) ㉢ (2) ㉠ (3) ㉡ (4) ㉣ (5) ㉡ (6) ㉣ **06** (1) 눈앞에 (2) 누군가에게 (3) 목적지에 (4) 우리에게 (5) 영철이와 **07** (1) 공원은, 자랑거리가, 되었다 / 저, 마을의 (2) 동생은, 고양이를, 돌본다 / 내, 매일, 정성껏 (3) 목표는, 도전하기이다 / 나의, 새로운, 분야에 (4) 민수는, 내용을, 기록했다 / 배운, 공책에, 꼼꼼하게 **08** (1) 국물을 (2) 시골로 (3) 송아지들을, 우리에 (4) 그를, 회장으로 (5) 불량품을, 새것으로 **09** (1) 독립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2)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3) 부사어, 주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4) 주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5) 독립어, 주어, 관형어, 보어, 서술어

01 (1) 주어와 목적어는 모두 체언에 격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2) 보어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주어 외에 요구되는 주성분으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준다.
(3)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5)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02 (1) '굉장히'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2) '하늘이'는 주어이므로 문장에 필수적인 주성분이다.
(3) '편지를'은 목적어이므로 문장에 필수적인 주성분이다.
(4) '에구'는 독립어이므로 독립 성분이다.
(5) '공원에서'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6) '과학자가'는 보어이므로 문장에 필수적인 주성분이다.
(7) '시골의'는 관형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03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은 주어이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의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은 보어이다.

04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어,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어이다.

05 (1) '매우'는 부사어 '잘'을 꾸며 주므로 ㉢에 해당한다.
(2) '단정히'는 용언인 동사 '입었다'를 꾸며 주므로 ㉠에 해당한다.
(3) '진짜'는 관형어 '최고의'를 꾸며 주므로 ㉡에 해당한다.
(4), (6) '다행히'와 '과연'은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5) '거의'는 관형어 '모든'을 꾸며 주므로 ㉡에 해당한다.

한걸음 더

부사어가 수식하는 말

- 부사어는 주로 용언(서술어)을 꾸며 주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기도 함. 이처럼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것을 성분 부사어라고 함.
-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설마, 과연, 확실히' 등과 같은 문장 부사어는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심리적 태도를 나타냄. 또한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어는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함.

06 (1) '눈앞에'는 두 자리 서술어인 '있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2) '누군가에게'는 두 자리 서술어인 '줓기고'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3) '목적지에'는 두 자리 서술어인 '도착하였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4) '우리에게'는 세 자리 서술어인 '시키신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5) '영철이와'는 세 자리 서술어인 '비교한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07 (1) '공원은'은 주어, '자랑거리가'는 보어, '되었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이고, '저'와 '마을의'는 관형어이므로 부

속 성분이다.
(2) '동생은'은 주어, '고양이를'은 목적어, '돌본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이고, '내'는 관형어, '매일'과 '정성껏'은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3) '목표는'은 주어, '도전하기이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이고, '나의'와 '새로운'은 관형어, '분야에'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4) '민수는'은 주어, '내용을'은 목적어, '기록했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이고, '배운'은 관형어, '공책에'와 '꼼꼼하게'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08 (1) '마셨다'는 '~을 마시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2) '떠났다'는 '~으로 떠나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 '가두었다'는 '~을 ~에 가두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4) '선출하였다'는 '~을 ~으로 선출하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5) '바꾸었다'는 '~을 ~으로 바꾸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119쪽

01 (1) ① 주어 ② 목적어 (2) ① 목적어 ② 주어 (3) ① 목적어 ② 주어 (4) ① 주어 ② 목적어 **02** (1) 모든, ㉠ (2) 무슨, ㉠ (3) 빛나는, ㉡ (4) 오래된, ㉡ (5) 행복한, ㉡ (6) 각, ㉠ **03** (1) ㉠ (2) ㉠ (3) ㉡ (4) ㉢ (5) ㉡ (6) ㉢

01 (1) ① '윤후만'은 '발표했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고, ② '발표만'은 '했다'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2) ① '비밀마저'는 '털어놓았다'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고, ② '누나마저'는 '떠났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3) ① '책은'은 '읽었다'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고, ② '책은'은 '있을 것이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4) ① '삼촌도'는 '갔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고, ② '여행도'는 '계획하고 있다'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02 (1) '모든'은 '참가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원래 품사가 관형사이다.
(2) '무슨'은 '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원래 품사가 관형사이다.
(3) '빛나는'은 '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동사 어간 '빛나-'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4) '오래된'은 '책상'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형용사 어간 '오래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5) '행복한'은 '시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형용사 어간 '행복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6) '각'은 '국가'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원래 품사가 관형사이다.

03 (1) '잠잤다'는 '~이/가 잠자다'의 형태로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2) '끝났다'는 '~이/가 끝나다'의 형태로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3) '지켰다'는 '~이/가 ~을 지키다'의 형태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 '나누었다'는 '~이/가 ~을 ~으로 나누다'의 형태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5) '이해했다'는 '~이/가 ~을 이해하다'의 형태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6) '추천했다'는 '~이/가 ~을 ~으로 추천하다'의 형태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1~02 본문 120~123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②, ③ **08** ④ **09** ① **10** ④ **11** ④ **12** ① **13** ④ **14** ③ **15** ① **16** ④ **17** ④ **18** ⑤ **19** ③ **20** ② **21** ④ **22** ④ **23** (1) 너는, 피아노를, 치는구나 (2) 아주, 잘 (3) 우아 **24** 부사어 **25** (1) ㉠은 관형어, ㉡은 부사어로, 둘 다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이다. (2) 관형어인 ㉠은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어인 ㉡은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26**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외에 '~을 ~으로 삼다'의 형태로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필수적 부사어가 빠져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으로'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다.

01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은 목적어로, 주성분에 속한다(ㄴ). 단어를 문법적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는 '품사'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에 따라 문장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개념이다(ㄷ). 따라서 적절한 설명은 ㄱ과 ㄹ이다.

02 ②의 '잘못이'는 서술어 '아니다' 앞에서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이고, 나머지는 주어이다.

| 오답 체크 |
④ '복숭아와 사과는'에서 '와'는 접속 조사로 '복숭아는 과일이다.'와 '사과는 과일이다.'의 두 문장이 접속 조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주어에 해당한다.

03 ④의 '다가왔다'는 동사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04 ⑤는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오답 체크 |
① 주어+부사어+관형어+보어+서술어
②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③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④ 관형어+주어+보어+서술어

05 ②의 '눈도', '코도'는 서술어 '예쁘다'의 주어가 되는 문장 성분이며, 이 문장에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체크 |
① '과일', ③ '그림도', ④ '전화기까지', ⑤ '잠만'이 각각 목적어이다.

06 ㉢은 '주어+부사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세차게'는 부사어로 주성분이 아니고 부속 성분이다.

07 ㉡은 관형어로 체언인 '동생'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또한 ㉢은 서술어 ㉤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 오답 체크 |
① ㉠은 주어로, 서술어인 ㉤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④ ㉣은 ㉤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⑤ ㉤은 세 자리 서술어로, 주어 외에 '~에게 ~을'이라는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08 ㉠~㉢은 모두 보어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④ 서술어가 의미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주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은 모두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③ ㉠~㉢은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나타나는 보어이다.
⑤ ㉡은 주어 외에 서술어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무엇이'에 해당한다.

09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①의 '힘없이'는 용언인 '쓰러졌다'를 꾸며 주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10 ④의 '재미있는'은 뒤에 오는 체언 '운동'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오답 체크 |
① '제발'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② '활짝'은 용언 '피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③ '동물원에서'는 용언 '보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⑤ '그러나'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이다.

11 관형어는 체언 앞에 놓여 그 체언을 꾸며 준다. ④는 용언 앞에 빈칸이 있으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12 ㉠ '소란하던'은 뒤에 오는 체언 '아이들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그쳤다', ③ '앉아', ④ '비추자', ⑤ '좋아졌다'를 각각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3 ④의 '매우'는 다른 부사어인 '멀리'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체크 |
① '과연'은 '민재는 모범생이구나.'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② '맛있게'는 '만들었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③ '가게에서'는 '샀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⑤ '운동장에서'는 '놀았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14 ㉠은 관형어, ㉡은 부사어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고, ㉠은 관형사, ㉡은 부사로 품사도 서로 다르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16 ④에서 '깨끗이'는 '청소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7 ④의 '학교에서'는 축제를 개최한 주체가 되므로 주어이다. '학교'와 같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은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18 ⑤에서 '셋이'와 '할머니만'은 모두 주어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나'는 목적어이고, '어머니'는 주어이다.
② '동생은'은 주어이고, '나비가'는 보어이다.
③ '왕이다'는 서술어이고, '예쁘게'는 부사어이다.
④ '가방에'는 부사어이고, '선물을'은 목적어이다.

19 '자세히'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얘기할게'라는 용언인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20 ②에서 '집으로, 어서, 빨리'는 모두 부사어로, 3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나머지 문장에는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 오답 체크 |
① '하얀'은 관형어이고, '참'은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③ '저기에'는 부사어이고, '작은'은 관형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④ '매우'와 '높이'는 모두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⑤ '하지만'과 '아직'은 모두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21 ㉢은 이어서 나오는 '그는 창의적인 사람이야.'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오답 체크 |

② ㉡은 관형어, ㉢은 부사어로, 둘 다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③ ㉡은 체언 '너'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 역할을 한다.
⑤ ㉣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22 서술어 '되었다'의 주어는 '철수가'이고, '반장이'는 서술어 '되었다'를 보충해 주는 보어이다.

서술형 대비

23 주성분은 '너는(주어), 피아노를(목적어), 치는구나(서술어)'이고, 부속 성분은 '아주(부사어), 잘(부사어)', 독립 성분은 '우아(독립어)'이다.

채점 기준	배점
(1), (2), (3)을 모두 바르게 분류하여 쓴 경우	4점
(1), (2), (3) 중 잘못 쓴 항목이 있는 경우마다	−1점

24 <보기>의 빈칸에는 용언 '말할게', '기다렸는데'를 꾸며 주는 말,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 주고,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25 (1) ㉠은 체언 '장미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 ㉡은 용언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둘 다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이다.
(2) 관형어인 ㉠은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어인 ㉡은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1)과 (2) 둘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26 서술어 '삼았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의 뜻을 가진 말로, 주어 외에 '~을 ~으로 삼다'의 형태로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문장에서 목적어만 있고 '~으로'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언급하며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와, 필요한 문장 성분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와 필요한 문장 성분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1~02 본문 124~125쪽

01 ① **02** ④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전성 ❷ 격조사 ❸ 의존 ❹ 서술어] **03** ⑤ [❶ 하지 않는 ❷ 명사 ❸ 권 ❹ 하지 않으므로 ❺ 보배 ❻ 의존 명사 ❼ 부사어]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서술어 ❷ 문형 ❸ 문장 성분] **04** ⑤

01 '산책을'은 체언 '산책'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② '이사도'는 체언 '이사'에 '역시'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도'가 붙은 경우로 ㄱ에 해당한다.
③ '꽃구경'은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
④ '배낭여행'은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
⑤ '한길만을'은 체언 '한길'에 '단독'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만'과 목적격 조사 '을'이 함께 쓰인 경우로 ㄷ에 해당한다.

02 ㄹ에서 관형사 '헌'은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명사 '겨울'도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오답 체크 |

③ ㄷ의 용언 '흐르는'은 어간 '흐르-'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물'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⑤ ㅁ의 명사 '옆'은 체언 '반'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옆 반'은 '옆'과 '반'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체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03 ⑤의 '노력한'은 의존 명사 '만큼'을 수식하는 관형어이고, '취미로'는 서술어 '삼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에 해당하므로 (○)

| 오답 체크 |

① '작은'은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에 해당하지만, '회장으로'는 서술어 '주재하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② '그'가 수식하는 '집'은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고, '진짜와'는 서술어 '똑같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로 ㉡에 해당하므로 (×)
③ '한'은 의존 명사 '권'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에 해당하지만, '마당에서'는 서술어 '뛰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④ '나라의'가 수식하는 '보배'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고, '바닥에'는 서술어 '놓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므로 (×)

04 ⑤ '그는 십 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에 쓰인 '풀다'는 Ⅰ-「1」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문형 정보는 '【…을】'로 표시된다.

| 오답 체크 |

① 2-「1」의 문형 정보로 '【…에 …을】'이 제시되었으므로 부사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고 하였으므로, 문형 정보에 주어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주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③ ㉠-「1」의 문형 정보는 '【…을】'로 표시되었고, ㉡-「1」의 문형 정보는 '【…에 …을】'로 표시되었으므로 둘 다 목적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④ ㉠-「1」과 ㉠-「5」의 문형 정보는 '【…을】'로 표시되었으므로 둘 다 필수적 문장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로 2개임을 알 수 있다.

개념 03 이어진문장

개념 트레이닝 본문 127쪽

01 이어진 02 연결 어미 03 대등하게 04 종속적으로 05 ○ 06 × 07 ○ 08 × 09 ○ 10 ○ 11 선택 12 나열 13 대조 14 선택 15 대조 16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05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6 주어('미수는')와 서술어('읽었다')가 한 번씩만 나타난 홑문장이다.

07 연결 어미 '-거나'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8 주어('할머니께서는')와 서술어('주신다')가 한 번씩만 나타난 홑문장이다.

09~10 연결 어미 '-고',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11, 14 연결 어미 '-거나', '-든지'로 연결되어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12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되어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13, 15 '-(으)나'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16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이유·원인, 조건, 의도·목적, 양보, 배경·상황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다. 또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 '-러' → 의도·목적, ㉢ '-ㄴ데' → 배경·상황, ㉣ '-어서' → 이유·원인, ㉤ '-더라도' → 양보, ㉥ '-(으)면' →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 문장이다. 반면 ㉠,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17 '-어야'→ 조건의 의미 관계이다.

18~19 '-니', '-아서' →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이다.

20, 22 '-러', '-(으)려고' →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이다.

21 '-더라도' → 양보의 의미 관계이다.

23 '-는데' → 배경·상황의 의미 관계이다.

개념 04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개념 트레이닝 본문 129, 131쪽

01 × 02 ○ 03 × 04 × 05 ○ 06 봄이 성큼 다가왔음, -(으)ㅁ 07 아침을 먹기, -기 08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기 09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으)ㅁ 10 눈이 오기, -기 11 아이들이 놀기, 부사어 12 아침 일찍 일어나기, 주어 13 그가 새 작품을 발표하기, 목적어 14 용의자가 현장을 빠져나갔음, 목적어 15 혼자 일을 빨리 끝내기, 부사어 16 비행기가 예정대로 출발했음, 주어 17 몸에 좋은, ㉠ 18 우리가 즐겨 먹는, ㉡ 19 향기가 좋은, ㉠ 20 우리가 내일 볼, ㉢ 21 나와 무척 친했던, ㉣ 22 성재가 선물한 → 꽃 23 청바지를 입은 → 남자 24 우리가 돌아왔다는 → 사실 25 내일 탐험할 → 동굴 26 굽이굽이 흐르는 → 강물 27 예전에 즐겨 읽던 → 소설 28 용언 29 서술절 30 주어, 주어 31 고 32 눈물이 나도록 → -도록, 웃었다 33 소리도 없이 → -이, 다가왔다 34 게 눈 감추듯이 → -듯이, 먹었다 35 땀이 뻘뻘 나도록 → -도록, 달렸다 36 눈이 부시게 → -게, 아름다웠다 37 동작이 재빠르다 38 선후배 사이가 좋다 39 책임감이 아주 강하다 40 입구가 매우 혼잡하다 41 마음씨가 참 곱다 42 손재주가 뛰어나다 / 민지는, 손재주가 43 이파리가 싱싱하다 / 나무들은, 이파리가 44 밑반찬이 아주 맛있다 / 이곳은, 밑반찬이 45 목소리가 무척 매력적이다 / 지수는, 목소리가 46 사진이 잘 나왔다고 / 간 47 "다음에 보자."라고 / 직 48 "내 동생은 착해."라고 / 직 49 오늘이 며칠이냐고 / 간

01 다른 문장을 절의 형태로 안고 있는 겹문장은 안은문장이고, 안긴문장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

03 명사절은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달라진다.

04 관형절은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5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으로 과거, '-는'으로 현재, '-(으)ㄹ'로 미래의 시간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06~10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ㅁ', '-기' 등이 붙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11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12 주격 조사 '가'가 붙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13~14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15 부사격 조사 '보다'가 붙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16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17~21 관형절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각각 뒤에 오는 체언 '약', '과일', '꽃', '영화', '친구'를 꾸며 주고 있다.

31 간접 인용절은 조사 '고'를, 직접 인용절에서는 '(이)라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을 인용한다.

32~36 부사절은 '-게', '-도록', '-듯이', '-이'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37~41 서술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다른 절과 달리 서술절을 표시하는 특별한 어미나 조사가 없다.

42~45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에서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각각 나타나며, 전체 문장의 주어가 서술절의 서술어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

46~49 간접 인용절은 조사 '고'를 사용하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직접 인용절은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고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3~04 본문 132~135쪽

01 (1) ○ (2) × (3) × (4) ○ (5) ○ (6) × **02** (1) 함박눈이 산길을 온통 덮었다. → 1번 (2) 형은 영화를 보고 나는 집으로 갔다. → 2번 (3) 어제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다. → 1번 (4) 알람이 울리자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2번 (5) 고양이가 창가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잔다. → 1번 (6) 비가 많이 내렸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 2번 **03** (1) 새싹이 / 돋아났다 → 홑 (2) 비가, 햇살이 / 그치자, 비추었다 → 겹 (3) 학생들이 / 한다 → 홑 (4) 해가, 불빛이 / 지고, 켜졌다 → 겹 (5) 민주는 / 끝내서, 들었다 → 겹 (6) 선생님께서 / 설명하셨다 → 홑 **04** (1) 가든지(거나) (2) 대학생이고(이지만/이나) (3) 배구공이고(이며) (4) 쳤고(지만/으나) (5) 좋지만(으나) **05** (1) ㉠ (2) ㉠ (3) ㉢ (4) ㉡ (5) ㉡ (6) ㉢ **06** (1) ○ (2) ○ (3) × (4) ○ (5) ○ (6) ○ (7) × **07** (1) ㉢ (2) ㉠ (3) ㉠ (4) ㉣ (5) ㉡ (6) ㉤ **08** (1) ㉤, ㉥, ㉦ (2) ㉠, ㉡, ㉧, ㉨ (3) ㉢, ㉣, ㉦ **0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 서술어, 서술절 (2) -게, 부사절, 뛰었다 (3) 이유·원인, 주어 (4) 나열, 대등하게 (5) 관형절, 모습 (6) -기, 명사절, 목적어 (7) 고, 간접 **11** (1) 사실 / 관형절 (2) 식당 / 관형절 (3) 돌보았다 / 부사절 (4) 말했다 / 부사절 (5) 소식 / 관형절 **12** (1) 네가 솔직하기 → ㉠ (2) 새가 날아가는 → ㉣ (3) 그림이 아름답게 → ㉧ (4) 다리가 풀리도록 → ㉨ (5) 우리가 어제 한 → ㉢ (6) 그가 대학에 합격했음 → ㉡ (7)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 ㉥ **13** (1) 공기가 아주 맑다 → ㉣ (2) 촉감이 무척 부드럽다 → ㉣ (3) 말도 없이 → ㉢ (4) 해가 떠오르는 → ㉡ (5) 배가 부르도록 → ㉢ (6) 그가 곧 떠난다는 → ㉡ (7)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 ㉤ (8) 목이 쉬도록 → ㉢ (9) "금방 돌아올게."라고 → ㉤ (10) 오빠가 자주 듣던 → ㉡ (11)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 ㉤ (12) 눈사람을 만들기 → ㉠ **14** (1) 그가 거기에 있음 → 주어, 명사절 (2) 밤이 새도록 → 부사어, 부사절 (3) 강을 건너기 → 부사어, 명사절 (4)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 → 서술어, 서술절 (5) 내일 읽을 → 관형어, 관형절 (6) 향기가 좋은 → 관형어, 관형절 (7)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었음 → 목적어, 명사절 **15** (1) ㉥, ㉦ (2) ㉨, ㉩ (3) ㉦, ㉧ (4) ㉢, ㉣ (5) ㉣, ㉦ (6) ㉠, ㉡ (7) ㉤, ㉠

01 (2) '-거든'은 조건, '-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 연결 어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드는 연결 어미이다.
(3)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서술어가 같더라도 서술어를 생략할 수 없다.
(6)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에서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각각 나타난다.

02~03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찾고, 그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설명하는 서술어를 모두 찾는다. '주어 + 서술어'의 관계가 1번만 나타나면 홑문장, 2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다.

04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만들 때에는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중 두 홑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결합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의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05 (1)~(2) 연결 어미 '-며', '-고'를 사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3), (6) 연결 어미 '-든지', '-거나'를 사용하여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4)~(5) 연결 어미 '-지만', '-(으)나'를 사용하여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06 (1)~(2)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4) 배경·상황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5) 양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6)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7) 선택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7 (1) '-려고'의 연결 어미로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2)~(3) '-어서', '-니'의 연결 어미로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4) '-더라도'의 연결 어미로 양보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5) '-면'의 연결 어미로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6) '-(으)ㄴ데'의 연결 어미로 배경·상황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08 (1) ㉤, ㉥,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2) ㉠ 나열, ㉡ 대조, ㉧ 대조, ㉨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3) ㉢ 이유·원인, ㉣ 의도·목적, ㉤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9 (1)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2)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5)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6)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7)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8)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9)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10 (1) '그림이 많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2) '발에 땀이 나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절이 되어, 용언인 '뛰었다'를 꾸며 준다.
(3) '나는 늦잠을 잤다.'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가 연결된 문장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는 앞 절이 뒤 절의 이유·원인이 됨을 나타내고, 주어 '나는'이 중복되어 뒤 절에서 생략되었다.
(4)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5) 안긴문장은 '아기가 웃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로, 뒤에 오는 체언인 '모습'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6) 안긴문장은 '동생이 일찍 도착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로,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기다렸다'의 목적어 기능을 한다.
(7) 안긴문장은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절이다.

11 (1) '모기가 날아온'은 체언 '사실'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2) '우리가 자주 가던'은 체언 '식당'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3) '길고양이가 잘 자라도록'은 용언 '돌보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4) '교실이 떠나가게'는 용언 '말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5) '김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는'은 체언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12 (1) '네가 솔직하기'의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2) '새가 날아가는'의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3) '그림이 아름답게'의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 '다리가 풀리도록'의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5) '우리가 어제 한'의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6) '그가 대학에 합격했음'의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7) '도서관에서 공부하던'의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3 (1) 안긴문장 '공기가 아주 맑다'는 주어 '동네는'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절이다.
(2) 안긴문장 '촉감이 무척 부드럽다'는 주어 '옷감은'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절이다.
(3) 안긴문장 '말도 없이'는 '-이'가 결합하여 용언 '감추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4) 안긴문장 '해가 떠오르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장면'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5) 안긴문장 '배가 부르도록'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용언 '먹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6) 안긴문장 '그가 곧 떠난다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7) 안긴문장 '일정이 취소되었다고'는 조사 '고'가 결합한 간접 인용절이다.
(8) 안긴문장 '목이 쉬도록'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용언 '응원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9) 안긴문장 '"금방 돌아올게."라고'는 조사 '라고'가 결합한 직접 인용절이다.
(10) 안긴문장 '오빠가 자주 듣던'은 '오빠가 (노래를) 자주 듣다'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하여 체언 '노래'를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11) 안긴문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조사 '고'가 결합한 간접 인용절이다.
(12) 안긴문장 '눈사람을 만들기'는 '눈사람을 만들다'에 명사형 어미 '-기'와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14 (1) '그가 거기에 있음'은 '그가 거기에 있다'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한 명사절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한다.
(2) '밤이 새도록'은 '밤이 새다'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한 부사절로, 용언인 '이야기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3) '강을 건너기'는 '강을 건너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 역할을 한다.
(4)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서술절로 안은문장의 주어인 '학생은'의 성질을 설명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5) '내일 읽을'은 '내일 (책을) 읽다'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관형절로, 체언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6) '향기가 좋은'은 '향기가 좋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

ㄴ’이 결합한 관형절로, 체언인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7)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었음’은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었다’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한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한다.

15 (1) ㉤ 연결 어미 ‘-거나’가 결합하여 선택의 의미 관계로, ㉷ 연결 어미 ‘-지만’이 결합하여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2) ㉮ 연결 어미 ‘-려고’가 결합하여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로, ㉲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하여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 ‘날씨가 맑아졌음’은 명사형 어미 ‘-(으)ㅁ’이, ㉥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므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 ㉣ ‘옛날에 자주 듣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 ‘꽃이 피어나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이므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5) ㉢ ‘배가 아프도록’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부사절이므로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6) ㉠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 ‘외관이 무척 독특하다’는 안은문장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절이므로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7) ㉪ “‘우리 같이 놀러가자.”라고’는 직접 인용절, ㉫ ‘끝까지 집중하라고’는 간접 인용절이므로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137쪽

01 (1) 보어 (2) 안긴문장의 주어 (3) 안긴문장의 주어 (4) 보어 (5) 보어 (6) 안긴문장의 주어 **02** (1) 밖에서 운동하기 → -기, 에, 부사어 (2)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 -기, 이다, 서술어 (3)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 → -(으)ㅁ, 을, 목적어 (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 -기, 가, 주어 **03** (1) ① 주어 ② 목적어 (2) ① 서술어 ② 목적어 (3) ① 주어 ② 부사어

01 (1) 서술어가 ‘아니다’이므로 ‘반장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고, 이 문장은 홑문장이다.
(2) ‘차분하다’와 짝을 이루는 성분은 ‘성격이’이다. 따라서 ‘성격이 차분하다’는 서술절이며, ‘누나는’은 안은문장의 주어, ‘성격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이다.
(3) ‘복슬복슬하다’와 짝을 이루는 성분은 ‘털이’이다. 따라서 ‘털이 복슬복슬하다’는 서술절이며, ‘강아지는’은 안은문장의 주어, ‘털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이다.
(4) 서술어가 ‘아니다’이므로 ‘사실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고, 이 문장은 홑문장이다.
(5) 서술어가 ‘되었다’이므로 ‘회장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고, 이 문장은 홑문장이다.
(6) ‘예쁘다’와 짝을 이루는 성분은 ‘색깔이’이다. 따라서 ‘색깔이 매우 예쁘다’는 서술절이며, ‘옷은’은 안은문장의 주어, ‘색깔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이다.

02 (1) ‘밖에서 운동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덥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2)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3)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지적하셨다’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03 (1) 안긴문장 ‘영호네 팀이 우승했음’이 ①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주어, ②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2) 안긴문장 ‘자료 조사하기’가 ①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 ②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3) 안긴문장 ‘무거운 짐을 옮기기’가 ①에서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주어, ②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3~04 본문 138~14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④ **14** ④ **15** ③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② **22** (1) 신발이 눈에 젖어서(젖으니) 얼었다. (2) 눈에 젖은 신발이 얼었다. **23** ⓐ 편지가 이미 도착했음 ⓑ 이미 도착한 ⓒ 편지가 이미 도착했다고 / “편지가 이미 도착했어요.”라고 **24** (1) 선생님께서 “오늘 대청소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2) 선생님께서 오늘 대청소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01 이어진문장은 겹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ㄱ).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ㄷ). 따라서 적절한 설명은 ㄴ과 ㄹ이다.

02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ㄱ(하늘이 + 예뻐), ㄴ(무지개가 + 떴다), ㄹ(국화가 + 피었다), ㅂ(아이들이 + 날린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오답 체크 |

ㄷ. '덩치가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ㅁ. '밖에 눈이 온다'에 조사가 결합한 '밖에 눈이 온다고'의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3 ②는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③, ⑤ 나열, ④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4 ② <보기> 문장은 앞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5 ㉡ 선택, ㉢ 대조, ㉣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체크 |

㉠ 이유·원인, ㉤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6 <보기>에서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이루어진 문장은 이어진문장이고, 이어진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또한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은 '-(으)면, 거든, -아야/-어야'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기>를 모두 만족하는 문장은 ③이다.

| 오답 체크 |

①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④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선택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7 ②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사러, 갔다)가 두 번 나타난다.

| 오답 체크 |

① ㉠은 앞 절이 뒤 절의 의도·목적을 나타낸다.

③ ㉡은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의 앞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

④ ㉡은 두 홑문장의 주어가 각각 '나는'과 '동생은'으로 달라서 생략되지 않았다.

⑤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고,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둘 다 이어진문장이다.

08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의도·목적, ② 조건, ③ 조건, ④ 양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9 ④ 종속적 연결 어미 '-면'이 결합하여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이유·원인, ② 양보, ③, ⑤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

10 <보기>의 '-어서'와 ④에 쓰인 '-(으)니'는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 오답 체크 |

① 조건, ② 양보, ③ 의도·목적, ⑤ 조건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

11 ②의 두 홑문장을 결합하면 '비가 내려서 길이 질퍽질퍽하다.'와 같이 이유·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 된다.

| 오답 체크 |

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③ '나는 버스를 탔고(탔지만), 동생은 택시를 탔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토끼는 낮잠을 잤지만(잤고), 거북이는 부지런히 기어갔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민경이는 운동을 좋아하고(좋아하지만), 민철이는 음악을 좋아한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12 ㉤은 '신은 존재한다고'라는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④ ㉣은 홑문장이다.

②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지만,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③ '입이 뾰족한'은 관형절로 '고양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13 <보기>는 '동생이 태어난'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의 '내가 졸업한' 역시 관형절로 체언 '학교'를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 오답 체크 |

① '성격이 매우 좋다'는 서술절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② '꽃이 화려하게'는 부사절로, 용언 '장식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③ '집에 누가 있느냐고'는 간접 인용절이다.

⑤ '그가 실험에 성공했음'은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한다.

14 <보기>는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도왔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② '아무도 모르게'가 부사어 역할을 한다.

③, ⑤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15 ③은 '숨이 차게'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는 '밥을 먹기'의 명사절을 가진 안

은문장, ④는 홑문장, ⑤는 '그가 입원했다는'의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6 ⑤의 '학교에 가기'는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오답 체크 |

① '너를 보기', ② '그가 우리를 속였음'은 주어의 역할, ③ '비가 오기', ④ '그가 옳았음'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17 ④ ㉠에서 '두 볼에 흐르는'의 주어는 '눈물이'로, 관형절이 꾸며 주는 체언(눈물)과 동일한 문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 오답 체크 |

①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의 밑줄 친 부분은 뒤의 체언 '눈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③ ㉡의 밑줄 친 부분은 뒤의 용언 '계속하였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⑤ ㉡에서 안긴문장의 주어는 '밤이'이고, 안은문장의 전체 주어는 '우리는'이므로 주어가 서로 다르다.

18 ② ⓐ는 '다리가 무척 튼튼하다'의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는 '돈도 없이'의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는 '내가 제일 예쁘다고'의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9 ㉠은 '글씨가 너무 작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의 안긴문장은 간접 인용절이다.
⑤ '고'라는 조사가 결합되었다.

20 ⑤는 <보기>의 조건에 맞게 '우유를 마신'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안긴문장에 '아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오답 체크 |

① '내가 읽은'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지만, 안긴문장의 주어 '내가'가 생략되지 않았다.
② '말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그들이 결승전에 오르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그가 범인이라는'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지만, 안긴문장의 주어 '그가'가 생략되지 않았다.

21 ② ⓑ는 인용절이 아니라 뒤의 체언 '예보'를 꾸며 주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오답 체크 |

①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뒤의 체언 '거리'를 꾸며 주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④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한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⑤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로, 체언 '들판'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술형 대비

22 (1) <보기>의 앞 문장은 뒤 문장의 이유·원인을 설명하는 경우이므로 '-어서', '-으니'와 같은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2) <조건>에 따라 안은문장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보기>의 뒤 문장 앞에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어가 앞에 오도록 앞 문장을 관형절로 바꾸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를 모두 바르게 적은 경우	4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적은 경우	2점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은 맞으나, 어색하게 연결한 경우	각 −1점

23 ⓐ를 명사절로 만들기 위해 명사형 어미 '-(으)ㅁ'을 붙인다. ⓑ '편지'를 꾸며 주는 관형절을 만들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인다. ⓒ 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붙여 직접 인용절을 만들거나 조사 '고'를 붙여 간접 인용절을 만든다.

채점 기준	배점
ⓐ, ⓑ, ⓒ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6점
ⓐ, ⓑ, ⓒ 중 두 가지만 맞게 쓴 경우	4점
ⓐ, ⓑ, ⓒ 중 한 가지만 맞게 쓴 경우	2점
불필요한 단어를 첨가, 변형, 생략한 경우	각 −1점

24 직접 인용절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이)라고'가 결합한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조사 '고'가 결합한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를 모두 바르게 적은 경우	4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적은 경우	2점
직접 인용절에서 큰따옴표가 없거나, 조사를 잘못 쓴 경우	각 −1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3~04 본문 142~143쪽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서술어 ❷ 안긴 ❸ 안은 ❹ 연결 ❺ 대등] 01 ② 02 ⑤ 03 ④ 04 ④ 05 ② [❶ 내가 ❷ 딸이 ❸ 이어진 ❹ 홑문장 ❺ 주어]

01 ㉡은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서술어 '알리며'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02 ⑤는 '갑자기 문이 열리다.'와 '사람들이 놀랐다.'가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지며, '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무쇠도 갈다.'와 '바늘이 된다.'가 연결 어미 '-면'으로 이어지며,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하늘도 맑다.'와 '바람도 잠잠하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지며,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③ '나는 시험공부를 하다.'와 '(나는) 학교에 간다.'가 연결 어미 '-러'로 이어지며, '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함박눈이 내렸다.'와 '날씨가 따뜻하다.'가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지며,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3 ㉣은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체크 |

① ㉠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은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서술절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은 '그가 우리를 도와 준'이 관형절로, 안은문장에서 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은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4 ⓐ의 안긴문장 '소리도 없이'는 용언 '나갔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의 안긴문장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은 체언 '수박'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오답 체크 |

① ⓐ에서는 '소리도'가 안긴문장의 주어이다.

② ⓑ에서 안긴문장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③ ⓒ의 안긴문장에는 '사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시장에서'가 있지만,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없다.

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고,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인 '수박을'이 생략되어 있다.

05 ②에서 관형사절은 '운동하는'이고, 주어에 해당하는 '딸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

| 오답 체크 |

① 관형사절은 '내가 살던'이고, 안긴문장의 주어인 '내가'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

③ 연결 어미 '-면'이 결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므로 (×)

④ 주어(그는)와 서술어(샀다)가 한 번씩만 나타난 홑문장으로 관형사절이 없으므로 (×)

⑤ 관형사절은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으로 주어는 '우리 회사가'로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

개념 05 종결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4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냐, 의문문 **08** -어요, 평서문 **09** -네, 평서문 **10** -니, 의문문 **11** -다, 평서문 **12** ㉡ **13** ㉠ **14** ㉢ **15** -아라, 감탄문 **16** -어라, 명령문 **17** -어, 명령문 **18** -구나, 감탄문 **19** -ㅂ시다, 청유문 **20** 행동 요청 **21** 감정 표현 **22** 행동 요구 **23** ㉣ **24** ㉢ **25** ㉤ **26** ㉡ **27** ㉠

02 판정 의문문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구체적인 정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설명 의문문이다.

04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올 수 없다.

06 종결 표현은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의 심리, 태도, 의도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12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13 '어디'라는 의문사가 사용되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14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바람과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수사 의문문이다.

20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여 듣는 이에게 내일 함께 도서관에 가자고 요청하고 있다.

21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를 사용하여 오늘의 날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2 '문 좀 열어 줄 수 있니?'는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종결 표현에서는 문장의 유형과 말하는 이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3 어간 '일하-'에 청유형 종결 어미 '-세'가 결합한 청유문이다.

24 어간 '들-'에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한 명령문이다.

25 어간 '읽-'에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한 감탄문이다.

26 어간 '만나-'에 의문형 종결 어미 '-ㄹ까'가 결합한 의문문이다.

27 어간 '시원하-'에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가 결합한 평서문이다.

개념 06 높임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47쪽

01 ○ 02 × 03 × 04 ○ 05 × 06 ㉠, ㉢ 07 ㉡ 08 ㉠, ㉡ 09 ㉠, ㉢ 10 ㉠, ㉡ 11 직접 12 간접 13 간접 14 직접 15 뵈러 16 모시고 17 께, 여쭈었다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02 '따님'은 '그분'과 관련된 대상으로 '있으시다'를 통해 주체인 '그분'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03 선어말 어미 '-(으)시-'는 주체 높임법에 사용된다.

05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인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한다.

06 '할아버지께서'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계시다'에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다.

07 '지내셨어요'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08 '선생님께서'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오셨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09 '할머니께서'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주무신다'에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10 '어머니께서는'에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부르신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11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다.

12 '선생님'의 소유물인 '넥타이'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멋지십니다'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3 '할아버지'와 관련된 '건강'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좋아지셨다'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4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15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인 '뵈다'를 통해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6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목적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17 부사격 조사 '께'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여쭈다'를 통해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18 '말씀'과 '있으시겠습니다'는 주어인 '회장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19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진지', '드시다', '계시다'는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20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는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21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는 부사어인 '부모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22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듣는 이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해라체로, 격식체이다.

23 종결 어미 '-ㅂ시다'를 사용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하오체로, 격식체이다.

24 종결 어미 '-아요'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친근하게 높이고 있는 해요체로, 비격식체이다.

25 해요체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엄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

26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손님들'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27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28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삼촌'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해요체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모두 나타난다.

개념 07 시간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49쪽

01 ○ 02 ○ 03 × 04 ○ 05 × 06 미래 시제 07 현재 시제 08 미래 시제 09 과거 시제 10 현재 시제 11 과거 시제 12 -는- 13 지금, -ㄴ- 14 곧, -ㄹ 것 15 어제, -었- 16 내일, -겠- 17 이미, -었- 18 ㉤ 19 ㉣ 20 ㉠ 21 ㉢ 22 ㉡ 23 -어 간다, 진행상 24 -아 있다, 완료상 25 -어 버렸다, 완료상 26 -고서, 완료상 27 -면서, 진행상 28 완료상 29 진행상 30 완료상 31 진행상 32 완료상 33 진행상

03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 그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05 동작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이미 완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06 '출발할'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사용되었다.

07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내린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08 '곧'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출발할 것이다'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 것'이 사용되었다.

09 '어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보았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다.

10 '뛰어논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11 '이미'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돌아갔어요'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다.

28 '열려(열리-+-어) 있다'의 '-어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29 '회복되어 간다'의 '-어 가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30 '마치고서'의 '-고서'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31 '보면서'의 '-면서'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32 '가 버렸다'의 '-아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33 '내리고 있다'의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개념 08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51쪽

01 × 02 ○ 03 ○ 04 × 05 × 06 피동 07 능동 08 피동 09 피동 10 능동 11 ㉡ 12 ㉠ 13 ㉡ 14 ㉢ 15 ㉠ 16 주동 17 사동 18 주동 19 사동 20 ㉠ 21 ㉢ 22 ㉠ 23 ㉡ 24 쫓겼다 25 들렸다 26 재운다 27 맡겼다 28 녹였다

01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표현은 사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04 '-게 하다'는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되다'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다.

05 사동 표현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만, 피동 표현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구워졌다'는 어간 '굽-'에 '-어지다'가 결합하였다.

12 '풀렸다'는 어근 '풀-'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였다.

13 '지켜지지'는 어간 '지키-'에 '-어지다'가 결합하였다.

14 '인상되고'는 명사 '인상'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였다.

15 '잡힌다'는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였다.

16 '아이'가 직접 웃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주동 표현이다.

17 '엄마'가 어린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한 것이므로 사동 표현이다.

18 '시냇물'이 직접 녹는 것이므로 주동 표현이다.

19 '선생님'이 다툰 친구들을 화해시킨 것이므로 사동 표현이다.

20 '낮췄다'는 어근 '낮-'에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하였다.

21 '오염시키고'는 명사 '오염'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결합하였다.

22 '날렸다'는 어근 '날-'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였다.

23 '뛰게 했다'는 어간 '뛰-'에 '-게 하다'가 결합하였다.

개념 09 인용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53쪽

01 ○ 02 × 03 × 04 × 05 ○ 06 자기도 함께 가고 싶다고, 간접 07 "나는 숙제를 끝냈어."라고, 직접 08 내일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고, 간접 09 "우산을 챙겨서 가라."라고, 직접 10 초록색이 제일 좋다고 11 낮에 축구하러 가자고 12 이불을 덮고 자라고 13 책을 잘 읽는다고 14 조용히 하라고 15 새로 산 옷이냐고 16 오늘, 자기 17 그곳, 자기 18 오늘, 있으라고 19 오늘, 보겠냐고 20 오늘, 그, 먹으라고

02 직접 인용 표현은 원래의 말을 그대로 옮기므로 생생한 느낌을 주고, 간접 인용 표현은 그 내용만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서술하므로 간결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

03 직접 인용 표현만 인용된 말이나 글 앞뒤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한다.

04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된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바뀐다.

10 평서문인 “초록색이 제일 좋아.”를 간접 인용하면 평서문의 종결 표현이 ‘-다고’로 바뀐다.

11 청유문인 “낮에 축구하러 가자.”를 간접 인용하면 청유문의 종결 표현이 ‘-자고’로 바뀐다.

12 명령문인 “이불을 덮고 자라.”를 간접 인용하면 명령문의 종결 표현이 ‘-라고’로 바뀐다.

13 감탄문인 “책을 잘 읽는구나.”를 간접 인용하면 감탄문의 종결 표현이 ‘-다고’로 바뀐다.

14 명령문인 “조용히 하세요.”를 간접 인용하면 명령문의 종결 표현이 ‘-라고’로 바뀐다.

15 의문문인 “새로 산 옷이야?”를 간접 인용하면 의문문의 종결 표현이 ‘-냐고’로 바뀐다.

16 직접 인용의 ‘내일’은 인용하는 시점에서는 ‘오늘’이 되고, ‘우리 집’은 인용하는 ‘나’의 관점에서 ‘영수’를 가리키는 ‘자기 집’으로 바뀐다.

17 직접 인용의 ‘이곳’은 인용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곳’으로 바뀌고, ‘내가’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세하’를 가리키는 ‘자기가’로 바뀐다.

18 직접 인용의 ‘내일’은 인용하는 시점에서는 ‘오늘’이 되고,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명령문의 종결 표현은 ‘-라고’의 형태로 바뀐다.

19 직접 인용의 ‘내일’은 인용하는 시점에서는 ‘오늘’이 되고, 직접 인용에서 쓰인 의문문의 종결 표현은 ‘-냐고’의 형태로 바뀐다.

20 직접 인용의 ‘내일’은 인용하는 시점에서는 ‘오늘’이 되고, ‘저 식당’은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식당’으로 바뀐다. 또한 직접 인용에서 명령문의 종결 표현은 ‘-라고’의 형태로 바뀐다.

개념 10 부정 표현

개념 트레이닝 본문 1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안 **13** 못 **14** 안 **15** 못 **16** 못 **17** 꽃이 아직 안 피었다. **18** 윤주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19** 지수는 어제 기차를 타지 않았다. **20** 아이들은 태풍 때문에 축제에 못 갔다. **21** ○ **22** × **23** ○ **24** 나 **25** 지후 **26** 만난

03 용언 앞에 부정 부사 ‘안(아니)’, ‘못’을 사용하는 것은 짧은 부정문이다.

05 부정 표현의 중의성은 부정의 범위, 부정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12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는 단순 부정이므로 ‘안’을 사용한다.

13 그의 잔소리를 말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하므로 ‘못’을 사용한다.

14 군것질을 안 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안’을 사용한다.

15 할머니의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볼 능력이 부족하므로 ‘못’을 사용한다.

16 차가 막히는 외부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므로 ‘못’을 사용한다.

21~23 ㉠은 청유문의 부정 표현이고, ㉡은 명령문의 부정 표현이다. 청유문과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말다’ 부정문이 사용되며,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의 형태로만 사용된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5~10 본문 156~159쪽

01 (1) ○ (2) × (3) ○ (4) ○ (5) × (6) ○ **02** (1) ㉢ (2) ㉣ (3) ㉢ (4) ㉠ (5) ㉤ (6) ㉡ (7) ㉣ **03** (1) ㉡ (2) ㉢ (3) ㉠ **04** (1) 여러분, 상대 높임 (2) 이모부, 객체 높임 (3) 할아버지, 주체 높임 (4) ⓐ 삼촌, 객체 높임 ⓑ 어머니, 상대 높임 (5) ⓐ 손님, 객체 높임 ⓑ 원장님, 주체 높임 **05** (1) 주체 높임, 상대 높임 (2) 객체 높임, 상대 높임 (3) 주체 높임, 상대 높임 (4) 주체 높임, 객체 높임 (5) 객체 높임, 상대 높임 (6)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06** (1) 찾아 → 찾으셔 (2) 묻고 → 여쭙고 (3) 데리고 → 모시고 (4) 보러 → 뵈러 (5)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6) 합니다 → 하십니다 (7) 주라고 → 드리라고 **07** (1) 명령문, 상대 높임 (2) 의문문, 주체 높임 (3) 평서문, 상대 높임 (4) 청유문, 객체 높임 (5) 감탄문, 주체 높임 (6) 명령문, 객체 높임 **08** (1) 현재 (2) 과거 (3) 미래 (4) 현재 (5) 미래 (6) 과거 (7) 미래 (8) 현재 (9) 과거 **09** (1) 과거, 완료상 (2) 현재, 진행상 (3) 과거, 완료상 (4) 현재, 진행상 (5) 미래, 진행상 (6) 미래, 완료상 **10** (1) 짧은 부정, 능력 부정 (2) 긴 부정, 단순 부정 (3) 긴 부정, 상황 부정 (4) 짧은 부정, 단순 부정 (5) 짧은 부정, 상황 부정 (6) 짧은 부정, 의지 부정 (7) 긴 부정, 능력 부정 (8) 긴 부정, 의지 부정 **11** (1) 안 (2) 못 (3) 안 (4) 못 **12** (1) 안 갔다 (2) 여쭤볼 것이다 (3) 사지 못한다 (4) 안 했다 (5) 가꾸신다 **13** (1) 어머님, 준희가 김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2) 오누이는 호랑이가 자기들을 쫓아온

다고 말했다. (3) 식당 주인은 나에게 이쪽에 앉으라고 말했다. (4) 어제 할아버지께서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14** (1) 직접, 단순 (2) 간접, 의지 (3) 간접, 상황 (4) 직접, 능력 **15** (1)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2)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3) 마을이 모래바람에 덮였다. (4) 물을 끓였다. (5) 동생에게 신발을 신겼다. (6) 물건값을 많이 올렸다. **16** (1) ㉠, ㉣, ㉤ (2) ㉡, ㉢, ㉥, ㉦ **17** (1) 청유문 (2) 주체 높임 (3) 피동 (4) 완료상 (5) 진행상 (6) 상대 높임 (7) 간접 인용 (8) 의지 부정

01 (2)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모두 특수 어휘로 높임을 나타낸다.
(5)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종결 어미가 간접 인용에 알맞은 형태로 바뀐다.

05 (1)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2)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큰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3)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교수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4)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외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5)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6)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06 (1) '선생님'은 주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찾아'를 '찾으셔'로 고쳐야 한다.
(2) '할머니'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여 '묻고'를 '여쭙고'로 고쳐야 한다.
(3) '부모님'은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데리고'를 '모시고'로 고쳐야 한다.
(4) '할머니'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보러'를 '뵈러'로 고쳐야 한다.
(5)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계시겠습니다'를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6) '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합니다'를 '하십니다'로 고쳐야 한다.
(7) '어머니'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주라고'를 '드리라고'로 고쳐야 한다.

07 (1) 명령문으로, 격식체의 종결 어미 '-게'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2) 의문문으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3) 평서문으로,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여러분'을 높이고 있다.
(4) 청유문으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르신'을 높이고 있다.
(5) 감탄문으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작가님'을 높이고 있다.
(6) 명령문으로,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8 (1) '밝-+-은'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2) '기다리-+-던'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3) '돌아가-+-ㄹ'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4) '회장+이-+-ㄴ'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5) '바쁘-+-ㄹ'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6) '도착하-+-ㄴ'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7) '출전하-+-ㄹ'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8) '흐르-+-는'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9) '읽-+-은'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9 (1) '잠겨 있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어 있다'는 문이 잠긴 상태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2) '저물어 간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어 가다'는 해가 저무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잠들어 버렸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어 버리다'는 잠든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4) '점검하고 있다'에서 '-고 있다'는 점검하는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에서 '-(으)ㄹ 것'은 미래 시제를, '-고 있다'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6) '끝나 있을 것이다'에서 '-(으)ㄹ 것'은 미래 시제를, '-아 있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동작이 완료되었을 것임을 나타낸다.

12 (1) 짧은 부정이면서 단순 부정이어야 하므로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안 갔다'로 바꾼다.
(2) 문장의 객체인 '교수님'을 높여야 하므로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고, 관형사형 어미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야 하므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형인 '-(으)ㄹ 것'을 사용하여 '여쭤볼 것이다'로 바꾼다.
(3) 긴 부정이면서 능력 부정이어야 하므로 '-지 못하다'를 사용하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야 하므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사지 못한다'로 바꾼다.
(4) 짧은 부정이면서 의지 부정이어야 하므로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안 했다'로 바꾼다.
(5)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야 하므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가꾸신다'로 바꾼다.

16 (1) ㉠ '끊어졌다'는 '-어지다', ㉣ '공개되었다'는 피동 접미사 '-되다', ㉤ '보였다'는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2) ㉡ '울렸다'는 사동 접미사 '-리-', ㉢ '익혀서'는 사동 접미사 '-히-', ㉥ '진정시켰다'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 ㉦ '서게 했다'는 '-게 하다'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17 (1)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맙시다.'는 '말다'를 활용한 부정 표현이며, 함께 행동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문장이므로 명령문이 아니라 청유문이다.
(2) '아버지께서 집에 일찍 들어오셨다.'에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는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객체 높임 표현이 아니라 주체 높임 표현이다.
(3) '천장의 전등이 흔들린다.'에서 접미사 '-리-'는 전등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리-'는 피동 접미사이다.
(4) '사장님께서는 회의실에 앉아 계십니까?'에서 '앉아 계시-'는 '앉다'의 결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이다.
(5)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에서 '-고 있었다'는 과거 특정 시점에 동작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므로 완료상이 아니라 진행상이다.
(6) '선생님께서 이 책을 제게 주셨습니다.'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 표현이 아니라 상대 높임 표현(하십시오체)이 사용되었다.
(7)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일찍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직접 인용 표현이 아니라,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이다.
(8) '배가 불러서 밥은 안 먹겠습니다.'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안'은 배가 불러 스스로 먹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능력 부정이 아니라 의지 부정이다.

비밀노트 연습 문제 본문 161쪽

01 (1) 주어, 주체 높임 (2) 부사어, 객체 높임 (3) 목적어, 객체 높임 (4) 주어, 주체 높임 (5) 부사어, 객체 높임 **02** (1) ㉡ (2) ㉠ (3) ㉢ **03** (1) ㉠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2) ㉠ 피동 표현 ㉡ 사동 표현 (3) ㉠ 피동 표현 ㉡ 사동 표현 (4) ㉠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01 (1)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2)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3)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인 '교수님'을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4)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5)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02 (1) '내렸구나'는 '내리-+-었-+-구나'로 분석되며, '-었-'이 눈이 내린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탔다'는 '타-+-았-+-다'로 분석되며,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3) '잤다'는 '자-+-았-+-다'로 분석되며, '-았-'이 미래의 확정된 상황을 나타낸다.

03 (1) '보였다'는 '보-+-이-+-었-+-다'로, ㉠은 목적어 '사진첩'이 필요한 사동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이다.
(2) '잡혔다'는 '잡-+-히-+-었-+-다'로, ㉠은 피동 표현이고, ㉡은 목적어 '연필을'이 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3) '들렸다'는 '들-+-리-+-었-+-다'로, ㉠은 피동 표현이고, ㉡은 목적어 '선물을'이 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4) '안겼다'는 '안-+-기-+-었-+-다'로, ㉠은 목적어 '아기를'이 필요한 사동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이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5~10 | 본문 162~16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② **19** ① **20** ④ **21** ⓐ 미래 ⓑ 오늘, -는- ⓒ 어제, -ㄴ **22** (1) 공통점: 주체 높임법으로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2) 차이점: ㉠은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고(직접 높임), ㉡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간접 높임). **23** (1) 나는 동생을 문 뒤에 숨겼다. (2) 나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01 ②는 감탄문이고, 나머지는 평서문이다.

02 ㉡은 의문문이지만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하는 의미이므로 문장의 유형과 말하는 이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걸음 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 직접 발화: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 예 불 좀 켜 주세요.
- 간접 발화: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 예 방이 좀 어두운 것 같네.

03 '아침밥은 먹고 나왔니?'는 '예', '아니요'와 같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 오답 체크 |
①과 ⑤는 판정 의문문, ②는 수사 의문문, ④는 설명 의문문이다.

04 '모시다'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로, 선어말 어미 '-(으)시-'가 쓰인 것은 아니다.

05 <보기>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②에서도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 오답 체크 |
① '할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③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④ '선생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⑤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06 ㉣에는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 오답 체크 |
① 하십시오체가 쓰여 듣는 이인 '선생님'을 아주 높이고 있다.
② '나이'를 높인 특수 어휘인 '연세'가 쓰였다.
③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⑤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07 ③은 주체인 '어머니'가 신문을 읽고 있는 행동을 직접 높이고 있으므로 직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 오답 체크 |
① 선생님의 신체 부분인 '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쓰였다.
② 아버지의 생각인 '걱정'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쓰였다.
④ 회장님의 소유물인 '집'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쓰였다.
⑤ 할아버지와 관련된 인물인 '손자'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쓰였다.

08 <보기>에서 '돌아오셨다'는 '돌아오-+-시-+-었-+-다'로 분석되며,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에서도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체크 |
①~③은 현재 시제, ⑤는 미래 시제이다.

09 ⑤의 '-겠-'은 말하는 이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체크 |
①은 추측, ②는 의지, ③은 가능성, ④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10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③의 '오후에 함박눈이 내리겠다.'의 '-겠-'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11 ③에서 '깨끗해져 간다'에 사용된 '-어 가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 오답 체크 |
①은 '-(으)면서', ②는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나타낸다.
④는 '-어 버리다', ⑤는 '-아 있다'를 통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12 ㉡은 피동 표현으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⑤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13 ⑤에서 '믿겨지지'는 피동사 '믿기다'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믿어지지' 또는 '믿기지'로 고쳐 써야 한다.

14 ㉡과 같은 사동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은 동생에게 스스로 옷을 입도록 시키는 의미만 지닌다.

| 오답 체크 |

①, ②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에 해당하므로 '옷을 입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동생'으로 같다.
③ 사동문에서 새로운 주어는 행동을 시키는 주체가 된다.
④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나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문이 된다.

15 ④의 '섞였다'는 '섞-'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 오답 체크 |

① '웃-'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주어인 '선생님'이 대상인 '학생들'을 '웃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동이다.
② '녹-'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주어인 '햇살'이 대상인 '얼음'을 '녹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동이다.
③ '높-'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주어인 '동네 사람들'이 대상인 '담'을 '높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동이다.
⑤ '날-'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 주어인 '누나'가 대상인 '종이비행기'를 '날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동이다.

16 ㉠의 직접 인용에 쓰인 종결 어미 '-ㅂ시다'가 ㉡의 간접 인용에서는 '-자'로 바뀌었다.

| 오답 체크 |

① ㉠은 다른 사람의 말을 큰따옴표(" ")와 함께 그대로 가져온 직접 인용이고, ㉡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용을 바꾼 간접 인용이다.
② ㉠의 직접 인용 뒤에는 조사 '라고'가 붙고, ㉡의 간접 인용 뒤에는 조사 '고'가 붙는다.
③ ㉠에 쓰인 시간 표현 '내일'이 ㉡에서 '오늘'로 바뀌었다.
④ ㉠에 쓰인 상대 높임법이 ㉡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17 ⑤에서 직접 인용에 사용된 '여기'는 간접 인용에서 '거기'로 바뀌어야 적절하다.

18 ②는 '철수는 노느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주체의 의지로 집에 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안'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므로 '못'이 적절하다.

19 ㉠에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 단순 사실의 부정이 나타난다.

20 <보기>에는 부정의 대상에 의한 중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①은 '학교', ②는 '걸어서', ③은 '다혜', ⑤는 '어제'를 부정할 때 지니는 의미에 해당한다.

서술형 대비

21 (1)은 시간 부사어 '내일'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쓰였으므로 미래 시제이다.
(2)는 시간 부사어 '오늘'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3)은 시간 부사어 '어제'와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였으므로 과거 시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제시된 문장의 시제와 시간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5점
제시된 문장의 시간 표현을 이해했으나, ⓐ~ⓒ 중 2개만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 중 1개만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22 ㉠은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주체와 관련된 대상인 '따님'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쓴 경우	7점
㉠과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쓴 경우	5점
㉠과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미흡하게 쓴 경우	3점

23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오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문의 부사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사동사는 주동사에 사동 접미사를 붙여 만든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조건>에 맞게 사동문으로 정확하게 바꿔 쓴 경우	5점
㉠과 ㉡ 중 하나만 사동문으로 정확하게 바꿔 쓴 경우	3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5~10 본문 166~167쪽

01 ⑤ **02** ④ **03** ④ [❶ 과거 ❷ 현재] **04** ④ **05** ② **06** ③

01 ㉤은 주체 높임이 사용된 문장으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고 있고, 선어말 어미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격조사, 특수 어휘를 사용한 객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 ㉠은 주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객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③ ㉢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④ ㉣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하고 있다.

02 ㄱ.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조사는 '(이)라고 → 고'로, 인용절의 대명사는 '당신 → 내(나), 제 → 자기'로, 높임 표현은 '-시(었)- → (-었-)'으로, 종결 어미는 '-습니까 → -냐'로 바뀐다.
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와 같이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인용 조사는 '라고 → 고'로, 인용절의 시간 표현은 '내일 → 오늘'로, 종결 어미는 '-ㅂ니다 → -다'로 바뀐다.

03 ㄹ의 '적었었다'는 '적다'에 선어말 어미 '-었었-'이 결합된 말로,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

| 오답 체크 |
①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② '춥더라'에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
③ '본'은 '보- + -ㄴ'의 형태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⑤ '잤-'은 '자다'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된 말이지만,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

04 ㉠은 긴 부정문을 의미하고, ㉡은 단순 부정을 의미한다. ④에서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에는 '-지 아니하다'라는 긴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장은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는 의지나 능력이 아닌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체크 |
①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단순한 사실 부정을 나타낸다.
②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③ '-지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⑤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05 '만지다'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 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이다.

| 오답 체크 |
①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낚싯줄이 물고기에 의해 끊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③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동생의 이름이 민수에 의해 불렸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④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도토리가 다람쥐에 의해 땅에 묻혔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⑤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음식이 요리사에 의해 접시에 담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06 ㉠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의사를 물음으로써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판정 의문문이다. 따라서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설명 의문문이라고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체크 |
④ 화자가 청자에게 물음으로써 행동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청자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화자가 요구한 행동을 수행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화자가 요구한 행동을 수행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경우, 청자에게 급식 식단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판정 의문문이다. 이 경우 B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Ⅳ. 국어의 규범

개념 01 한글 맞춤법

개념 트레이닝 본문 171~173쪽

01 ○ 02 ○ 03 × 04 ○ 05 × 06 소리 → 소 07 가치 → 어 08 나비 → 소 09 궁물 → 어 10 구지 → 어 11 바람 → 소 12 깨끄시 → 어 13 노라타 → 어 14 던지다 → 소 15 꼳따발 → 어 16 ㉠ 바다, 날개, 날리다, 달걀 ㉡ 밭이, 꽃만, 집을, 낙엽, 무릎, 떡볶이 17 ○ 18 ○ 19 × 20 ○ 21 ○ 22 × 23 붙여 24 띄어 25 띄어 씀 26 띄어, 붙여 27 (1) 오늘∨은 색∨연필을∨샀다. (2) 오늘은∨색연필을∨샀다. 28 (1) 나물∨좀∨다오. (2) 나∨물∨좀∨다오. 29 (1) 초콜릿이∨오늘∨만∨오천∨원이다. (2) 초콜릿이∨오늘만∨오천∨원이다. 30 ㉠ 31 ㉡ 32 ㉠ 33 ㉡ 34 할 수 있을 때 35 종이 석 장만 36 네가 먹을 만큼 37 조기 한 마리를 38 생각한 대로 39 아는 것이 많을수록 40 결과가 있을 것이다 41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42 열 살 소년처럼 43 작은∨소리가∨방에서∨들렸다. 44 누구나∨열심히∨하면∨꿈을∨이룰∨수∨있다. 45 나는∨생일∨기념으로∨나무∨한∨그루를∨심었다. 46 영희는∨이제∨자신밖에∨믿을∨것이∨없다고∨말했다. 47 말로만∨하지∨말고∨계획을∨실천하는∨게∨중요하다. 48 늘어났다 49 쓸어져서 50 드러났다 51 쓰러졌다 52 돌아가면 53 원형을 밝혀 54 부사, 같이 55 걸음 56 무덤 57 ㉠, ㉣ 58 ㉢, ㉤ 59 ㉡ 60 갈게 61 너보다 62 드리면 63 뜻한 바 64 들여서 65 값이 66 끊어라 67 낫는다

03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발음에는 맞지 않지만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05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06~15 '소리[소리]', '나비[나비]', '바람[바람]', '던지다[던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반면에 '같이[가치]', '국물[궁물]', '굳이[구지]', '깨끗이[깨끄시]', '노랗다[노라타]', '꽃다발[꼳따발]'은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16 <보기>에서 '바다[바다], 날개[날개], 날리다[날리다], 달걀[달걀]'은 표준어를 발음대로 표기하여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밭이[바치], 꽃만[꼰만], 집을[지블], 낙엽[나겹], 무릎[무릅], 떡볶이[떡뽀끼]'는 실제 발음과 달리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18 '급하게[그파게]'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19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소리대로 적는 것(㉠)보다 의미 파악이 더 쉽다.

20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21 ㉣은 '시들어'로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어 적어야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잘못 표기하였다.

22 '노피'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보다 '높이'라고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본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27 (1)에서는 '오늘'과 '은색', '연필'을 띄어 쓰고, (2)에서는 '오늘'과 보조사 '은'을 붙여 쓰고, '색연필'을 띄어 쓴다.

28 (1)에서는 '나물'과 부사 '좀'을 띄어 쓰고, (2)에서는 '나'와 '물', '좀'을 띄어 쓴다.

29 (1)에서는 '만'이 수 관형사로 '만 오천 원'과 띄어 쓰지만, (2)에서는 '만'이 조사가 되어 '오늘만'으로 붙여 쓴다.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원'은 띄어 쓴다.

30~33 '여기부터'의 '부터', '서울까지'의 '까지'는 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하여 앞말에 붙여 쓰고, '작은것부터'의 '것', '본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을 적용하여 띄어 쓴다.

34 '수'는 의존 명사, '때'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5 '석'은 수 관형사, '장'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6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37 '한'은 수 관형사, '마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8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39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ㄹ수록'은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40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41 '에서부터'와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43~47 문장의 단어별 경계를 파악하여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해야 한다.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를 해야 하지만,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도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48 '늘다'와 '나다'가 결합한 말로,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래보다 커지다.'라는 뜻의 '늘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본래 형태를 밝혀 '늘어났다'로 쓰는 것이 맞다.

49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말로,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의 뜻인 '쓸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쓸어져서'로 쓰는 것이 맞다.

50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뜻으로, '들다'와 '나다'의 의미와 멀어졌으므로 어원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났다'로 적는다.

51 '힘이 빠져 바닥에 눕다.'라는 뜻으로, '쓸다'의 뜻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러졌다'로 적는다.

52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말로 원래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돌아가면'으로 적는다.

54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바뀐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같이'로 적는다.

55 용언 '걷다'의 어간 '걷-'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은 동사 '걷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걸음'으로 적는다.

56 접미사 '-엄'은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이므로 [붙임] 조항을 적용하여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여 '무덤'으로 적는다.

57 ㉠ '깨끗이', ㉣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58 ㉢ '일찍이', ㉤ '더욱이'는 '일찍', '더욱'이라는 부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한 경우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59 ㉡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으므로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며, 부사에 '-이'가 붙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60 어미 '-ㄹ게'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갈게'가 맞다.

61 '보다'는 비교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너보다'로 붙여 쓴다.

62 윗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드리다'이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드리면'으로 적는다.

63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뜻한 바'로 띄어 쓴다.

64 어떤 일에 시간이나 노력, 정성을 쓰는 것은 '들이다'이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들여서'로 적는다.

65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체언 '값'의 형태를 밝혀 조사와 구별하여 적어야 하므로 '값이'가 맞다.

66 '표 따위를 사다.'의 의미인 '끊다'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끊어라'가 맞다.

67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뜻은 '낫다'이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낫는다'로 적는다.

개념 02 표준 발음법

개념 트레이닝 본문 17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솥 **12** 막따 **13** 발꼬 **14** 밥꼬 **15** 읍꼬 **16** 흑또 **17** 말께 **18** 늑찌 **19** ㅣ, [ㅈ, ㅊ], 첫소리 **20** 깡는 **21** 정뉴장 **22** 칼랄 **23** ○ **24** ○ **25** ○ **26** ○ **27** × **28** ○ **29** ㄴ **30** 한닐

0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2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르면 국어의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

03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표기(예 굳이)와 실제 발음(예 [구지])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04 제20항의 규정은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와 관련된다. 비음화는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는 제18항과 관련된다.

05~06 '앞'의 받침 'ㅍ', '밖'의 받침 'ㄲ'이 각각 대표음 [ㅂ], [ㄱ]으로 교체되어 [압], [박]으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07~08 겹받침 'ㄺ', 'ㄻ'이 각각 뒤의 자음인 [ㄱ], [ㅁ]으로 발음되어 [닥], [점따]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09~10 겹받침 'ㄾ', 'ㅀ'이 앞의 자음인 [ㄹ]로 발음되어 [할따], [여덜]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11 '솥'의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12, 18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막따], [늑찌]가 맞다.

13, 17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원래 뒤 소리 [ㄱ]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이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하므로 [발꼬], [말께]가 맞다.

14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원래 앞 소리 [ㄹ]로 발음하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예외적으로 뒤 소리 [ㅂ]으로 발음하므로 [밥:꼬]가 된다.

15 '읊고'의 겹받침 'ㅶ'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읍꼬]가 맞다.

16 '흙도'의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흑또]가 맞다.

19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접미사)를 만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 [ㅈ, ㅊ]으로 바뀐 뒤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20 받침 'ㄲ'이 대표음 [ㄱ]으로 바뀐 후, 제18항에 따라 뒤에 오는 비음인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깡는]으로 발음된다.

21 제19항에 따라 받침 'ㅇ' 뒤에 연결되는 유음 'ㄹ'은 비음 [ㄴ]으로 동화되므로 [정뉴장]으로 발음된다.

22 제20항에 따라 유음 'ㄹ'의 뒤에 연결되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동화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칼랄]로 발음된다.

23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책쌍]으로 발음된다.

24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용언 어간 받침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담따]로 발음된다.

25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용언 어간 겹받침 'ㄵ'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안쏘]로 발음된다.

26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바뀌어 [갈쯩]으로 발음된다.

27 표준 발음법 제24항 '다만'에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안기다]로 발음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28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겹받침 'ㅀ'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읍쪼리다]가 맞다.

29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합성어 '솜이불'은 앞 단어의 끝이 자음(받침)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솜니불]이 된다.

30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2]에 따라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한닐]로 발음한다.

개념 종합 트레이닝 | 개념 01~02 본문 176~177쪽

01 (1) ○ (2) ○ (3) × (4) ○ **02** (1) ㉠, ㉤ (2) ㉡, ㉢, ㉣, ㉥ **03** (1) 먹고 싶은 게 (2) 만난 지도, 삼 년이 (3) 아는 만큼만 (4) 집에서뿐만 (5) 노력했는데도, 안 될 **04** (1) 반듯이 → 반드시 (2) 깨끄시 → 깨끗이 (3) 가르키며 → 가리키며, 느졌음을 → 늦었음을 (4) 시작된지 → 시작된 지, 맞혔니 → 마쳤니 **05** (1) 적고, 적지 아니한다 (2) 적지 아니한다, 거름, 노름 (3) 적는다, 소리대로 **06** (1) 돼 (2) 안 (3) 않 (4) 되 **07** (1) 나는∨사과보다∨배를∨더∨좋아한다. (2) 지금 밖에는∨시간이∨없다는∨것이다. (3) 내가∨해야∨할∨부분은∨어디까지입니까? (4) 나는∨너무∨힘들어서∨말을∨할∨수도∨없었다. (5) 그가∨여기를∨떠난∨후∨십∨년∨만에∨다시∨돌아왔다. **08** (1) 넉 (2) 삼 (3) 언따 (4) 널따 (5) 늑따 (6) 갑찌다 **09** (1) 압날 (2) 흥만 (3) 붇는, 분는 **10** (1) 닥짱 (2) 덥따 (3) 언따 (4) 삼꼬 (5) 갈뜽 (6) 일씨 **11** (1) 여덜 (2) 밥:꼬 (3) 흑꽈 (4) 막따, 말께

01 (3)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소리대로 적는 것(㉠)보다 의미 파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02 ㉠ '예쁜[예쁜]', ㉤ '새가[새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 '떡이[떠기]', ㉢ '밖에[바께]', ㉣ '얼음[어름]', ㉥ '먹이[머기]'는 발음과 달리 본래 형태를 밝히어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03 (1)~(3) '게', '지', '년',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4)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만'도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5) '데'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안'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04 (1) '반듯이'는 '비뚤지 않고 바르게'의 뜻이고,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로 써야 한다.
(2)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깨끗이'로 써야 한다. 또한,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으므로(한글 맞춤법 제51항)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가 맞다.
(3)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의 뜻은 '가리키다'이다.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으므로 '늦었음을'로 써야 한다.
(4)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

미일 때는 '마치다'를 써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마쳤니'로 써야 한다.

06 (1) '돼'는 '되어'의 준말이므로 '되어 주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돼'가 맞다.
(2)~(3) 부사 '안'은 '아니'의 준말이므로 '안 좋아할'이 맞고, 어간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아니하겠다'의 '않겠다'가 맞다.
(4) '돼'는 '되어'의 준말인데, '되는'은 '되어는'이 되지 않으므로 '되'가 맞다.

07 (1) '보다'는 비교의 격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더'는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2) '밖에', '는', '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 '까지'와 '입니까'는 조사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4)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도'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5) '후'는 명사이고, '년'과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8 <보기>에 따라 '넋'의 겹받침 'ㄳ', '얹다'의 겹받침 'ㄵ', '넓다'의 겹받침 'ㄽ', '값지다'의 겹받침 'ㅄ'은 모두 뒤 자음이 탈락하고 앞 자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이고, '삶'의 겹받침 'ㄻ', '늙다'의 겹받침 'ㄺ'은 앞 자음이 탈락하고 뒤 자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이다.

09 (1) '앞날'의 받침 'ㅍ'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압날]이 되고, 비음화에 따라 [ㅁ]으로 바뀌어 [암날]로 발음된다.
(2) '흙만'의 겹받침 'ㄺ'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흑만]이 되고, 비음화에 따라 [ㅇ]으로 바뀌어 [흥만]으로 발음된다.
(3) '붙는'의 받침 'ㅌ'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붇는]이 되고, 비음화에 따라 [ㄴ]으로 바뀌어 [분는]으로 발음된다.

10 (1)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ㄿ, ㅀ,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닥짱], [덥따]).
(2) 제24항에 따라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언따], [삼꼬]).
(3) 제26항에 따라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갈뜽], [일씨]).

11 (1) '여덟'의 겹받침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여덜]로 발음한다.
(2) 겹받침 'ㄿ'은 '밟아'에서는 [ㄹ]로 발음하지만, '밟고'에서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밥:꼬]로 발음한다.
(3) '흙'과 '흙과'의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흑], [흑꽈]로 발음한다.
(4) '맑다'의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막따]로 발음하고,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맑게'는 [말께]로 발음한다.

내신 마스터 | 개념 01~02 본문 178~181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① **0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④ **18** ② **19** ② **20** ④ **21** ③
22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지만, 의미를 더욱 쉽게 파악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라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래의 형태를 밝혀 '얼음'으로 적는다.
23 (1) 친구와 같이 춤을 추었다. (2) 친구는 나비같이 춤을 추었다. **24**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01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대로 적는다는 것(㉠)이지만,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는다(㉡). '맑다'는 소리대로 적으면 '막따'로 적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미를 알기 어려워,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 '오늘'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02 '달걀말이[달걀마리]', '책꽂이[책꼬지]'는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따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오답 체크 |
④에서 '연필깎이[연필까끼]'만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경우이고, '지우개[지우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다.

03 ③의 '신고[신꼬]'는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경우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② '자전거[자전거]', '사람[사람]'은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⑤ '많이[마:니]', '해돋이[해도지]'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04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지만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0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집으로[지브로], 집에서[지베서], 집이[지비]'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경우에는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형태로 표기되어 의미 파악이 어려워 의사소통에 혼

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다.

| 오답 체크 |

②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므로 표기가 용이하다.

06 ㉡은 모두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꽃'은 [꼳], '꽃이'는 [꼬치], '꽃나무'는 [꼰나무]로 소리 난다.

07 ①의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조차'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오답 체크 |

②, ⑤ '만', '부터'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입니까'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08 ① '얼음장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과 비슷하거나 다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체언 '얼음장' 뒤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체크 |

② '지', ④ '리', ⑤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장'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9 ① '맨처음에'의 '맨'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 / '맨 주먹으로'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체크 |

②, ③, ④, ⑤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10 ② '흩어지다'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은 경우이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 오답 체크 |

③, ④ '드러나다'는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고, '사라지다'도 이와 같은 유형의 단어이다.

⑤ '쓰러지다'는 '쓸다'의 본뜻에서 멀어져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다.

11 ③ (마음이)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맞다.

| 오답 체크 |

① (옷이) '늘어나다'는 '늘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② '부러지다'는 '불다'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④ '사라지다'는 '살다'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⑤ (~ 지역에) '들어간다'는 '들다'와 '가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2 <보기>의 제19항에서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③은 '미닫-+-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이며, 그 어간의 뜻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미닫이'라고 적어야 한다.

| 오답 체크 |

① 어간 '울-'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어간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②, ④ '무덤'은 어간 '묻-'에 접미사 '-엄'이, '마중'은 어간 '맞-'에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붙임]에 따라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⑤ '익히'는 어간 '익-'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3 ⑤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이므로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일찍이'로 적어야 한다.

| 오답 체크 |

①, ④ '급히', '깨끗이'는 '급하다', '깨끗하다'의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②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로,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③ '갑자기'는 [붙임]의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로 소리대로 적는다.

14 ① '붙이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뜻으로,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뜻일 때는 '부치다'가 맞다.

15 ⓑ는 '되다'의 '안' 부정이므로 '안 되다'로 고쳐 써야 한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16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올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ㄲ, ㅋ'은 [ㄱ], 'ㅅ, ㅆ, ㅈ, ㅊ, ㅌ'은 [ㄷ], 'ㅍ'은 [ㅂ]의 대표음으로 바뀐다. '쫓다'의 받침 'ㅊ'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므로 [쫃따]가 맞다.

17 ④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늑찌]가 맞다.

| 오답 체크 |

①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흑꽈]가 맞다.

②, ⑤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물꼬], [발께]가 맞다.

③ 겹받침 'ㄻ'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므로 [읍꼬]가 맞다.

18 <보기>의 표준 발음법 제18항은 비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의 앞마당[암마당]도 받침 'ㅍ'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로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는 경우 [ㅈ]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③ 옷고름[옫꼬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받침 'ㅅ'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④ 하얗다[하:야타]는 'ㅎ' 뒤에 'ㄷ'이 결합되는 경우에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ㅌ]으로 발음된다.
⑤ 한여름[한녀름]은 파생어에서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여'인 경우로 'ㄴ'을 첨가하여 [녀]로 발음한다.

19 ②의 '앉아서'는 [안자서]로 발음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체크 |
① 발전[발쩐], ③ 입고[입꼬], ④ 꽃다발[꼳따발], ⑤ 넓게[널께]로 발음하며,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0 겹받침 '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지만, '넓죽하다[넙쭈카다]'의 경우는 [ㅂ]으로 발음한다. ④ '넓고[널꼬]'는 [ㄹ]로 발음하므로 겹받침의 발음이 <보기>와 다르다.

| 오답 체크 |
①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므로 밟지[밥:찌]로 발음한다.
② 없을[업쓸], ③ 읊조린다[읍쪼린다], ⑤ 값을[갑쓸]은 밑줄 친 겹받침이 모두 [ㅂ]으로 발음된다.

21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되,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③ 맑고[말꼬]가 맞다.

| 오답 체크 |
① 삶을[살믈], ② 밝지만[박찌만], ④ 핥고[할꼬], ⑤ 젊어[절머]로 발음한다.

서술형 대비

22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지만 의미를 더욱 쉽게 파악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라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래의 형태를 밝혀 '얼음'으로 적는다.

채점 기준	배점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래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내용을 모두 쓴 경우	4점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내용만 있는 경우	2점

2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1)의 '같이'는 부사이므로 띄어 쓰고, (2)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 두 문장을 모두 바르게 띄어 쓴 경우	4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마다	각 −1점

24 <보기>의 표준 발음법 제10항을 보면, 'ㄼ' 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지만, 제시된 ㉠를 보면, 'ㄼ' 받침이 [ㅂ]으로 발음되고 있다. 즉 '밟-'이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된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키면서 '자음 앞에서'와 '[밥]'의 발음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4점
[밥]의 발음은 썼지만 '자음' 대신 ㉠에 있는 'ㄷ, ㅈ, ㄱ'만 쓴 경우	3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2점

기출문제로 실력 UP

| 개념 01~02 | 본문 182~183쪽

01 ③ **02** ③ 지문 속 개념 확인 [❶ 소리 ❷ 어법 ❸ 본모양]
03 ⑤ **04** ① [❶ [ㄱ] ❷ 된소리 ❸ 모음 ❹ [ㅁ] ❺ [ㅂ] ❻ ㄱ ❼ 자음 ❽ ㅈ]

01 ③의 '개구리[개구리]'는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고, '오뚝이'는 [오뚜기]로 소리 나지만 '오뚝'과 접미사 '이'의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 체크 |
① '덮개'는 [덥깨]로 소리 나지만 '덮-'과 '-개'의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고, '많이[마:니]'도 ㉡에 해당한다.
②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지만 '얼-'과 '-음'의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고, '화살[화살]'은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이파리[이파리]', '우스개[우스개]'는 모두 소리 대로 적은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⑤ '어렴풋이'는 [어렴푸시]로 소리 나지만, '어렴풋-'과 '-이'의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고, '꼬트머리[꼬트머리]'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02 ⓒ의 '밖에'는 체언 '나' 뒤에 결합하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체크 |
① ⓐ의 '같이'는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독립성을 가진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의 '이라면'은 독립성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체언 '내일' 뒤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서술어가 되게 하는 격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의 '갈래'는 동사 '가다'의 활용형이고, ⓓ의 '같아'는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으로 두 단어 모두 독립성을 가지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의 '것'은 '도착할'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고, ⓔ의 '데'는 '앉을'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두 단어 모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3 ⑤ '믿음'은 어근 '믿-'과 접미사 '-음'이 결합한 경우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말이다. 접미사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04 표준 발음법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ㄺ'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ㄺ'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은 [익찌]로 발음한다.

| 오답 체크 |

② 제14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은 [안자]로 발음한다.

③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ㄻ'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므로 ㉢은 [옴겨]로 발음한다.

④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ㄿ'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ㄿ'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은 [읍꼬]로 발음한다.

⑤ 제10항 규정에 따라 'ㅄ'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ㅄ'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은 [갑찐]으로 발음한다.